

저자 황도순
역자 구현희
해제 구현희

국역
燕行日記



9 788959 704019
ISBN 978-89-5970-401-9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연행일기 서문 燕行日記序	1.1
연행일기 燕行日記	1.2
8월 八月	1.2.1
8월 7일 임신(壬申) 八月七日壬申	1.2.1.1
8일 八日	1.2.1.2
10일 十日	1.2.1.3
11일 十一日	1.2.1.4
12일 十二日	1.2.1.5
13일 十三日	1.2.1.6
14일 十四日	1.2.1.7
15일 十五日	1.2.1.8
16일 十六日	1.2.1.9
17일 十七日	1.2.1.10
18일 十八日	1.2.1.11
19일 十九日	1.2.1.12
20일 二十日	1.2.1.13
21일 二十一日	1.2.1.14
22일 二十二日	1.2.1.15

23일 二十三日	1.2.1.16
24일 二十四日	1.2.1.17
25일 二十五日	1.2.1.18
26일 二十六日	1.2.1.19
27일 二十七日	1.2.1.20
28일 二十八日	1.2.1.21
29일 二十九日	1.2.1.22
9월 九月	1.2.2
9월 1일 九月一日	1.2.2.1
2일 二日	1.2.2.2
3일 三日	1.2.2.3
4일 四日	1.2.2.4
5일 五日	1.2.2.5
6일 六日	1.2.2.6
7일 七日	1.2.2.7
8일 八日	1.2.2.8
9일 九日	1.2.2.9
14일 十四日	1.2.2.10
28일 二十八日	1.2.2.11
29일 二十九日	1.2.2.12
10월 十月	1.2.3
2일 二日	1.2.3.1
3일 三日	1.2.3.2

5일 五日	1.2.3.3
7일 七日	1.2.3.4
16일 十六	1.2.3.5
부록 附錄	1.3
태학 太學	1.3.1
노구교 蘆溝橋	1.3.2
풍속 風俗	1.3.3
토산물 所産	1.3.4
연대팔경 燕臺八景	1.3.5
일행목록 一行目錄	1.4
연행왕환노정기(기유년 7월 17일) 己酉七月十七日 燕行往還路程記	1.5
7월 七月	1.5.1
8월 八月	1.5.2
9월 九月	1.5.3
10월 十月	1.5.4
11월 十一月	1.5.5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燕行日記序 연행일기 서문

昔職方氏掌天下之地, 辨其邦國都鄙, 與夫四夷八蠻、七國九貉、五戎六狄之人物, 及財用九穀六畜, 此天地間大都會也. 九州之區畫, 則揚州之鎮曰會稽, 其所產則金錫竹箭也. 荊州之鎮曰衡山, 其所產則丹銀齒革也, 以至於青豫之所有, 冀兗之所出, 莫不詳悉, 而古今人所未盡見也.

옛날에 직방씨(職方氏)가 천하의 땅을 관장하여 천자국과 제후국, 도시와 변두리를 구분하고 더불어 사이(四夷)·팔만(八蠻), 칠국(七國)·구맥(九貉), 오용(五戎)·육적(六狄)의 인물을 구분하였으며 재물에 대해서는 구곡(九穀)·육축(六畜)으로 구분하였다고 하니 이곳 연경은 천지간에 크게 변화한 도회지이다. 구주(九州)의 구획으로 볼 때 양주(揚州)의 요해지는 회계(會稽)로 금·주석(錫)·땃살(竹箭)이 생산되는 곳이고, 형주(荊州)의 요해지는 형산(衡山)으로 단은(丹銀)·짐승 이빨·가죽이 생산되는 곳이다. 청주(靑州)·예주(豫州)의 산물과 기주(冀州)·연주(兗州)의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세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옛 사람도 지금 사람도 다 본 것은 아니다.

噫, 太史公二十, 壯遊於禹穴瀟湘之遠, 以廣文章, 蘇穎濱十七, 達觀於泰山黃河之大, 以富眼目, 此則後世之所共知也. 至皇明時, 南懷仁周流四海之外數萬里, 有活樹城, 卽西邊之極也, 而一大樹逶迤, 周遭自作十里城, 此則漏於山海經, 而豎亥之所未盡步也.

아, 태사공(太史公, 사마천)은 20세에 우혈(禹穴)¹과 소상(瀟湘)²의 먼 곳까지 크게 돌아본 후 문장이 넓어졌고 소영빈(蘇穎濱)³은 17세에 태산(泰山)과 황하(黃河)의 광대함을 충분히 돌아본 후 안목이 풍부해졌다고 하니, 이는 후대인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명(明)대에 이르러 벨기에인(南懷仁)⁴이 사해(四

海) 밖 수만리를 주유할 때 활수성(活樹城)이 있었는데 서쪽 변방의 끝자락에 있는 성으로 큰 나무 하나가 가지를 뻗치고 있고 둘레가 10리나 되는 성이었으나 산해경에는 누락되어 있었으니 수해(豎亥)⁵도 가보지 못한 곳이다.

己酉七月, 朴相公以請諡兼承襲事, 將赴燕京,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天恩, 驛馬華蓋, 原隰駢駢, 是歲臘月, 咏雨雪紛紛之章而返旆, 亦竣事而來也.

기유년(1849년) 7월 상공(相公) 박회수가 전왕이었던 헌종의 시호를 청하고 겸하여 사왕(嗣王)인 철종의 승습(承襲)⁶을 주청하는 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이 때 동료인 사과(司果) 황혜옹(黃惠翁)도 특별히 태의(太醫)로서 천은을 입어 칙사의 말을 타고 꽃이 뒤덮인 평원과 진펄을 부지런히 달려(驛馬華蓋, 原隰駢駢⁷) 그 해 12월 《시경》의 '우설분분(雨雪紛紛)⁸장을 읊으며 깃발을 돌려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越庚戌元月, 適同爲僦直, 而黃僚袖一軸路程記來示余, 余以平生願一見不得之志, 蹶然起坐, 忙手披覽. 始自渡江日爲記, 而一日二日, 從某至某以駭其矚, 三日四日, 自東徂西以快其心, 所謂人物之富庶, 宮室之壯麗, 不可以文字記其萬一也, 亦不可以丹牘描其形容也. 然而燕京中國之一邊幅也, 子之所見亦一丸者也, 何足爲口呿而不合者乎. 以天地之廣山河之大論之, 金陵錢塘之美, 洛陽函關之雄, 天下之大都也. 今於上國觀風, 異乎吳季札之審樂, 鄭子產之博物, 而特以皇城一隅謂之華麗, 乃隨所到而表以其名, 從所好而著以其形, 若夫昭王之黃金臺, 鞠爲茂草矣, 慶卿之易水歌, 已屬秋風矣, 何可登此臺, 而聽其慷慨之音哉. 茲故只以酒肆之鸚杯肴核, 市廛之綵緞寶貝, 亦足以言大而騁誇也. 雖然子之遊則壯矣, 子之記則詳矣. 今余姑以米鹽之說, 畧叙其顛末云耳.

경술년(1850년) 1월 마침 함께 숙직하게 되었는데 동료 황혜옹이 소매에서 노정기(路程記) 1축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평생 한번 가보길 바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지라 놀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바쁘게 손을 놀려 열람하였다. 처음 강을 건너던 날의 기록으로부터 하루, 이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가 본 것에 놀랐고 사흘, 나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르는 그

의 마음에 즐거웠다. 이른바 인물의 풍부함과 궁실(宮室)의 장려함에 대해서는 문자로는 만분의 일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그림으로도 그 모습을 다 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경은 중국의 한 가장자리이고 그대가 본 것 또한 그 중 한 부분일 뿐이니 어찌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겠는가마는, 천지의 광대함이나 산천의 거대함으로 논하자면 금릉(金陵)과 전당(錢塘)의 아름다움과 낙양(洛陽)과 함관(函關)의 웅장함도 천하의 큰 도읍일 뿐이다. 지금 중국의 풍속을 살펴보니 오(吳)의 왕자 계찰(季札)⁹이 음악을 살펴 정치를 했던 시절이나¹⁰ 박물군자 정자산(鄭子產)¹¹ 같은 인물이 살던 때와는 차이가 있으나 그래도 황성의 한 모퉁이인 연경에 대해서는 화려하다고 일컬을 만하다. 이에 가는 곳마다 그 명칭을 적고, 좋아하는 곳마다 그 모습을 기록해 두었으나 소왕(昭王)의 황금대(黃金臺)¹²는 길이 막혀 무성한 풀밭이 되었고¹³, 경경(慶卿)의 역수가(易水歌)¹⁴는 이미 추풍에 들어 쇠하였으니 어떻게 이 누대에 오르고 그 강대한 음률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단지 주점의 앵무조개 술잔과 안주, 시장의 비단과 패물만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장대함을 말하고 화려함을 이야기할 만한 것이다.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그대가 유람한 것은 장엄하고, 그대가 기록한 것은 상세하다고 할 만하다. 지금 내가 우선 하찮은 말로 그 전말을 간략하게 풀어 이야기 할 따름이다.

是月十三日, 崔日奎序.

이달 13일, 최일규가 서문을 쓰다.

1. 우혈(禹穴) : 우 임금이 순수(巡狩)하다가 승하하여 묻힌 곳 ↪

2. 소상(瀟湘) : 순(舜) 임금이 승하 후 소상강(瀟湘江) 일대에 자춧빛 반점 대가 자랐다고 함 ↪

3. 소영빈(蘇穎濱) : 영빈(穎濱)은 송나라 소철(蘇轍)의 호이다. 백가의 서적을 읽고도 족히 그 지기를 드높이지 못하여 책을 버리고 서울로 가서 궁궐(宮闕)

· 창름(倉廩)· 부고(府庫)· 성지(城池)· 원유(苑囿)의 큰 것을 구경하고, 구양공(歐陽公)을 만나서 굉장한 의논을 듣고, 또 한태위(韓太尉)를 만나 그 빛을 받아서 천하의 대관(大觀)을 다 하고서야 유감이 없었다고 한다. ↩

4. 벨기에인(南懷仁) : 페르디난드 베르비스트를 말함 ↩

5. 수해(豎亥) : 우 임금의 신하로 우 임금의 명에 따라 동극(東極)에서 서극(西極)까지 걸어 산해경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

6. 승습(承襲) : 헌종을 이어 철종이 왕위를 잇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 ↩

7. 驛馬華蓋, 原隰駢駢 : 《시경》 소아 황황자화(皇皇者華)에, "화려한 온갖 꽃들은 저 언덕 진펄에 피어 있고, 부지런히 달리는 사신은 행여 사명 못다 할까 걱정일세.(皇皇者華, 于彼原隰, 駢駢征夫, 每懷靡及.)" 한 데서 온 말로, 곧 칙사를 의미한다. ※한국고전종합DB 주석 ↩

8. 우설분분(雨雪紛紛) : 《시경》 <채미(采薇)>에 "옛날에 내가 길을 떠날 때에는, 푸른 버들가지가 휘휘 늘어졌는데, 지금 내가 돌아올 때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네.(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 구절을 말하는 듯하다. 변방에서 오래 수자리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병사의 심경을 읊은 시이다. ↩

9. 오(吳)의 왕자 계찰(季札) : 춘추(春秋)때 오(吳)의 왕자 계찰이 어진 이름이 있어 여러 나라를 역방했으며, 노(魯)를 방문하여 주(周)의 예악(禮樂)을 보고 열국(列國)의 치란(治亂) 흥쇠(興衰)를 알았다. ↩

10. 음악을 살피 정치를 했던 시절이나 : "오직 군자라야 음악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소리를 살피 음을 알고, 음을 살피 음악을 알고, 음악을 살피 정치를 안다. 이렇게 하여 치도가 갖추어진다.(唯君子爲能知樂 是故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矣)"라고 한 말을 축약한 표현이다. 《禮記 樂記》 ↩

11. 정자산(鄭子産) : 진 평공(晉平公)이 병이 들어 정자산이 문병하였을 때 정 자산에게 병이 원인에 대한 점괘에 대해 물었는데 자산의 말을 듣고 "박물군 자(博物君子)로다." 하고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한다. ※《백호전서 제45권 · 雜 著 · 讀書記 · 內則外記下》

중국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정(鄭) 나라의 재상으로 예법(禮法)으로 안 을 다스리고 구설(口舌)로 밖을 제어하므로, 당시 강국인 진(晉)과 초(楚)의 침 략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고전종합DB · 고전용어시소러스 · 공손교 ↩

12. 황금대(黃金臺) : 전국 시대 연나라 소왕(昭王)이 천하의 현사(賢士)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역수(易水) 동남쪽에 건립했던 황금대(黃金臺)의 준말로, 흔히 연경(燕京)의 대명사로 쓰인다. ↩

13. 길이 막혀 무성한 풀밭이 되었고 : 《시경》〈소아(小雅) 소반(小弁)〉에 "평 탄하게 뚫린 큰길이 막혀서 무성한 풀밭이 되었다.〔蹶蹶周道, 鞠爲茂草.〕" 하 였다. ※한국고전종합DB ↩

14. 역수가(易水歌) : 경경(慶卿)은 전국 시대 위(衛)나라 자객이다. 태자 단 (丹)을 위하여 진시황을 죽이러 떠날 적에 역수(易水) 가에서 전별하였는데, 고점리(高漸離)가 축(筑)을 두드리자 형가가 화답하여 노래하기를 "바람이 차 갑게 부니 역수가 차갑구나. 장사가 한번 떠나가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 하였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

燕行日記 연행일기

己酉七月初四日, 以太醫特蒙_天恩, 是隨行大臣之禮, 而亦余之所平生願一大觀者也. 是月十七日, 自京城離發, 至九月初九日, 始到皇城, 其所經歷處, 宮室之壯麗, 人物之繁庶, 實書不盡言, 言不窮形. 始自渡江日, 略陳其槩, 序次如左.

기유(1849년) 7월 4일, 태의로서 특별히 천은을 입었으니 이는 이는 대신(大臣)을 수행하는 예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번 크게 중국을 관람하는 것은 내가 평생 바라던 바였다. 이달 7월 17일에 한양을 떠나면서부터 9월 9일에 비로소 황성에 도달하기까지 지나온 곳과 궁실(宮室)의 장려함과 인물의 풍부함은 실로 책에 다 말할 수 없고,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다. 압록강을 건너던 날로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그 대강을 실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八月 8월



八月七日壬申 8월 7일 임신(壬申)

八月七日壬申. 天氣尚熱. 是日將渡江平明, 府尹及裨將, 先待鴨綠江邊, 使家整頓人馬, 離發出城, 會坐一場, 各搜驗負卜訖. 辰時上書_啓, 卽渡江. 是時送者觀者, 雜環如市. 行五里許, 又渡中江, 荒蘆茂葦, 挾道左右, 坑水未乾, 有水停處. 乘箬船以渡, 其長僅坐五六人, 蚊雷甚大, 亂集射人. 間關十餘里, 過小峴, 回顧義州, 已失江上之統軍亭矣. 始覺有離索之懷, 而稍慰來頭之壯觀也.

8월 7일 임신(壬申). 기온이 아직 무덥다. 이 날은 강 건너기 전 해 뜰 무렵에 의주(義州) 부윤(府尹)과 비장(裨將)이 먼저 압록강 가에서 기다렸다. 사신들은 일행과 말을 정돈하고 출발하여 성을 나가서 한 마당에 모여 앉아 각자 짐을 찾아 점검하기를 마쳤다. 진시(辰時)에 서계¹를 써 올린 후 곧 강을 건넜다. 이때 송별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들이 섞여 에워싼 모습이 시장 같았다. 5리쯤 가서 다시 중강(中江)을 건너는데 거친 갈대숲과 시든 버들이 무성하게 길 좌우로 나있고 구덩이에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었다. 대나무 배로 강을 건넜는데 그 길이가 겨우 5 - 6인 정도 앓을 만한 정도였으며 뇌성(雷聲) 같은 모기떼가 심히 어지럽게 모여들어 사람을 쏘아댔다. 험난한 길을 10여리쯤 가다가 작은 고개를 지나면서 의주(義州)를 돌아보니 이미 강가의 통군정(統軍亭)은 보이지 않았다. 비로소 고향을 떠난 감회가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장관에 차차 위로가 되었다.

行五里許, 有馬嘶烟起處, 此是九連城, 蓋古之鎮江府也. 先是灣府送人, 除蕪艸設白帳幕, 以待此處, 暫爲中火. 至金石山下〔前時露宿處, 例爲溫井坪, 而今則巨木不如金石山下之茂, 故作此云.〕, 山勢鍾崑, 精神秀偉, 巉削倉卒之狀, 不幸不在於中國, 不得與嵩華並峙, 且山下膏腴之壤, 蕪沒於荒艸之中, 只爲虎豹窟宅, 惜哉. 此處掘地熾炭, 上設板木, 四面以白布帳, 莎簣等作戶牖樣, 可堪一夜休息. 帳外各爇巨木堆, 廝役之輩, 有寒而向火者, 有呼人者, 有相應者, 有秣馬者, 如春曹場屋之懸燈聚首而坐. 往往吹角, 角聲人聲終夜不絕, 蓋防虎之計也.

5리쯤 가니 말이 울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구련성(九連城)으로 옛날의 진강부(鎭江府)이다. 먼저 의주 부윤 이유원(李裕元)이 사람을 보내어 무성한 풀을 제거하고 흰 장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잠시 점심을 먹었다. 금석산(金石山) 아래에 이르니〔이전에는 노숙처를 으레 온정평(溫井坪)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거목들이 금석산 아래만큼 무성한 곳이 없으므로 이곳에 노숙처를 만들었다고 한다.〕산의 형세가 우뚝하고 기상이 수려하여 아슬아슬하게 깎아지른 듯한 형상이었다. 불행히도 금석산이 중국에 있지 않아 송산(嵩山)·화산(華山)과 함께 우뚝함을 겨루지 못하며, 또 산 아래 기름진 땅이 잡초 속에 파묻혀 다만 표범과 호랑이의 굴이 되었으니 애석하다. 여기에 땅을 파서 솥을 피우고 위에는 널판을 설치하였으며 4면에는 흰 베로 장막을 치고 사초와 대자리 등으로 문이나 창문처럼 만드니 하룻밤 휴식을 감당할 만하였다. 장막 밖에서는 각각 거목 더미에 불을 지폈으며 짐꾼 무리들 중에는 추워서 불로 향하는자, 사람을 부르는 자, 응답하는 자, 말에게 풀을 먹이는 자가 있었다. 마치 춘조(春曹, 예조의 별칭)의 과거 시험장에 등불을 매달아 놓고 선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는 모습 같았다. 종종 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려왔고 피리소리와 사람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으니 아마 범을 쫓으려는 계책이었을 것이다.

1. 서계 : 승정원일기에 의관 황도순이 올린 서계가 8월 11일 도착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박회수의 주치의로 따라갔으나 서원 한수정이 사행중 병이 나서 며칠 뒤늦게 건넌 듯하다. "의관 황도순이 서계(書啓)를 올리기를 '고부청시 겸 승습주청정사 판중추부사 박회수는 무사히 작행하니 8월 7일 진시에 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갔사오며 서원 한수정이 따라가면서 병으로 인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뜻을 고하오니 차례대로 기록해 아힙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醫官黃道淳書啓, 告訃請諡兼承襲奏請正使判中樞府事朴晦壽, 無事作行, 今月初七日辰時量渡江入去爲白乎旅, 隨往書員韓守貞, 因病落後之意, 詮次啓達.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2490책 (탈초본 121책) 철

종 즉위년 8월 11일 병자 19/25 기사 1849년 道光(淸/宣宗) 29년 [↩](#)



八日 8일

八日. 行五里許, 至溫井坪, 山益奇, 水益清, 野勢盤桓起伏之中, 柳榆雜卉成林. 往有燒火處, 此是艸茂塞路, 故騎馬巡山, 放火開道云矣. 山勢四圍, 若有居人籬落, 路東井水, 雖冬月如湯之沸. 至蔥秀, 長流之泉, 泉上秀巒, 與我國之蔥秀, 恰相似也. 此泉之源, 必是溫井之脉也. 至月十四日, 回過時, 流水不冰而烟霧襲人. 行五里許, 過魚龍堆, 堆是一邱陵, 而泉石益奇可愛. 又至十餘里, 遠見鳳凰山, 插入雲霄, 如介冑之士, 拱揖軍前, 與金石山相上下而雄壯也.

8일. 5리쯤 걸어 온정평(溫井坪)에 이르니 산이 더욱 기이하고 물도 더욱 맑았다. 들의 형세가 구불구불 솟았다 굽어졌다 하는 가운데 버드나무와 느릅나무가 잡초와 섞여 숲을 이루었다. 가끔씩 불태운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풀이 무성하여 길이 막혔기 때문에 말을 타고 산을 돌아다닐때 불을 놓아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산의 형세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어 마치 사람이 사는 집 담장 같고 길 동쪽 우물물은 비록 겨울이라도 탕처럼 끓어오른다. 총수(蔥秀)에 이르렀다. 길게 흐르는 샘과 샘 위의 빼어난 산이 우리나라의 총수(蔥秀)와 서로 꼭 닮아있다. 이 샘의 원류는 온정(溫井)에 맥(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11월 14일, 돌아오며 지나던 때에도 흐르는 물이 얼지는 않고 연무(烟霧)가 사람을 엄습했다.¹ 5리쯤 가다가 어룡퇴(魚龍堆)를 지났다. 어룡퇴는 하나의 구름 언덕으로 샘과 바위가 더욱 기이하여 아찔 만하였다. 또 10여리를 가니 멀리 봉황산(鳳凰山)이 보였다. 구름을 뚫고 솟은 모습이 마치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사가 군사 앞에서 공수(拱手)하며 읊(揖)하고 있는 듯, 금석산(金石山)과 서로 우위를 다툰 만큼 웅장하였다.

午後向柵門, 門在鳳凰山南麓之下, 而蓋列植丈餘木, 以爲界限也. 山麓野邊, 牧人或着麻霞子, 或着繩戰笠, 持一長鞭, 牛馬猪羊, 各率百餘羣, 放野喂草〔歷路種種有之〕. 至柵門, 門外之南, 設軍幕以待, 此是灣府官人之舉行也. 彼人圍立觀光, 卽柵人及看車人, 持新粧之車, 要我人賞乘之意也. 頃之, 開門而入, 門之北有館. 鳳凰城

將坐於校倚, 從官或坐校倚, 或左右侍立, 點閱人馬, 而入路右有關帝廟, 門前立雙紅旗, 柱揭金字板, 層階柱樑, 佛像神馬, 甚玲瓏也. 市廛茶房, 雖不至稠密, 雕窓彩垣, 丹牖瓦甍, 極其奇絕, 春詞則皆以紅紙書帖, 可謂初見世界也, 而回還時, 以皇城之所見, 更爲瞻望, 則不過一蕭條處也. 偶入第五家, 叙其彼此之禮, 其姓王, 字滙川, 山東人也. 聞余之知醫而曰, 內外俱有病無子, 請教求嗣之方. 余曰, 君試加味八味元. 內內則(彼人之稱妻, 曰內內)試附益地黃元, 必有庶幾之望. 遂錄授而歸, 彼合掌而謝矣. 行中皆乘車, 車前馬後, 各懸鉄紅燈, 馬項懸鈴數十箇, 與車轍響相應, 如樂作焉. 余則納馬二匹, 一則騎之, 一則藥院使令文点釧與之. 抵柵後, 申時量, 封發書_啓, 仍留一日.

오후에는 책문(柵門)으로 향하였다. 문은 봉황산 남쪽 산기슭 아래에 있으며 한 장(丈) 남짓한 나무를 줄지어 심어놓고 경계로 삼았다. 산기슭과 들가의 목축인들은 마하자(麻霞子, 모자의 일종)를 쓰거나 끈으로 전립(戰笠, 군장을 할 때에 쓰던 갓)을 메어 쓰고 기다란 채찍 하나를 든 채 소·말·돼지·양을 각각 100여 마리씩 들에 풀어놓고 풀을 먹였다.(지나는 길에 종종 있었다.) 책문에 다다르니 문 밖 남쪽에서 군막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만부(灣府, 의주)의 관인들이 만들어 둔 것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구경하고 있는데 곧 책인(柵人)들과 말 모는 사람(看車人²)이 새로 단장한 수레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내고 수레를 타겠느냐고 물었다. 잠시 후 책문이 열리고 들어서니 문의 북쪽으로 관소(館所)가 있었다. 봉황성(鳳凰城)을 지키는 장군이 의자에 앉아 있고 종관(從官)들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좌우로 모시고 서서 일행과 말을 점찍어 검열하였다. 길에 들어서자 오른쪽에 관제묘(關帝廟, 관우를 모시는 사당)가 있었다. 문 앞에는 한 쌍의 붉은 깃발이 세워져 있고 기둥에는 금색으로 쓴 현판이 걸려 있었다. 계단의 기둥이나 들보에 불상과 신마(神馬)가 매우 영롱하였다. 시장에 찻집이 조밀하진 않았지만 조각한 창과 채색한 담, 붉게 칠한 기와지붕이 지극히 기이하고 절묘하였다. 춘사(春詞, 입춘날 써 붙이는 글귀)는 모두가 홍지(紅紙)에 써두었으며 가히 처음 보는 세계라고 할 만하였으나 돌아올 때 항성을 보고 나서 이곳을 다시 보니 하

나의 쇠락한 곳에 불과했다.³ 우연히 제 5가에 들렀다가 예를 갖추어 서로 간에 인사를 하였는데 성은 왕씨고 자는 회천이며 산동 사람이다. 내가 의술을 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부부 내외가 모두 병이 있어 자식이 없으니 청컨데 후사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말하였다. "그대는 시험 삼아 가미 팔미원을 먹고 아내(저들은 아내를 '내내(內內)'라고 부른다.)는 부익지황원을 쓰면 반드시 거의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처방을 적어주고 돌아가니 저들이 합장하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가는 도중에 모두 수레를 탔는데 수레 앞과 말 뒤에는 각각 철로 된 홍등을 매달았다. 말 목에 달린 수십 개의 방울이 수레바퀴 소리와 서로 응하는 것이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말 2필을 내어 1마리는 타고 1마리는 약원사령(藥院使令) 문점쇠(文点釧)에게 타라고 주었다. 책문(柵門) 달은 후 신시(申時)쯤에 서계(書啓)를 봉하여 올려 보낸 후 하루를 더 머물렀다.

1. 11월 14일, 돌아오며 지나던 때에도 흐르는 물이 얼지는 않고 연무(烟霧)가 사람을 엄습했다. : 심돈영의 《연행록》과 본 《연행일기》의 〈노정기〉 기록을 보면 황도순 사행의 무리들이 돌아오는 여정에서 11월 14일 책문(柵門)을 지나 15일 온정평에 머무른 것을 알 수 있다. 황도순은 연행 중의 기록을 돌아온 후에 정리하여 《연행일기》 저작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

2. 看車人 : 열하일기에 보면 말 모는 사람을 '칸처더(看車的)'라 불렀다고 되어 있다. ↩

3. 춘사(春詞, 입춘날 써 붙이는 글귀)는 모두가 홍지(紅紙)에 써두었으며 가히 처음 보는 세계라고 할 만하였으나 돌아올 때 황성을 보고 나서 이곳을 다시 보니 하나의 쇠락한 곳에 불과했다. : 이 기록에서도 황도순이 연행 중의 기록을 돌아온 후에 재정리하여 《연행일기》 저작을 완료한 것을 알 수 있다. ↩



十日 10일

十日. 自鳳凰城以後, 迎送官〔姓表〕及甲軍, 護行或前或後而來. 至三叉河, 乾子浦, 樹木叢雜, 道路崎嶇. 過伯顏洞, 登麻姑嶺, 嶺路不甚峭峻, 而紆迴蔓延, 僅容車轍. 至松站〔一名薛劉站〕, 世傳薛仁貴、劉仁遠, 產於此土故名之, 俊傑之產, 皆由是山之氣, 然則是山之靈, 果信矣.

10일. 봉황성(鳳凰城)부터는 영송관(迎送官)(표(表)씨)과 갑군(甲軍)이 앞뒤로 보호하며 왔다. 삼차하(三叉河)에 이르렀다. 건자포(乾子浦)는 수목들이 우거지고 길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백안동(伯顏洞)을 지나 마고령(麻姑嶺)에 오르면 고갯길이 심히 험준하지는 않았으나 구불구불한 길이 만연해 있어 수레바퀴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송참(松站)(일명 설류참(薛劉站))에 다다랐다. 세간에 전하기를 설인귀(薛仁貴)·유인원(劉仁遠)이 이 땅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¹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영웅호걸이 산출된 것은 모두 이 산의 기운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런즉 이 산의 영험함을 과연 믿을 만하다.

¹. 설인귀(薛仁貴)·유인원(劉仁遠)이 이 땅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 여기서 產자를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산출'된 것으로 본다. 《몽경당일사》 등 여러 자료에서 이곳을 설인귀, 유인원이 군사를 주둔하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又名薛劉站. 唐太宗東征時薛仁貴, 劉仁願駐兵處. ※《馬訢勒征紀序》" [↩](#)

十一日 11일

十一日. 朝或陰或雨. 抵黃家庄中火, 渡八渡河, 河是一水, 而灣迴環轉, 渡數至八, 故爲名云. 至通遠堡宿所, 山谷險阻, 人家鮮少矣.

11일. 아침에 흐렸다가 비가 왔다 했다. 황가장(黃家庄)에 닿아 점심을 먹고 팔도하(八渡河)를 건넜다. 팔도하(八渡河)의 물은 한 줄기인데 물굽이가 돌고 돌아 물을 건너는 횡수가 8번에 이르기 때문에 이름하였다고 한다. 통원보(通遠堡)에 이르러 하룻밤 묵었다. 산골짜기가 험하여 인가가 드물었다.



十二日 12일

十二日. 抵分¹手¹高俞家三嶺, 所見只是佛寺妖廟, 及農家峽戶而已. 日未暮, 抵連山關, 古鵝鶻關也. 行訪左右廡堂, 到處主人請坐於榻, 進一盃茶相勸, 是迎客之風俗也.〔至皇城皆然〕門上柱中以紅紙帖, 門迎春夏秋冬福, 戶納東西南北財, 洪範五行先言富, 大學十章半論財等句, 皆招財誦德之詞, 門上揭店號, 皆以泥金塗之

12일. 분수령(分水嶺)·고가령(高家嶺)·유가령(劉家嶺) 세 고개에 닿으니 보이는 것은 다만 절이나 잡된 신들의 사당, 농가의 초막뿐이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연산관(連山關)에 닿았으니 옛날의 아골관(鵝鶻關)이다. 지나며 좌우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가게 주인이 평상에 앉으라고 청한 후 차 한 잔을 내어 주며 서로 권하였는데 이것이 객을 맞이하는 풍속이다.〔황성에 다다를 때까지 모두 그렇게 했다.〕문 위 기둥 중간에 붉은 종이로 첩을 써두었는데 '문(門)은 춘하추동의 복을 맞이하고, 호(戶)는 동서남북의 재물을 들인다.'거나 '홍범오행(洪範五行)에서도 먼저 부를 말하였고, 대학 10장에도 받은 재물을 논하였다.' 등의 구절이 적혀있다. 모두 재물을 불러들이는 송덕(誦德)의 말이었다. 문 위에 걸린 상호도 모두 금색을 칠했다.

¹. 手 : *水 ※문맥상 ↩

十三日 13일

十三日. 抵會寧嶺, 磴道紆迴盤轉, 足可騎馬, 而登俯視羣山, 皆在坐下, 盖地形漸次成山, 不知其高而自高也. 山邊立三大石, 一石上生松樹. 自鳳城以來松樹絕無, 而到此始見也. 至青石嶺, 嶺之石帶青色, 與我國青石關相似也, 嶺之險與會寧嶺一般. 此是關防要害之地, 而未見築一城, 以爲遼以東無足憂而然耶. 嶺上有寺, 以金書額曰, 英風萬古, 丹忠貫日, 乃是關帝廟也. 嶺下路邊, 又有關帝廟, 書額曰大丈夫三字. 踰小石嶺至狼子山, 疊峰四圍, 開野平遠. 閭閻市井, 足慰客懷, 入廬房, 四壁貼法書名畫, 茶香綵綾, 令人眼繚.

13일. 회령(會寧嶺)에 닿았다. 돌계단 길이 빙 돌아있어 말을 탈 만하였다. 회령에 올라 여러 산을 굽어보니 모두가 아래에 있었다. 아마 지형이 점차 산으로 되어서 높은 줄을 알지 못하는 새에 저절로 높은 곳까지 올라 온 듯하다. 산 주변에는 세 개의 큰 바위가 있고 그 중 하나는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봉황성으로부터 온 이래로 소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여기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보였다. 청석령(靑石嶺)에 다다르니 고개의 돌이 푸른 빛을 띄고 있어 우리나라의 청석관(靑石關)과 서로 비슷하였고 고개의 험준함은 회령(會寧嶺)과 거의 같았다. 이곳은 관(關)을 방어하는 요충지이나 성을 쌓아놓은 곳은 볼 수 없으니 험준하여 요동 지역은 근심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그런 것인가? 고개의 위쪽에는 절이 있고 편액에 금자(金字)로 "영웅의 품모는 만고토록 남아있고, 일편단심 충절은 나날이 이어진다."고 적혀 있으니 이곳은 관제묘(關帝廟,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회령 아래 길가에는 관제묘가 하나 더 있는데 편액에 '대장부(大丈夫)' 세 글자가 쓰여 있다. 소석령(小石嶺)을 넘어 낭자산(狼子山)에 이르니 첩첩 봉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고 멀리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여염집과 저잣거리는 객의 소회를 위로할 만하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사방 벽에 법서(法書)나 명화(名畵)를 붙여 놓았고 차 향기와 비단의 채색이 사람의 눈을 취하게 했다.



十四日 14일

十四日. 自摩天嶺至高麗叢. 自此山盡野出, 不覺豁然, 大哉, 大國之地形也, 蕩蕩無涯. 至阿彌庄木廠, 向遼東城, 而進入綏遠門, 城之東門也. 南北五里, 東西十里, 蜀漢公孫度之所築也, 無一罅隙, 宛如新築. 市廛富庶, 人物繁庶, 不可但以悅惚論也. 出西門外一里餘, 有關帝廟, 扁曰無能名. 歷五重門, 入正殿, 儼然遺像着黃龍袍, 肅如平生. 粉壁彩閣, 儀仗簇立殿庭, 紋磚龜碑燦爛, 實不能名狀. 乾隆十五年, 加封伏羲大帝. 廟南數里許, 有白塔矗立雲間, 凡八角十三層, 皆有簷, 簷輒懸鐸, 鐸或有落, 簷或有圯, 最上覆以銅盆, 色如石綠, 盆四隅有翔鳥之狀, 中臺列刻佛像, 縹緲望之, 尚如人面, 狎以視之, 其大可知. 摠計高幾百丈, 圍可千尺. 人謂華表柱舊墟, 而後人立塔于此, 以表懷古之心. 或云, 晉時馮祐, 喪其配慕容氏, 日夜思念造塔, 發願仙釋之說, 皆未信, 而塔之東有古城址, 城之側有纍纍塚, 即所謂城郭猶存人民非, 何不學仙塚纍纍者也, 華表之墟, 豈其不然乎. 塔之營始也, 經費不啻千萬, 人力有不可能者, 其或神鬼之施化歟. 此時觀景之處, 市肆村人, 皆圍而隨行, 清女之眉間塗臙脂者, 良¹漢的也, 路邊立玩者亦頗多, 而的之牙婆, 招引我隸, 請勸留宿曰, 禮不過一二吊(一兩六錢爲一吊), 遂挽執, 是果陋俗也. 卽渡太子河, 昔秦皇帝使李信伐燕, 逐太子丹甚急, 丹走遼東, 匿行水中, 卽此河也.

14일. 마천령(摩天嶺)으로부터 고려총(高麗叢)에 다다랐다. 여기부터 산이 끝나고 들판으로 나오니 어느새 드넓어졌다. 참으로 크도다, 대국의 지형이며, 탕탕하니 끝이 없도다. 아미장(阿彌庄)과 목창(木廠)에 이르렀다. 요동성을 향하여 성의 동문인 수원문(綏遠門)으로 진입하였다. 이 성은 남북 5리, 동서 10리로 축한(蜀漢)의 공손도(公孫度)가 쌓은 것인데 갈라진 틈새가 한 군데도 없어 마치 신축한 것 같았다. 풍요로운 시장과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황홀하다는 말로 다 논할 수 없다. 서문 밖을 나와 1리쯤 가면 관제묘가 있고 편액에 '능히 이름할 수 없다(無能名)'고 쓰여 있다. 5개의 중문(重門)을 지나 정전(正殿)에 들어가니 엄연하게 초상이 황룡포를 입고 있는 것이 평소 살아있는 모습 같이

속연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누각은 채색하였으며 의장(儀仗)들은 정전의 뜰에 세워 놓았다. 무늬 새긴 벽돌과 거북 모양의 비석이 찬란하여 편액의 말처럼 그 형상을 능히 이름할 수 없었다. 관제는 건륭 15년(1750년)에 복마대제(伏魔大帝)로 봉하여졌다. 대제묘 남쪽으로 몇 리쯤 가면 백탑(白塔)이 구름 사이에 높이 솟아 있다. 8각 13층으로 모두 처마가 있고 처마에는 방울을 달아 놓았는데 방울이 떨어진 것도 있고 처마가 무너진 부분도 있다. 백탑 꼭대기는 초록빛이 도는 구리 동으로 덮여 있고 동이의 네 모퉁이에는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 있다. 중간에는 조각한 불상이 줄지어 있는데 아득히 멀리서 바라보면 오히려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전체 높이가 거의 1백 장(丈)이고 둘레가 1천 척(尺)은 됨 직하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은 화표주(華表柱, 무덤 양쪽에 세우는 돌기둥)의 옛터인데 후인들이 이곳에 탑을 세워 옛 일을 돌아보고자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혹자는 진(晉)나라 때에 풍불(馮拔)이 그 아내인 모용씨(慕容氏)를 잃고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탑을 짓고 신선과 석가에게 원을 빌었다는 설이 있으나 모두 믿지 못하겠다. 탑 동쪽에는 옛 성터가 있고 성 옆에 겹겹이 무덤이 있었다. 이른바 '성곽은 아직도 남아있건만 사람은 없으니, 어찌 선술(仙術)을 배우지 않고² 무덤만 총총히 쌓여있는가.'³라고 하였는데 화표주를 세워 둔 터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탑을 처음 만들 때 천만금의 비용이 들었을 뿐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니 귀신이 베푼 조화이지 않겠는가. 이 때 구경하는 곳마다 시장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에워싸고 따라다녔는데, 청의 여인들 중에 미간에 연지를 바른 이는 양한지(養漢的, 창녀)로 길가에 서서 완상하는 자가 제법 많았다. 양한지의 포주 노릇을 하는 노파가 우리를 끌어 당겨 따라다니며 하룻밤 머물 것을 권유하면서 "보통 1 - 2조(吊)만 내면 된다." (1냥 6전을 1조(吊)라고 한다.)며 잡고 늘어지니 이는 과연 천박한 풍속이다. 바로 태자하(太子河)를 건넜다. 옛날 진시황이 이신(李信)에게 연(燕)나라를 치도록 할 때 태자 단(丹)을 급히 쫓아갔는데, 단이 요동으로 도망가다가 물속으로 몸을 숨긴 곳이 바로 태자하이다.

1. 良 : *養 ↩

2. 어찌 선술(仙術)을 배우지 않고 : 신선술을 배워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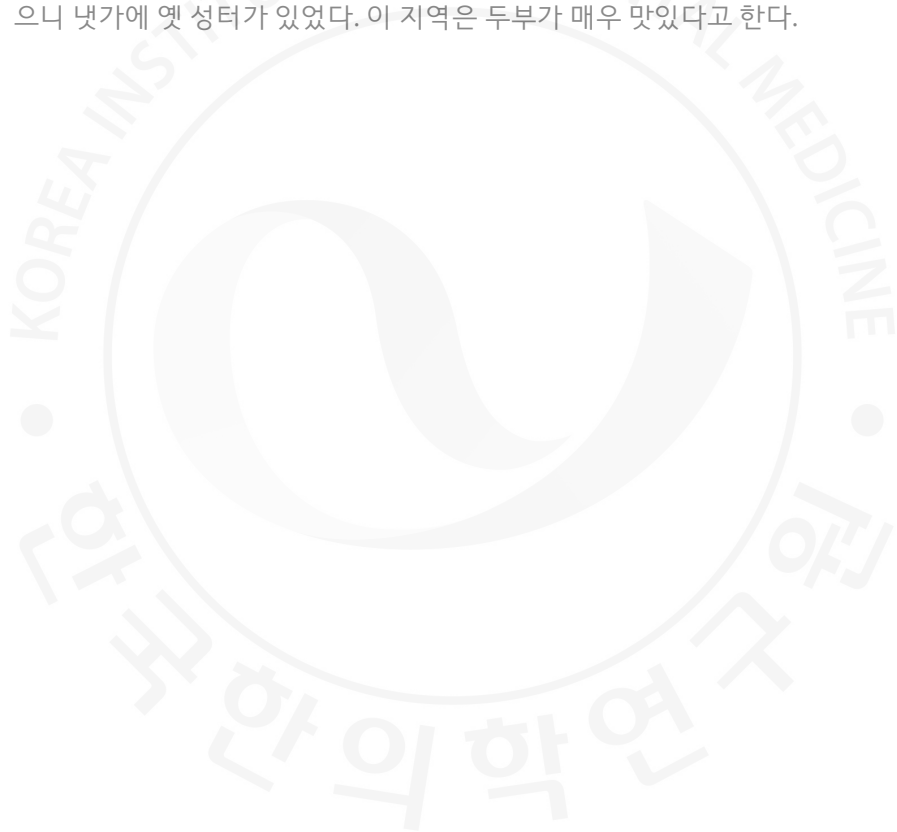
3. 한(漢) 나라 요동 사람 정영위(丁令威)의 말이다. ↩



十五 15일

十五日. 自接官廳至萬寶橋, 橋傍有古碑, 康熙丁亥所立. 至十里河堡, 河邊有古城址. 此地豆腐甚佳云.

15일. 접관청(接官廳)으로부터 만보교(萬寶橋)에 이르렀다. 다리 옆에 강희(康熙) 정해년(1707)년에 세워진 옛 비석이 있었다. 십리하보(十里河堡)에 닿으니 냇가에 옛 성터가 있었다. 이 지역은 두부가 매우 맛있다고 한다.



十六日 16일

十六日. 至白塔堡中火. 佛寺邊有白塔, 高可十餘丈, 而甚奇崑矣. 自此無一髮山, 無半仞邱, 儘是闊世界大天地也. 古詩所謂野廣天低樹, 一低字善狀其真也. 趙進士敬有有詩曰, 野如流水漫漫去, 村似孤舟泛泛來, 可謂得其景境矣. 以小眼孔觀於大野, 恍如魂夢, 茫無止泊, 與浮雲柳絮, 飛揚於廣漠之間, 而今以後, 吾知免於井底蛙也.

16일. 백탑보(白塔堡)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절 주변에 백탑(白塔)이 있는데 높이가 10여장(丈)으로 심히 기괴하였다. 여기서부터는 산이 터럭만큼도 없고 반 길 정도의 언덕도 없으며 그야말로 드넓은 세계이자 큰 천지였다. 옛 시(詩)에 "들은 넓고 하늘은 나무에 아래에 드리웠네(野廣天低樹)¹"라고 하였는데 '低'라는 한 글자는 이 광경을 진실되게 잘 표현한 것이다. 진사 조경유(趙敬有)²가 지은 시에 "들은 흐르는 물처럼 끝없이 가고 마을은 외로운 배처럼 드물게 오네.(野如流水漫漫去, 村似孤舟泛泛來³)"라 하였으니 그 풍경에 제대로 표현했다고 하겠다. 작은 눈구멍으로 큰 들판을 보니 황홀하여 꿈을 꾸는 듯 아득히 멈추지 않는 듯 하고 뜬구름과 버들솜털이 넓고 아득한 공간을 날아다니니 내가 지금에서야 우물 안 개구리를 면하였음을 알겠다.

看車人憑軾而歌, 其歌雖無腔調可聽, 足爲岑寂中一笑矣. 往往有村落店舍, 而古柳新榆之間, 牛欄豚柵, 種種有之. 歷一所臺, 望見如白衣山人, 兀立千尺, 隱暎於烟樹之間. 問諸僕夫, 答曰, 此白塔立於瀋陽城東也. 至渾河, 河西南入太子河, 北流入遼水, 又北入于瀋陽. 日未西抵瀋陽, 瀋陽古奉天府也. 按其誌云, 白頭山一名不咸山, 山上有大澤, 號塔門湖. 一日仙女三人, 自天而下, 逍遙澤畔, 忽靈鵲含一物如棗栗者, 置少女懷中而去. 女吞之有娠, 生一男子, 甚奇偉兒, 生五六歲, 其母忽昇天, 兒無所依, 泊乘桴, 自澤中而至黑龍江北. 是時四種部落, 頻年相爭, 一部落得此兒以爲神, 仍爲酋長, 并吞三部落, 遂霸滿州, 滿州即古靈古塔也. 其後世得建州, 又得瀋陽, 名建州曰興京, 名瀋陽曰盛京, 謂興於此盛於斯也. 一行入城, 觀者盈街, 威容并井.

마부(看車人, 칸처더)가 수레에 기대어 노래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노래는 비록 곡조는 없으나 들을 만하니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한바탕 웃기에 충분했다. 이따금 마을과 가게가 있고 늙은 버드나무와 어린 느릅나무 사이로 소외양간과 돼지우리가 종종 있었다. 일소대(一所臺)를 지나며 바라보니 키가 1000척이나 되는 산신령처럼 우뚝하게 서 있는데 안개와 나무 사이에 가운데에 은은하게 비쳤다. 노비들에게 물으니 답하여 말하길 "이것은 심양성(瀋陽城) 동쪽에 있는 백탑입니다." 하였다. 혼하(渾河)에 이르렀다. 혼하는 서남쪽으로는 태자하(太子河)로 들어가고 북쪽으로는 요수(遼水)로 들어가며 또 북쪽으로는 심양으로 들어간다. 해가 서쪽으로 저물기 전에 심양에 닿았다. 심양은 옛 봉천부(奉天府)이다. 그 기록을 살펴보니 "백두산은 일명 불함산(不咸山)이다. 산 위에는 탑문호(塔門湖)라고 부르는 큰 못이 있다. 하루는 선녀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이 못가에서 노니는데 홀연히 신령스런 까치가 대추나 밤 같이 생긴 물건을 머금고 와서 어린 선녀의 품속에 떨어뜨리고 갔다. 선녀가 그것을 삼키고 잉태한 후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매우 신기하고 우람한 아이였다. 태어나서 5 - 6세가 되자 그 어머니는 홀연히 하늘로 올라갔다.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어 작은 뗏목을 타고 탑문호로부터 흑룡강 북쪽에 이르렀다. 이 당시 네 부락이 해마다 서로 싸웠는데 한 부락에서 이 아이를 얻고 신으로 여겼다. 그 후 추장(酋長)으로 삼아 나머지 세 부락을 모두 삼키고 드디어 만주를 차지하니 만주는 곧 옛 영고탑(靈古塔)이다. 그 후세에 건주(建州)를 얻고 또 심양을 얻어 건주를 '흥경(興京)'이라고 하고 심양을 '성경(盛京)'이라고 하였으니 건주에서 흥하고 심양에서 성대해졌음을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일행이 성에 들어가자 구경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위용있고 정연하게 들어갔다.

闕門之東門曰文德坊, 南門曰武功坊, 皆傍以清諺列書. 文德坊門左, 立諸王以下皆下馬碑. 門南有太學, 太學正殿, 六稜兩層閣, 左右有廊. 門前以紅柵木作圍闕與學, 皆黃碧之瓦, 觚稜之畫, 令人奪目, 瓦上⁴埴⁴鏤龍鳳禽獸之狀, 森然有飛動之勢, 排布制作, 不可名狀. 闕門之外有碑石, 手摩之, 字剝缺不能讀, 惟南無二字, 僅可辨識,

似是古佛寺之墟也. 闕門之北, 有樑木三箇, 長幾數百尺, 環幾三四圍, 作廊而留置, 此是盛京造闕時, 欲爲大樑者, 而雖千萬人不能轉運, 傷者甚多, 以謂神接, 仍封木王云矣.

궐문의 동쪽 문을 문덕방(文德坊)이라 하고 남쪽 문을 무공방(武功坊)이라고 하는데 두 문 옆에는 모두 청나라 언문이 줄줄이 써 있다. 문덕방의 문 왼쪽에는 '왕 이하는 모두 말에서 내리시오.' 라고 쓴 비석이 세워져 있다. 문 남쪽에는 태학(太學)이 있으며 태학의 정전(正殿)은 육각형의 2층 누각으로 되어있고 좌우에는 회랑이 있다. 문 앞쪽은 붉은 책목(柵木, 울타리)으로 궐과 태학 주위를 둘렀고 모두 **황벽 기와**⁵를 썼으며 추녀(觚稜)의 그림은 사람의 시선을 빼앗았다. 기와 위에는 용·봉황·새·짐승의 형상을 정교하게 새겨 두었는데 위엄 있게 날아오를 듯한 기세로 제작하여 배치해 둔 그 광경을 무어라 이름할 수 없었다. 궐문 밖의 비석은 사람들의 손에 마모되어 글자가 깎이고 파손되어 읽을 수가 없었다. 오직 '나무(南無, 귀의한다는 뜻의 불교용어)' 두 글자만 겨우 식별할 수 있었으니 이곳은 옛 불사의 터였던 것 같다. 궐문의 북쪽에는 길이가 거의 수백 척(尺)이나 되고 둘레가 거의 3 - 4위(圍)나 되는 큰 대들보 나무가 세 개 있었다. 회랑을 만들면서 가져다 둔 것으로 이것은 성경(盛京)에 궐을 지을 때 큰 대들보로 쓰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으로도 옮길 수가 없고 이 때문에 다친 사람이 매우 많았으므로 귀신이 붙은 것이라고 하여 그 후 목왕(木王)에 봉하였다고 한다.

有十一衙門, 將軍、副都督、府尹、兵部、禮部、戶部、刑部、工部、兩知縣、驍騎尉之所居也. 人物雄俊, 市廛豐溢, 門窓壁樑, 皆以五彩塗金玲瓏璀璨, 各廛之前, 皆立牌木, 刻書以金字, 曰本舖某門內某牌樓某坐某向, 自置某物發行, 不悞主顧. (緞廛曰洋綢綢緞等, 果廛曰奇珍乾鮮果品等, 藥廛曰雲南生熟藥材丸丹等, 畫廛曰古今名畫書帖, 筆墨廛曰湖筆徽墨等. 其餘 子、靴子、刀子、畫像等, 各以形像刻於木板掛之. 又掛童叟無期, 言無二價, 換錢家簷下, 以錫作貫緡樣, 塗金列掛, 酒家

簷下, 鐵壺掛之, 又懸旗書曰聞香須下車. 麪家以紅紙書付賽霜期雪, 典當肆, 龍鳳頭紅柱掛, 以金填當字, 小註曰時急銀錢, 軍器不當. 此其大槩, 不能盡記, 至皇城皆然),

그리고 십일아문(十一衙門)이 있었는데 장군(將軍)·부도독(副都督)·부윤(府尹)·병부(兵部)·예부(禮部)·호부(戶部)·형부(刑部)·공부(工部)·두지현(知縣)·효기위(驍騎尉)가 지내는 곳이다. 인물은 웅걸하고 시장은 풍요로워 문·창·벽·들보는 모두 오색으로 채색하고 금을 발라 영롱하고 찬란하였다. 각 가게의 앞에는 모두 판목을 세워 금색 글자로 '본 점포는 ○○문 안에 ○○판루 ○○좌 ○○향'이라고 새겨 넣었고 직접 '○○ 판매 개시'이나 '고객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써 두기도 하였다.〔비단 가게에는 '양추(洋綢)·주단(綢緞)', 과일 가게에는 '기이하고 진귀한 건과(乾果)·선과(鮮果)품' 등이 쓰여 있고, 약재상에는 '운남(雲南)산 생숙(生熟) 약재·환(丸)·단(丹)' 등, 화방에는 '고금의 명화(名畵)와 서첩'이나 필묵가게에는 '호필(湖筆)·휘묵(徽墨)' 등이 써 있다. 그 외 가위·신발·칼·화상(畵像) 등은 각각 형상을 목판에 새겨 걸어두었다. 또 '아이나 노인이나 구분 없다.'를 걸어놓는데 값을 깎아주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돈을 환전하는 곳 처마 아래에는 주석으로 동전 꾸러미 모형을 만들고 금색으로 칠하여 줄지어 걸어놨다. 술집 처마 아래에는 납으로 만든 술단지들을 걸어 두고 또 깃발에 '술 향기가 나면 모름지기 수레에서 내리시오'라고 써서 매달아 두었다. 국수집에서는 붉은 종이에 '서릿발처럼 가늘고 눈처럼 희다.'라고 써 붙였다. 전당포는 용이나 봉황의 머리를 붉은 기둥에 걸어 금빛으로 '당(當)'자를 칠하여 두고 작은 글씨로 '시급하면 은전(銀錢)으로, 군 무기는 전당하지 않음'이라고 주를 달았다. 이곳은 대개 이러하니 다 기록할 수는 없다. 황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夜深錚鼓相聞, 而城中無禁街之法, 馬蹄車轍, 終夜有聲. 且賣錫者擊錚, 賣油者擊木, 洗鋤(削髮者)者鳴錫, 造破者鳴鉄. 凡饒者麪者, 長木係兩木桶, 各呼其貨(至皇城皆然), 撩亂窓外, 還覺紛聒矣.

깊은 밤에 북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지만 성안에서는 밤중에 거리를 다니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으므로 말발굽소리와 수레소리가 밤새도록 들린다. 또 옛 장수가 쇠를 울리고 기름장수가 나무를 치고, 세유(洗鑪)(머리 깎는 사람)가 주석을 울리고, 조각(造破)하는 사람이 무쇠를 울린다. 떡장수나 국수장수가 긴 나무에 두개의 나무통을 매달고 다니면서 무엇을 파는지 부르고 다녀(황성 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창박이 요란하였으므로 이곳이 어지럽고 떠들썩한 곳인 줄 다시금 깨달았다.

有朝鮮館, 丁丑秋我人所留之處也, 而今爲村家無可觀. 瀋陽之風, 慢侮我人, 方物中一件, 一上判事呈納于瀋陽禮部, 追後來到矣.

조선관(朝鮮館)은 정축년 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지만 지금은 촌가가 되어 볼만한 것이 없다. 심양의 풍속에 우리나라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방물(方物) 중 1개를 일상판사(一上判事)가 심양(瀋陽) 예부(禮部)에 공납했는데 추후에 되돌아 왔다.

1. 들은 넓고 하늘은 나무에 아래에 드리웠네(野廣天低樹) : 맹호연(孟浩然)의 시를 말하는 듯하다. "移舟泊煙渚, 日暮客愁新, 野曠天低樹, 江清月近人" ※〈宿建德江〉↩

2. 조경유(趙敬有) : 경유(景濂)는 조수삼의 초명으로 趙敬有는 趙景濂의 오기이다. ※《한국문집총간·추재집해제》참조 ↩

3. 野如流水漫漫去, 村似孤舟泛泛來 : 조경유는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으로 이 글귀는 그가 연경에 사행을 가서 쓴 〈燕行雜詩〉 시구의 한 구절이다. ※《한국문집총간·추재집해제》참조 ↩

4. 埤 : *巧 ※김정중 《연행록》↩

5. 황벽 기와 : 누런 기와와 옥빛 기와를 이어 만든 기와 ↩



十七日 17일

十七日. 平明發行, 從西門出, 五里許有黃碧大屋, 卽清太祖願堂寺也. 歷二牌樓入寺, 寺不甚宏敞, 而左右對植雙松, 階前有碑, 崇德戊寅立. 正殿上以金書海月常輝, 中龕坐三大佛, 其左右有十佛, 佛之上, 又設諸天小佛, 金色炫焜, 卓上供具, 皆極奇巧. 守門之卒, 半是蒙人, 衣黃削頭者也. 至塔橋, 其邊有白塔也. 歷永安橋, 橋兩邊, 鏤石爲爛干, 而築路始此.

17일. 새벽에 출발하여 서문을 나가니 5리쯤에 **황벽 기와**¹로 된 큰 집이 있었는데 곧 청태조(淸太祖)의 원당사(願堂寺)였다. 2개의 패루(牌樓)를 지나 절에 들어가니 절은 그리 크거나 넓지 않았고 좌우에는 나란히 소나무 한 쌍을 심어 놓았다. 계단 앞에는 송덕(崇德) 무인년(1683)에 세운 비석이 있었다. 정전(正殿) 위에는 금색으로 '해월상휘(海月常輝)'라고 쓰여 있었다. 가운데 감실에는 3개의 큰 불상이 앉아 있고 그 좌우로는 10개의 불상이 있다. 불상 위에는 제천소불(諸天小佛)을 놓아두었으며 금빛이 밝게 빛났다. 탁상 위에 놓인 제기는 모두 지극히 신기하고 정교하였다. 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절반은 몽고인이었으며 황색 옷에 머리는 삭발하였다. 탑교(塔橋)에 이르니 그 옆에 백탑(白塔)이 있었다. 영안교(永安橋)를 지나는데 다리 양쪽 끝은 돌을 깎아 난간으로 삼았다. **축로(築路)**²의 설치는 이 다리가 시초이다.

1. 황벽 기와 : 누런 기와와 옥빛 기와를 이어 만든 기와 ←

2. 축로(築路) : 축로는 다리와 땅이 연결되는 부분에 땅 안쪽 깊숙한데까지 팔(八)자 형태로 길을 높여 만들고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 물이 다리를 넘쳐흐르는 것을 막은 것이다. 대개 송덕(崇德) 6년(1641, 인조19)에 칙건(勅建)한 것으로 이 영안교가 축로의 시초이다. 요양 서쪽은 지세가 낮아서 우묵하게 파여 늘 진필(沮洳)을 염려했기 때문에 천총(天聰, 1627 - 1636) 때 영안교에서 시

작하여 신점(新店, 호가와봉)을 끝으로 200여 리에 걸쳐 설치하였다고 한다.

※《薊山紀程 第2卷、渡灣、永安橋》,《隨槎錄 卷2、遊賞隨筆上、永安橋》내

용 참조 [↩](#)



十八日 18일

十八日. 孤家子中火. 至巨流河, 一名周流河, 河水出胡地, 入渾河及太子河, 又北流入海, 三水會處, 謂三分關, 亦名三叉河. 二里許渡一小水, 卽周流河之支派. 西岸有小邱, 邱上有城, 樹林交翳, 村落如畫. 其西皆蒙古地方, 相距不遠矣. 到新民屯(此地無賦稅云, 守其邊塞之意也), 人物市肆之繁華, 不異國都, 魚肉成林, 綿帛如山.

18일. 고가자(孤家子)에서 점심을 먹었다. 거류하(巨流河)에 이르렀는데 주류하(周流河)라고도 한다. 거류하의 물은 호지(胡地)에서 나와 혼하(渾河)와 태자하(太子河)로 들어간다. 또 북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는데 세 물이 만나는 곳을 삼분관(三分關) 또는 삼차하(三叉河)라고 한다. 2리쯤 가서 작은 물을 하나 건넜는데 곧 주류하의 지류다. 서쪽 기슭에는 작은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는 성이 있었으며 나무 수풀이 우거지고 마을은 그림 같았다. 그 서쪽은 모두 몽고지방으로 거리가 멀지 않았다. 신민둔(新民屯)(이 지역은 변방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부세(賦稅)가 없다고 한다.)에 이르니 인물과 시장의 변화함이 우리나라의 도읍과 다르지 않았다. 어육(魚肉)이 숲을 이루고 비단이 산과 같이 쌓여 있었다.

十九日 19일

十九日. 至柳河溝, 有橋, 左右以石爲欄干. 抵白旗堡, 遠望西北有一山, 峯嶺嵒岨, 爲北方之鎮, 其名醫巫閭山. 自崑崙落脉, 連延橫亘, 經遼蘇¹千里之野, 爲此山, 一支東走, 爲我東之白頭山, 盖崑崙白頭, 爲東西祖宗, 而以輿地全幅論之, 則此山屬於東北之間, 故爾雅曰, 東方之美者, 醫巫閭之山, 有珣玕琪焉.

19일. 유하구(柳河溝)에 이르렀다. 다리가 있었는데 좌우에 돌로 난간을 세워 놓았다. 백기보(白旗堡)에 이르러 멀리 서북쪽에 산 하나가 바라다 보였는데 높고 험준하여 북방의 진지로 삼을 만했다. 그 이름이 의무려산(醫巫閭山)이다. 곤륜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산맥이 연속으로 이어지다 횡으로 뻗어서 요주(遼州)와 계주(薊州)의 천리가 되는 들판을 지나 이 의무려산이 되고, 한 줄기는 동쪽으로 달려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되었다. 대개는 곤륜산과 백두산을 동쪽과 서쪽의 조(祖)、종(宗)으로 삼는데 대지(大地) 전체로 보고 논하자면 의무려산은 북동쪽에 속해 있다. 그런 까닭으로 《이아(爾雅)》에서 "동방이 아름다운 것은 의무려산에 아름다운 옥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고 한 것이다.

1. 蘇 : *薊 ↩

二十日 20일

二十日. 晩後, 野風吹沙, 塵埃透入衣袖中. 至烟臺, 烟臺始此, 以甃石築之如城, 高圍甚大. 烟臺處每有軍營, 長垣粉壁, 畫以軍卒相戰樣. 自此粗有邱陵. 抵小黑山宿所. 盜賊何處無之, 此地則自古有甚, 山之名以黑而然歟, 人之心亦隨而黑, 可謂名不虛得者也.

20일. 늦은 저녁 들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가 옷소매로 파고들었다. 연대에 이르렀다. 연대(烟臺)는 여기부터 시작하여 성처럼 벽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높이와 둘레가 거대하다. 연대가 세워진 곳에는 언제나 군의 진영이 있었으므로 긴 담장에 군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여기서부터 드문드문 구릉이 있었다. 소흑산(小黑山)에 닿아 하룻밤 묵었다. 도적이 어느 곳인들 없겠는가마는 이 지역은 옛날부터 심했으니 산의 이름에 흑(黑)자가 있어 그런 것일까? 사람의 마음 또한 따라서 검게 되었으니, 이름은 허투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驢子多產於此土, 或有騎而橫馳者, 或有牽而往來者, 卽要賣於我人之意也. 店街有砂果葡萄雪梨, 宛如新物, 問善藏之法, 掘坎尺餘, 多積藁艸, 以休紙封裹全身, 不使点風漏罅, 則至冬如是云. 果品之佳, 歷路至燕, 皆然.

이 지역에서는 나귀가 많이 생산된다. 나귀를 탄채 가로질러 달리는 사람도 있고 나귀를 끌고 왕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나귀를 팔려는 의도가 있는 자들이다. 상점가에는 사과, 포도, 배 등이 완연히 갓 딴 과일처럼 보였다. 잘 보관하는 방법을 물어 보니 구덩이를 1척 정도 파서 지푸라기나 풀을 많이 쌓아놓고 종이로 전체를 봉하여서 바람에 맞아 갈라진 데가 없도록 하는데 겨울이 될 때까지 이와 같이 하면 된다고 하였다. 과일의 품질은 좋았으며 가는 내내 연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二十一日 21일

二十一日. 自羊腸河至廣寧店, 宿所.

21일. 양장하(羊腸河)로부터 광녕점(廣寧店)에 이르러 하룻밤 묵었다.



二十二日 22일

二十二日. 自興隆店至二子三子臺, 如夢中經過. 至閭陽驛, 自此有無梁屋, 而皆土覆塗灰也. 歷二三四五臺子, 抵石山站, 此十三山也, 此山或云閭山餘麓, 歷數其峰, 不止十三, 而峰勢尖妙, 如畫屏之森列矣. 歷來七百里曠野, 而無一点邱垤矣, 此山獨近在眼前, 奇哉異哉.

22일. 흥륭점(興隆店)으로부터 이자대(二子臺)、삼자대(三子臺)에 이르기까지 꿈속에서 지나는 듯했다. 여양역(閭陽驛)에 이르렀다. 여기부터는 들보가 없는 집이 있으며 모두 흙으로 덮고 회(灰)를 발랐다. 이, 삼, 사, 오대자를 지나 석산참(石山站)에 닿았다. 이곳은 십삼산(十三山)인데 혹자는 여산(閭山)의 한 자락이라고도 한다. 지나면서 그 봉우리를 세어보니 13개가 넘으며 봉우리의 형세가 뾰족하고 묘하여 그림 병풍이 뽁뽁히 늘어선 듯하다. 700리가 되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한 점 언덕도 없었는데 이 산만은 유독 가까이 눈앞에 있는 듯하니 신기하고 기이했다.

二十三日 23일

二十三日. 至大陵河, 一行同爲行船之際, 忽風勢甚猛, 上房與軍官卞教授崑先渡, 宿所于大陵河堡, 副三房及醫員金僉正相義與余, 風波益急, 舟行東北之下, 而不能渡. 若此不已, 則入于海中云, 故止于岸邊下船, 還入于大陵河店, 買飯止宿.

23일. 대릉하(大陵河)에 이르러 일행이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때에 갑자기 바람의 형세가 매우 사나워졌다. 상방(上房)과 군관(軍官), 교수 변곤(卞崑)이 먼저 건너가 대릉하보(大陵河堡)에서 하룻밤 묵었다. 부삼방 및 의원 첨정 김상희(金相羲)와 나는 풍파가 더욱 심해져 배를 동북쪽 하류 물았으나 건널 수 없었다. 만약 건너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므로 강가에 배를 멈추고 배에서 내려 대릉하점으로 돌아와 밥을 사먹고 머물러 잤다.

二十四日 24일

二十四日. 平明又乘船渡之, 大風大雨大雷大電並作, 艱辛渡河, 而余則人馬預爲先去, 副三房及追從, 亦爲先去矣. 當此晦暝之際, 余獨左扶笠子, 右把油衫, 側身抗風而行, 雷聲電火風雨之聲, 精神昏迷, 呼吸幾塞, 步到大陵河堡艱辛. 抵店衣裳盡沾, 以火燎衣, 仍復發行. 至四同碑, 先來軍官例書過去日子于此碑云. 抵雙陽店宿所, 是日只行二十里. 明末大陵河之戰, 我人死亡者, 甚多, 而至今我人每到此處, 則日氣不晴云.

24일. 새벽녘에 다시 배에 올라 건너려는데 바람이 크게 불고 비가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크게 한꺼번에 몰아쳐 간신히 강을 건넜다. 나는 미리 일행과 말을 먼저 보내고 부삼방(副三房)과 종들 역시 먼저 가도록 했다. 날이 어둑해졌을 즈음 나는 홀로 왼손으로는 샅갓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비옷을 잡고 몸을 비스듬히 한 채 바람을 헤치며 갔는데 우레소리와 번갯불, 비바람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걸어서 대릉하보까지 간신히 도달했다. 상점에 닿았을 때에는 옷이 다 젖어서 불에 옷을 말린 후 다시 출발하였다. 사동비(四同碑)에 이르렀다. **선래군관(先來軍官)**¹이 으레 지나는 날짜를 이 비석에 쓴다고 한다. 쌍양점(雙陽店)에 이르러 하룻밤 묵었다. 이 날은 20리만 갔다. 명나라 말엽 대릉하(大陵河)의 전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이곳에 이를 때마다 날씨가 맑지 않다고 한다.

¹. 선래군관(先來軍官) : 사신단이 임무를 마치면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사신보다 앞서서 돌아오는 군관을 말한다. ↩



二十五日 25일

二十五日. 歷小陵河堡, 卽錦州之界也, 至官馬山. 辛巳年, 我國世子及大君, 自瀋陽至此, 是時祖大壽柳琳, 猶復力戰, 砲丸落於幕次, 清人卽移坐處云. 過杏山堡, 此是古戰場也, 居人指祖將軍洪承疇戰敗之所也. 抵高橋堡, 有舊城址. 在村北二里許.

25일. 금주(錦州)의 경계인 소릉하보(小陵河堡)를 지나 관마산(官馬山)에 이르렀다. 신사년(1641년)에 우리나라 세자와 대군이 심양(瀋陽)으로부터 이곳에 이르렀다. 이 때는 명나라의 조대수(祖大壽)와 우리나라의 유림(柳琳)¹이 아직 힘써 싸우고 있었으므로 세자의 막차에도 포환이 떨어졌는데 청인들이 곧 자리를 옮긴 곳이 이 관마산이라고 한다. 행산보(杏山堡)를 지났다. 이곳은 옛 전쟁터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군 조대락(祖大樂)과 홍승주(洪承疇)가 패한 곳²이라고 지목하였다. 고교보(高橋堡)에 닿으니 옛 성터가 있었는데 마을 북쪽으로 2리쯤 떨어져 있었다.

¹. 유림(柳琳) : 청(淸) 나라는 명(明)과의 전투에서 우리나라에 병마(兵馬) 5000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의 지원군으로 유림(柳琳)을 보냈다. 청나라에서는 이들을 데리고 금주와 순주(順州)를 침범했다. 그러나 유림은 명(明)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군중에 있으면서 병이 심하다고 핑계대고 군게 누워 군중의 일은 부장에게 맡기는 한편 비밀리 군중에 명령하여 탄환을 빼고 총을 쏘게 하였다. 청나라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조금 뒤에 일이 발각되자 하졸 한 사람을 죽였을 뿐 또한 유림은 책망하지 않았다. ※《연려실기술·仁祖朝故事本末·淸人徵兵》 내용 참조 ↩

². 장군 조대락(祖大樂)과 홍승주(洪承疇)가 패한 곳 : 조대락(祖大樂)이 총병(摠兵)으로 성을 지켜 2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임오년(1642, 인조 20) 2월, 총병 왕정신(王廷臣)의 내응으로 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성안의 사람들은 다 도

록되었는데 오직 친절한 장관(將官) 13인만이 죽지 않았다. 조대락과 군문(軍門) 홍승주(洪承疇)는 다 잡혔는데 조대락은 곧 항복하였고 홍승주는 처음에는 굽히지 않다가 심양에 이르러서 역시 항복했다고 한다. ※저자 미상. 차주환 역. 《계산기정·송산보》. 한국고전종합DB [↩](#)



二十六日 26일

二十六日. 至塔山, 所去海僅五里餘, 觀日出之地也. 此海中國之所謂東海, 而吾東之西海也. 今到此觀日出, 天理之難測, 類皆如此. 故山居者謂之出於山, 海居者謂之出於海, 野居者謂之出於野, 惟隨人目而異其境者, 非日也耶. 至朱砂河, 河之流在西北, 而中心有朱砂色矣. 午抵連山驛, 自塔山至此, 亦開野平曠, 卽皇子農庄也. 市肆之繁庶, 閭閻之櫛比, 比高橋堡有加焉. 至長春橋, 橋西有佛寺. 又至永寧寺, 望見諸山中特立者, 卽紅羅山, 元順帝走死處也.

26일. 탑산(塔山)에 이르렀다. 바다와의 거리가 겨우 5리쯤으로 일출을 관망하는 지역이다. 이 바다는 중국에서 동해라고 일컫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서해이다. 지금 이곳에 이르러 일출을 보노라니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이 모두 이와 같다. 그러므로 산에 사는 사람은 산에서 해가 뜬다고 하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해가 뜬다고 하고, 들에 사는 사람은 들에서 해가 뜬다고 하니 오직 사람의 눈에 따라 그 광경이 달라지는 것이지 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사하(朱砂河)에 이르렀다. 주사하는 서북으로 흐르며 물의 중심에 주사(朱砂)처럼 붉은 빛이 난다. 오후에 연산역(連山驛)에 닿았다. 탑산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역시 들이 펼쳐져 평평하고 광활하였으니 이곳은 바로 황태자의 농지이다. 시장의 번성함과 여염집의 즐비함이 고교보(高橋堡)보다 더하였다. 장춘교(長春橋)에 이르니 다리 서쪽에는 절이 있었다. 또 영녕사(永寧寺)에 이르러 멀리 여러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 중 유독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곧 홍라산(紅羅山)으로 원(元) 순제(順帝)가 달아나다 사망한 곳이다.

日曛抵寧遠衛入城. 城之內門曰寧安, 外門曰開安. 歷十字街三層樓, 過百餘步, 有祖大樂牌樓, 立¹石柱, 爲三間門, 門傍左右內外, 立獅子石, 高幾數十丈, 左右差池, 而棟梁楣桷, 皆以石爲之, 不假一木, 鏤刻之狀, 備極奇詭, 仰而瞻望, 插入雲霄, 令人神昏眼眩矣. 上層書玉音, 中層書元勳初錫, 外書登²臺駿烈. 又有祖大壽牌樓,

上層書玉音, 中層書四世元戎少傅, 外書郭³清之烈. 柱之表裡, 皆刻長句, 皆石刻也. 制度之宏麗, 雕刻之奇巧, 未知孰勝, 而其高則稍下於大樂之樓. 城之東有嘔血臺, 漢將表⁴崇煥, 以紅夷砲擊碎建虜⁵, 一陣騎步數萬, 一時震死, 老酋長與十餘騎, 夜遁逃至此山, 嘔血而死. 故因名其山云.

저물녘에 영원위(寧遠衛)에 닿아 성으로 들어갔다. 성의 안쪽 문을 '영안(寧安)'이라고 하고 바깥쪽 문을 '개안(開安)'이라고 한다. 십자 거리 삼층 누각을 지나 백여 보를 가면 조대락(祖大樂)의 패루(牌樓)가 있다. 누각에는 2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고 3칸 문으로 지었으며 문 좌우에는 안팎으로 사자석이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거의 수십 장이나 되며 좌우는 차이가 있었다. 대들보·들보·추녀·서까래는 모두 돌로 만들었으며 1개의 나무도 허용하지 않았다. 새기고 깎은 형상이 지극히 기이함을 갖추고 있어 우러러 바라보면 구름에 꽂혀 있는 듯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아찔하게 한다. 상층에는 '옥음(玉音)'이라고 쓰고 중층에는 '원훈초석(元勳初錫)'이라고 썼으며 밖에는 '등단준열(登壇駿烈)'이라고 적었다. 또 조대수의 패루(牌樓)는 상층에는 '옥음(玉音)'이라고 쓰고 중층에는 '사세원융소부(四世元戎少傅)'이라고 썼으며 밖에는 '곽청지열(廓淸之烈)'이라고 적었다. 기둥의 안팎에는 모두 시구를 새겼으며 모두 돌에 새긴 것이었다. 규모의 크고 화려함, 조각의 기이하고 공교함에 대해서는 무엇이 나은지 알지 못하겠으나 그 높이는 조대락의 패루보다는 조금 낮다. 성의 동쪽에는 구혈대(嘔血臺)가 있다. 한나라 장수 원숭환(袁崇煥)이 홍이포(紅夷砲)⁶로 건로(建虜, 건주(建州)의 오랑캐)를 격퇴하였으니 한 진영의 기병과 보병 수만 명이 일시에 죽고 청태종(老酋)⁷과 십여 명의 기병은 밤에 달아나다가 이 산에 이르러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로 인하여 구혈산이라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1. 二 : 四 ※김정중 《연행록》↩

2. 臺 : *壇 ※문맥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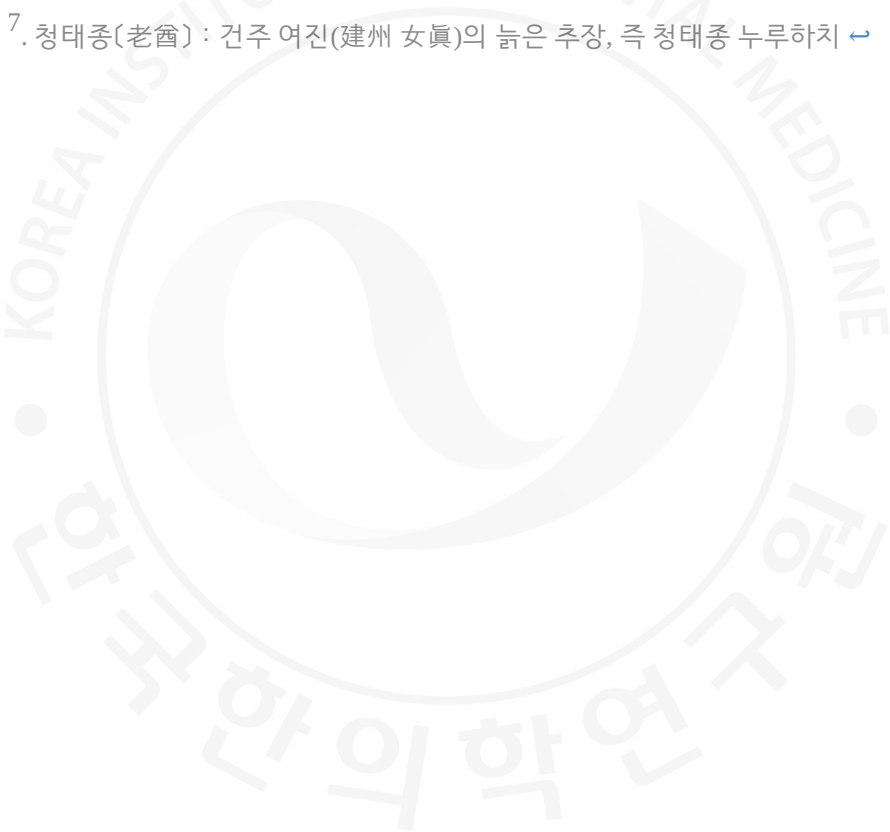
3. 郭 : *廓 ※문맥상 [↩](#)

4. 表 : *袁 [↩](#)

5. 膚 : *虜 [↩](#)

6. 홍이포(紅夷砲) : 명 신종(明神宗) 이후로 화란(和蘭,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대포를 말한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것으로 길이 2장 남짓하고 무게 3000근이었다. 《明史 兵志》 홍이는 화란 사람이란 뜻이다. ※한국고전종합DB 주석 [↩](#)

7. 청태종(老酋) : 건주 여진(建州 女眞)의 늙은 추장, 즉 청태종 누루하치 [↩](#)



二十七日 27일

二十七日. 自青墩臺至東關驛. 城左百餘步有古廟, 西有一山, 卽山海關後龍也. 抵中後所, 城池之壯, 市肆之盛, 令人可悅. 城中有知州知縣. 路傍紅唐菁, 大如西瓜. 我東亦有此種, 而色不及大不及矣.

27일. 청墩대(靑墩臺)로부터 동관역(東關驛)에 이르렀다. 성 왼쪽으로 백여 보를 가면 옛 사당이 있고 서쪽으로 산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산해관 뒤쪽으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이다. 중후소(中後所)에 닿으니 성지(城池)의 웅장함과 시장의 번성함이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성 안에는 지주(知州)와 지현(知縣)이 있다. 길가에 홍당무가 있었는데 크기가 마치 수박만했다. 우리나라에도 홍당무가 있으나 빛깔도 크기도 이 홍당무에는 미치지 못한다.

二十八日 28일

二十八日. 自一臺子至沙河驛. 城中有關廟, 轉過雙墩臺, 往往有大明時墩臺, 或方或圓, 中開砲矢穴.

28일. 일대자(一臺子)로부터 사하역(沙河驛)에 이르렀다. 성 안에 관제묘가 있고 쌍돈대(雙墩臺)를 돌아 지나면 곳곳에 명(明)대의 돈대가 있는데 사각이나 원형으로 지었고 가운데에는 대포나 화살을 쏘는 구멍이 나있다.



二十九日 29일

二十九日. 自大石橋至八里堡. 平野之中, 南有突兀成高邱者, 卽姜女廟也. 行至廟前, 門額以勁節淒風, 入門見塑像, 南向而坐, 瞪目悄坐, 完若流涕之狀. 左有女子捧縞帶, 右有男子持雨傘, 其夫婿來時, 若冒雨則傘以迎之, 若衣弊則帶以贈之之意也. 龕戶兩邊, 以金字柱聯題, '千古無心誇節義, 一身有死爲綱常', 卽清皇帝詩句, 而皇三子所書也. 一板題芳流遼水, 西壁貼皇十一子, 七言絕句, '貞女祠前秋日黃, 貞女祠後衰艸荒, 高邱突兀平野闊, 遙望海水還薇茫'. 龕上大板揭貞女祠, 筆法超凡. 祠中立二碑, 一乾隆重修文也, 一萬曆王致中古詩也. 祠後西隅有四石, 其大石北面, 刻望夫石三字填紅, 太原白輝之書也. 一石上題振衣亭, 苔蝕僅辨字樣. 一石道光皇帝詩也. 乾隆高其義愛其貞, 或輦過瀋陽, 必於是祠, 觀瞻而惆悵焉. 故作行宮於祠, 傍宮中置一寶榻, 重門鎖雙金猊. 門外有磬磴, 凡九十九級. 宮之西偏有一寺, 寺中有觀世音三軀, 皆騎青獅白象, 其下龕坐二小佛, 蓮花榻坐二金面佛, 桌上銅爐木鐸石磬, 皆極其妙.

29일. 대석교(大石橋)로부터 팔리보(八里堡)에 이르렀다. 평야 중 남쪽에 높은 언덕을 이루어 우뚝 돌출된 곳이 있으니 곧 **강녀묘(姜女廟)**¹이다. 강녀묘 앞에 이르니 문에는 '굳은 절개는 처량한 바람 같다.(勁節淒風)'라고 편액되어 있다. 문에 들어서니 조각상이 남쪽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 눈을 크게 뜨고 고요히 앉은 모습이 흡사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이다. 왼쪽에는 여자가 호대(縞帶, 흰 비단으로 만든 허리띠)를 받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남자가 우산을 들고 있다. 그 지아비가 올 때 만일 비를 맞고 오면 우산으로 맞이하고, 만일 옷이 풀어져 있으면 허리띠를 건넨다는 의미이다. 감실(龕戶)의 문 양쪽 옆에는 주련에다 금자(金字)로 '천고에 무심히 절의를 자랑하며, 한 몸이 죽어서 모범이 되었네.(千古無心誇節義, 一身有死爲綱常)'라고 시문을 써두었으니 이는 청나라 건륭제의 시구로 셋째 왕자가 글씨를 쓴 것이다. 한 현판에는 '요수(遼水)가 향기롭게 흘러가네(芳流遼水).'라고 시가 쓰여 있고, 서쪽

벽에 열한 번째 왕자가 칠언절구의 시를 써서 붙여 놓았다. '정녀(貞女)의 사당 앞에는 가을빛이 누르고, 정녀의 사당 뒤에는 시든 풀이 황량하다. 높은 언덕 우뚝 솟고 평야는 광활하며 멀리 바닷물을 바라보니 도리어 아득하구나.(貞女祠前秋日黃, 貞女祠後衰艸荒, 高邱突兀平野闊, 遙望海水還微茫)' 감실 위에는 '정녀사(貞女祠)'라고 쓴 큰 현판을 걸어두었는데 필법이 범상치 않다. 사당 안에는 두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하나는 건륭 연간에 사당을 세웠다는 중수문(重修文)이고 다른 하나는 만력연간에 쓴 왕치중(王致中)의 고시(古詩)이다. 사당 뒤편 서쪽 모퉁이에는 4개의 돌이 있고 그 중 큰 돌이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망부석(望夫石) 세 글자를 새기고 붉은 색을 채웠는데 태원(太原) 백휘(白輝)가 쓴 것이다. 다른 돌 하나의 뒤에는 '진의정(振衣亭)'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끼가 끼고 부식되어 겨우 글자의 모양을 알아볼 정도였다. 또 한 개의 돌에는 도광제(道光帝)의 시가 적혀 있다. 건륭제는 강녀의 절의를 높이 사고 그 정절을 귀히 여겨 심양을 행차할 때면 반드시 이 사당에 들러 우러러보며 슬퍼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당에 행궁을 짓고 궁 옆에 보탑(寶榻) 하나를 놓고 중문에는 금사자 한 쌍을 묶어 둔 것이다. 문 밖에는 벽돌층계가 있으며 99계단이다. 궁의 서편에는 절이 하나 있고 절 안에는 관세음보살 세 좌(坐)가 있으며 모두 푸른 사자나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다. 그 아래 감실에는 두개의 작은 불상이 모셔져 연화탑(蓮花榻)에는 금빛 얼굴의 불상 두 좌가 모셔져 있다. 탁상 위의 동으로 된 화로, 목탁(木鐸), 석경(石磬)이 모두 지극히 묘하였다.

祠庭之南立二碑, 宋丞相文天祥, 過此題咏, 而字缺者多矣. 其夫以築城之卒, 入於長城之役, 經年未還, 姜氏携男一女一, 日登此石, 西望長城, 遂立死于此. 至今石間有履跡不泯, 奇哉. 以萬乘之君, 有時行幸, 親享其祠, 勵俗勸善之方, 至矣盡矣.

사당 뜰 남쪽에는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송(宋)의 승상 문천상(文天祥)이 여기를 지나면서 읊은 시가 적혀 있으나 글자가 많이 파손되어 있다. 강녀의 지아비는 성을 쌓는 노역으로 장성(長城)을 쌓는 일에 부역을 가서는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강녀는 1남 1녀를 데리고 날마다 이 돌에 올라 서

쪽의 장성을 바라보았다가 마침내 이 돌에 서서 죽었다. 지금도 돌에 발자국이 남아 있는데 사라지지 않은 것이 기이하다. 만승지국의 군주가 행차할 때 친히 그 사당에 흠향하니 풍속을 격려하고 착함을 권면하는 방법이 지극하고 극진 하도다.

飯後過五里許，登將臺，高十餘丈，順治築臺，望山海關之所也。圍城如烟臺而虹霓作門，內四面以虹霓開穴，如房屋狀者，二十有九，軍兵之頓舍處也，其築臺堅固，去今二百餘載，一甃無傷缺者，自古創業之君，勞心費力，類皆如此。下臺數里，向山海關而來，溟渤橫盪〔此黃河水也〕東南，角山堀起西北，眞天府金湯之地也。關在山海間，綰轂其口，故行人無憑照公文，則不許其出入，且關內之物有出，而關外之物不得入，此關外民要富之意也。入關歷甕城，至第二門，以大字外書祥藹²桑，內書天下第一關，明徐達築，李思扁額，筆法晉體也。凡八重門三夾城，城中有副都督戶部衙門，過此時，一行從人皆下馬，此是舊例也。噫，關防之險，甲於天下，毀堞而受敵者，固不可辭其責，而此亦天之所使，豈獨吳三桂之爲也。至今瀋陽行幸時，不由關門，由此毀堞之路，此慕其先祖之意也。

밥을 먹은 후 5리쯤 가서 높이가 10여장이나 되는 장대(將臺)에 올랐다. 순치(順治) 연간에 축성된 장대로 산해관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위성(圍城)은 연대(烟臺)처럼 지었으며 문은 홍예문으로 만들었다. 안쪽 4면에는 홍예문 모양으로 구멍이 나있으며 집 같은 방이 29개로 군졸들이 머무르며 쉬던 곳이다. 장대는 견고하게 축성되어 2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벽돌하나 손상되거나 깨진 곳이 없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운 군주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여 힘써 만든 것들은 모두 이와 같다. 장대에서 내려와 몇리쯤 가다가 산해관을 향해 오니 명해(溟海)가 동남쪽에 가로지르며 요동치고(이것은 황하의 물이다.) 각산(角山)이 서북쪽으로 우뚝 솟아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부여한 금성탕지(金城湯池)³ 땅이었다. 산해관은 산과 바다의 사이에 있으며 그 입구로 사방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문(公文)을 받아 증빙하지 않으면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관내의 물자를 내보낼 수는 있으나 관외의 물자는 들어올 수 없으니 이는 관외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려는 뜻이다. 관에 들어가 웅

성을 지나 제 2문에 이르렀다. 큰 글씨로 바깥쪽에는 '상애부상(祥藹搏桑)'이라고 써 있고 안쪽에는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고 쓰여 있다. 명나라의 서달(徐達)이 관문을 개축했을 때 이사(李思)가 쓴 편액이며 필법은 진체(晉體, 진나라 왕희지체)이다. 모두 8층의 문과 3개의 협성(夾城)으로 되어있고 성 안에는 부도독(副都督)과 호부(戶部)의 아문(衙門)이 있다. 이곳을 지날 때는 일행과 종인(從人)들은 모두 말에서 내리는 것이 이곳의 오랜 관례이다. 아, 산해관 요새는 험준함으로 천하 제일이었었는데 성첩(城堞)을 헐어 적의 공격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 책임을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니 어찌 오삼계(吳三桂)가 혼자 그렇게 한 것이랴.⁴ 지금도 심양을 행차할 때에는 관문(關門)으로 지나지 않고 성첩이 헐리며 생긴 이 길로 다니는 것은 그러한 선조를 추모하는 뜻이다.

黃金市廛，富庶人物，與盛京相上下，而男女之觀於道傍者，眉目皆清秀美麗，頗異於關外雜種也。出第三城至深河。此是古遼伯金應河死節之處也。兒時讀史記，至秦皇築萬里長城，西至臨洮，東至遼東之篇，以爲絕遠難見之地，今匹馬來見，男兒事固不可知也。行五里許，至紅花店。田間陌上，辛苦下上，往往有村人籬落，滿漢之女，聞勸馬聲，抱兒橫竹，一齊出觀，牆頭門下花卉成林。自古是村以女子之美艷，名於關中云。烟臺始此，至燕不絕。

황금이 화려한 시장과 인물의 풍부함은 성경(盛京)과 서로 상하를 견줄 만 하였다. 길가에서 구경하는 남녀들은 눈썹과 눈동자가 모두 맑고 미려하여 자못 관외의 잡종인들과 달랐다. 제 3성을 출발하여 심하(深河)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날 요동의 태수였던 김응하(金應河)가 절개를 지키다 죽은 곳이다. 어린 시절 사기(史記)를 읽을 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성하면서 서쪽으로는 임조(臨洮)까지 도달하고 동쪽으로 요동까지 쌓았다는 부분에서 너무 멀어 다 보기 어렵겠다고 여겼는데 지금 말 한 필을 타고 와서 보고 있으니 사내아이의 앞 일은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이다. 5리쯤 가서 홍화점(紅花店)에 이르러 밭과 두렁을 힘겹게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촌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이따금씩 있었는데 만주족과 한족 여자들이 말 모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업거나 횡죽(橫竹,

긴 담뱃대)을 피우며 일제히 나와 구경하였으며 담장 위와 문 밑이 사람 꽃으로 숲을 이루었다. 옛부터 이 마을 여인들은 아름답고 요염하기로 산해관 안에서도 유명하였다고 한다. 연대(烟臺)는 여기에서 비롯되어 연경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1. 강녀묘(姜女廟) : 강녀란 진(秦) 나라 범칠랑(范七郎)의 아내다. 남편 범칠랑이 장성(長城) 부역에서 죽었는데, 강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돌 위에서 지아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다. ※《연계기정》 [↪](#)

2. 搏 : *搏 ※문맥상 [↪](#)

3. 금성탕지(金城湯池) : 쇠로 만든 성곽과 펄펄 끓는 물로 채워진 해자(壕字)라는 뜻으로 견고한 요새를 뜻한다. ※한국고전종합DB 주석 [↪](#)

4. 아, 산해관 요새는 험준함으로 천하 제일이었었는데 성첩(城堞)을 헐어 적의 공격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 책임을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니 어찌 오삼계(吳三桂)가 혼자 그렇게 한 것이라. : 오삼계(1612 - 1678)는 중국 명말청초의 무장으로 요동(遼東) 출신이다. 만주족을 끌어들여 청나라를 세우는 데 협력했으나, 이후 청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본래 명나라의 장군으로 산해관이 있는 북동부 국경에서 여진족의 침입을 막고 있었는데, 이자성(李自成)이 이끄는 반란군의 공격으로 북경이 함락된 후 오삼계는 만주족에게 산해관을 열어주고 그들과 연합하여 이자성을 북경에서 몰아내었다. 전해 오는 말에, 오삼계가 처음 관문으로 청병을 끌어들이는 적에 속임수가 아닌가 의심한 청병이 성을 헐어서 길을 만들었다. 오삼계가 드디어 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헐어 버리니, 이윽고 청병이 관문으로 들어왔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이장우. 《연행일기》 제3권 · 임진년(1712) 12월 18일 기사 참조 [↪](#)



九月 9월



九月一日 9월 1일

九月一日. 自¹家嶺至大理營. 漢女頭插彩花, 滿牆環看, 頗有可觀.〔漢女避人, 清女不避人云〕. 歷望河店, 自此邱陵連亘, 路多升降. 轉向深河驛, 西有遠山透出, 名曰文筆峰. 其下有昌黎縣, 諺傳韓昌黎所居之土也, 未可信其必然也. 抵高臺嶺, 有壞城, 二虹門尚存. 出虹門至榆關, 世傳秦蒙恬種榆於關路, 號爲榆塞云. 古詩云, '鳴²金伐鼓下榆關, 旌旆逶迤碣石間.' 抵撫寧縣, 入城有二牌樓, 又有三神廟, 伏羲神農黃帝並享之所也. 廟傍有一高門, 扁金曰文魁. 一店門帖云, '鷄既鳴矣, 可以行則行, 日之夕矣, 可以止則止矣.' 自³閱路至此, 春榜皆鄙俚, 惟此一句, 取古人詩意也. 城門外臨大河, 又開大野, 東西二十餘里, 南北二里許. 其一面遠山一麓, 如萬馬奔騰, 而點點峯巒, 妍妙秀麗, 盡向城中, 如拱如揖. 雄關險阨之餘, 初見洞天福地, 步步回首如別美人而來. 西南有文筆峰, 昌黎縣在其下, 去此可三十里云.

9월 1일. 난가령(樂家嶺)으로부터 대리영(大理營)에 이르렀다. 한족 여자들이 머리에 채화(彩花, 비단에 채색을 하여 만든 꽃)를 꽂고 담장 가득히 둘러싸며 바라보았는데 가히 장관이었다.〔한족 여자는 사람을 피하고 만주족 여자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고 한다.〕망하점(望河店)을 지났다. 여기부터는 구릉이 연달아 뻗어 있고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았다. 심하역(深河驛)으로 방향을 돌리니 서쪽 먼 곳에 툇 튀어나온 산이 문필봉(文筆峰)이라고 한다. 그 아래에는 창려현(昌黎縣)이 있으며 속언에 전하기를 창려(昌黎) 한유(韓愈)가 살았던 땅이라고 하나 반드시 그런것인지는 믿을 수 없다. 고대령(高臺嶺)에 닿으니 무너진 성에 두 개의 홍예문이 아직 남아 있었다. 홍예문을 나와서 유관(榆關)에 이르렀다. 세간에 전하기를 진(秦) 나라의 몽염(蒙恬)이 산해관의 길가에 느릅나무를 심고 '유새(榆塞, 느릅나무 요새)'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 시에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유관(榆關)으로 내려가니, 깃발이 갈석산(碣石山)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구나.〔鳴金伐鼓下榆關, 旌旆逶迤碣石間〕'하였다. 무녕현(撫寧縣)에 닿았다. 성에 들어가니 패루가 2개 있고 또 복희·신농·황제를

함께 흠향하는 삼신묘(三神廟)가 있었다. 사당 옆에는 높은 문 하나가 있으며 금색으로 문괴(文魁)라고 편액되어 있었다. 한 가게의 문에는 '닭이 이미 울어야겠으면 가고, 날이 저물어 머물러야겠으면 머물러라'고 첩지가 적혀 있다. 산해관 길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붙어있는 춘방(春榜)이 모두 상스럽고 속되었지만 오직 이 한 구절은 옛 사람의 시에서 뜻을 취하였다. 성문 밖은 큰 강이 접하여 있고 또 큰 평야가 동서로 20여리, 남북으로 2리쯤 펼쳐져 있다. 한 쪽에는 먼 산의 산기슭 하나가 마치 1만 마리의 말이 분주하게 달리는 것 같았고 군데군데 솟은 봉우리는 아름답고 수려하며 모두 성안을 향하여 공읍(拱揖)하고 있는 듯하였다. 웅장한 요새와 험난한 곳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통천복지(洞天福地)**⁴ 같은 곳을 보았는데 마치 미인과 이별하는 것처럼 걸음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왔다. 서남쪽에는 문필봉(文筆峰)이 있고 창려현(昌黎縣)은 그 아래에 있으며 이곳과 거리가 30리는 된다고 하였다.

1. 鳶 : *鸞 ※같은 책. 〈燕行往還路程記〉 ↩

2. 鳴 : *拈 ※《唐詩三百首、卷二、七言樂府、燕歌行 并序》 ↩

3. 閱 : *關 ↩

4. 통천복지(洞天福地) : 도교용어로 신선과 도사들이 산다는 천하의 명승지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

二日 2일

二日. 自羊河至飲馬河. 自此山多松林, 人家種棗栗桃李之屬. 抵雙望堡, 有崩城石橋, 西望永平, 東望撫寧, 故有此名. 炊飯後, 路邊小屋有姬家云, 故入而玩之, 姬立於坑門, 形貌衣飾, 不足動人也. 抵永平府, 古右北平也. 入其城, 雉堞多圯, 第二門, 刻石面曰迎旭, 路左有一牌樓, 未知誰氏之作, 而上層書父子承恩, 想其人榮寵奕世有光矣. 城中有三衙門, 知府知縣同知也. 山南十里許, 有射虎石云. 又有題碑曰, 飛將軍射虎處云. 歷路尚爾泥濘, 村店壞敗, 一村之役, 方張問其故, 店人曰, 自閏四月至七月, 大水注下, 年事大無, 至南京亦然云.

2일. 양하(羊河)로부터 음마하(飲馬河)에 이르렀다. 여기부터는 산에 소나무 숲이 많고 마을에서는 대추·밤·복숭아·자두 같은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쌍망보(雙望堡)에 닿으니 무너진 성에 석교(石橋)가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영평(永平)이 바라보이고 동쪽으로는 무녕(撫寧)이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쌍망보로 지은 것이다. 밥을 지어 먹은 후 길가에 작은 집에 호녀(胡姬)의 집이 있다고 하기에 들어가서 구경하였다. 호녀가 쪽문에서 있었는데 생김새나 옷차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했다. 과거 우북평(右北平)이었던 영평부(永平府)에 닿았다. 성으로 들어가니 치첩(雉堞,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 제 2문에는 돌에 '영욱(迎旭)'이라고 새겨놓았고 길 왼쪽에는 1개의 패루가 있었다. 누가 지은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상층에 '부자가 은혜를 입었다.〔父子承恩〕'라고 쓰여 있었다. 생각건대 그 사람은 영화로이 충애를 입어 대대로 이름이 빛난 사람일 것이다. 성 안에는 세 개의 아문(衙門)이 있었으니 지부(知府)·지현(知縣)·동지(同知)이다. 산 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는 사호석(射虎石)이 있다고 한다. 또 시를 적어 놓은 비석에 '한(漢)의 비장군(飛將軍) 이광(李廣)이 호랑이를 활로 쏜 곳이다'¹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지나는 길은 여전히 진창길이고 마을과 가게들은 부서지고 무너져

있었다.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물으니 가게 주인이 "윤 4월부터 7월까지 큰 홍수가 쏟아져 내려 농사를 크게 망쳤는데 남경(南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1. 한(漢)의 비장군(飛將軍) 이광(李廣)이 호랑이를 활로 쏜 곳이다 : 비장군은 흉노(匈奴)들이 한나라 장수 이광(李廣)을 부른 칭호로, 《사기》 제109권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 "이광이 우북평(右北平)에 있자 흉노들이 이를 듣고는 '한나라의 비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몇 년 동안을 피하고 감히 우북평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다. 영평부(永平府)에서 동쪽으로 6, 7리쯤 되는 곳에 사호석(射虎石)이 있는데, 이광이 북평 태수(北平太守)로 있을 때에 사냥을 나가서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이 바위에 꽂혔다고 한다.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

三日 3일

三日. 渡靑龍河, 捨路, 迂回西北, 行十里許, 路左一山, 特立如高人偃蹇者, 首陽也. 自首陽西去數百步有城, 周遭環封, 而城上石面, 刻孤竹城三字, 其下¹篇曰賢人舊里. 第一門以金字書清節廟, 其牆面又書清風百代, 左右立二碑, 自正殿, 東西夾門之第三南門外, 左右有碑, 左以楷字曰到今稱聖, 右以草書曰忠臣孝子, 筆法甚闊. 西夾門上, 刻古今師範, 東夾門上, 刻天地綱常. 第二門, 書清風可挹. 庭中對立側柏老松, 階左右有五碑. 殿上書古之賢人, 左碑書'孔子曰, 伯夷叔齊不念舊惡, 怨是用希.', 右碑書'曾子曰, 伯夷叔齊, 居於河濟之間.', '孟子曰, 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立.'. 東壁有乾隆御製詩, 及和親王詩, 西壁又有乾隆御製及和親王詩. 中龕二塑像, 冕服執笏, 儼然端坐, 鬚眉秀偉雅潔, 遠望少無參差, 而近視則顴頰間, 似有異焉.

3일. 청룡하(靑龍河)를 건너 길을 버리고 서북으로 우회하여 10리쯤 갔다. 길 왼쪽에 산 하나가 고상한 선비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수양산(首陽山)이었다. 수양으로부터 서쪽으로 수백보 거리에는 성이 있으며 돌레를 흙으로 둥글게 쌓아올렸다. 성 위 돌벽에는 '고죽성(孤竹城)' 세 글자를 새겨 놓았고 그 아래는 '현인의 옛 마을(賢人舊里)'이라고 편액되어 있다. 제 1문에는 금자(金字)로 '청절묘(淸節廟)'라고 써두었고 또 그 담벼락에는 '청풍백대(淸風百代)'라고 써 있었고 좌우에 비석 2개가 세워져 있었다. 정전(正殿)으로부터 동서로 난 협문(夾門)의 제 3남문 밖에도 좌우로 비석이 있다. 왼쪽 비석에는 해서체(楷書體)로 '지금까지 성인으로 일컬어진다.(到今稱聖)'고 새겼고, 오른쪽에는 초서체(草書體)로 '충신효자(忠臣孝子)'라고 썼는데 필법이 매우 대범하다. 서쪽 협문 위에는 '고금사범(古今師範)'이라고 새기고 동쪽 협문에는 '천지강상(天地綱常)'이라고 새겼다. 제 2문에는 '청풍가읍(淸風可挹)'이라고 썼다. 뜰 가운데에는 측백나무와 늙은 소나무가 서로 마주하고 서 있고 계단 좌우에는 5개의 비석이 있다. 정전 위에는 '고지현인(古之賢人)'이라고 써 있고 좌측 비석에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와 숙제는 지난 악(惡)을 생각하지 않았

다. 그래서 이것을 원망하는 일도 드물었다.〔孔子曰, 伯夷叔齊不念舊惡, 怨是用希.〕고 썼고, 우측 비석에는 '증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이·숙제는 하수(河水)와 제수(濟水) 사이에 살았다.〔曾子曰, 伯夷叔齊, 居於河濟之間.〕'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백이의 풍도를 들으면 완악한 자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자가 뜻을 세운다.〔孟子曰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立.〕'라고 적혀 있다. 동쪽 벽에는 건륭제의 어제시(御製詩)와 화친왕(和親王)의 시가 있고 서쪽 벽에도 건륭제의 어제시와 화친왕의 시가 있다. 가운데 감실에는 두 개의 소상(塑像)이 면복(冕服)을 입고 홀(笏)을 잡은 채 위엄있고 단정하게 앉아있다. 수염과 눈썹은 준수하고 고결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두 형상이 조금도 차이가 없으나 가까이서 보면 광대뼈 부근이 조금 다른 듯 하다.

殿後有遜揖堂², 堂西有臺聳然特立, 名曰清風臺. 由石磴臨, 下有灤河, 橫割城根, 卽熱河下流也. 至臺西, 分爲二派, 中間爲小島, 島中有孤竹君廟. 自永平府至此, 皆孤竹國舊基也. 廟之北有行宮, 千門萬戶, 無非沈香絳眞香之屬亂雕, 作虹門於房內, 自室中緣紅梯上屋, 至西高樓, 奇巧寬豁, 不可名狀. 前墀有太湖石二假山. 歷四重門出, 軒檻廡宇多頽圯, 庭草荒蕪而塞路. 樓之東有竹亭, 皆以雕竹, 爲柱爲樑爲坐榻, 甚奇異也. 其下俯視, 卽灤河也. 至野鷄坨. 自此田野, 多種枝桑生梨棗栗, 行過數十里成林. 古所謂燕秦千樹栗者, 於今始見也. 枝桑逐年刈取, 去皮爲索綯之具, 摘葉爲飼蠶之需, 以枝爲筐筥之類. 又供朝夕之火, 利倍於他木. 市肆列置大小筐筥, 其制各有層疊, 內塗紅紙, 似巧似非, 合於文房之用, 一行人俱買數三, 價則三四十錢矣. 至沙河驛宿所, 有三皇廟焉.

정전(正殿) 뒤편에는 읍손당(揖遜堂)이 있고 그 서쪽에 우뚝하게 홀로 서 있는 누대가 청풍대(淸風臺)이다. 돌계단을 올라가면 아래쪽에 난하(灤河)가 성 아래를 가로질러 흐르는데 곧 열하(熱河)의 하류이다. 청풍대 서쪽에 이르면 물결이 두 줄기로 나뉘면서 그 가운데가 작은 섬이 되고 섬 가운데에는 고죽군(孤竹君)의 사당이 있다. 영평부(永平府)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죽국의 옛 영토이다. 사당의 북쪽의 행궁(行宮)은 수많은 문과 기둥에 모두 침향(沈香)이나 강진향(絳眞香) 같은 목재로 화려하게 조각해 놓았고 방 안에는 홍

예문을 만들었다. 건물 안쪽으로부터 붉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 서쪽의 높은 누각에 이르니 기이하고 정교하며 넓게 탁 트인 모습을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앞 뜰에는 태호석(太湖石)으로 만든 가산(假山)이 2개 있었다. 4층의 문을 지나서 나가니 마루와 난간과 별채(廡宇)가 많이 무너지고 빠졌으며 뜰 안의 풀도 거칠고 무성하게 자라 길을 막았다. 누각의 동쪽에는 죽정(竹亭)이 있었으며 모두 대나무를 조각하여 기둥이나 대들보나 평상으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기이하다. 그 아래로 굽어보면 난하(灤河)가 있다. 야계타(野鷄坨)에 이르렀다. 여기부터는 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뽕나무·배·대추·밤 등이 수십 리 길을 지나가는 동안 숲을 이루었다. 옛날에 '연(燕)나라와 진(秦)나라는 천 그루의 밤나무를 자랑한다.(燕秦千樹栗³)'고 하였는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본 것이다. 뽕나무 가지는 해마다 베어서 벗긴 껍질로는 새끼를 꼬는 재료로 삼고 잎은 뜯어서 누에를 치며 줄기로는 광주리 같은 것을 만든다. 또 아침저녁으로 불을 땔 수 있게 해주니 이로우이 다른 나무보다 배가 된다. 시장에는 크고 작은 광주리가 죽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모양도 각각 층첩이 있었으며 안에 홍지(紅紙)를 발랐다. 정교한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나 문방용으로 적합하므로 일행 중 한 명이 3개를 샀는데 값은 30 - 40전이였다. 사하역(沙河驛)에 이르러 하룻밤 묵었는데 삼황묘(三皇廟)가 있는 곳이다.

1. 篇 : *扁 ※문맥상 ←

2. 遜揖堂 : *揖遜堂 ※김정중 《연행록》 ←

3. 燕秦千樹栗 : 출전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 ←

四日 4일

四日. 至豐潤縣宿所. 城中有太學, 而因日晚, 但外以觀之. 金碧瓦甍, 殿宇宏麗, 不可勝狀. 一門書養儒所, 殿庭有古鼎云. 城東有文昌閣, 其右有文明閣, 製樣以四方, 作層樓, 雕窓彩檻, 俱極奇巧, 巋然特立. 樓之四面, 揭金字板, 而一板書天下文明. 文昌閣, 自閣中緣紅梯而上樓, 文昌帝君儼然端坐, 左右侍臣, 四位陪立, 容貌皆溫潤君子也. 文明閣, 亦自閣中緣紅梯而上樓, 文明帝君以明俊豪氣之像, 右手執一大筆, 若有揮畫之意也. 左右侍像, 亦皆有奮勇明轍之氣. 此縣素多文名之士, 人物皆清秀美麗, 豈非文昌星所照而然歟. 閭閻市肆, 亦皆繁華矣.

4일. 풍운현(豐潤縣)에 이르러 하룻밤 묵었다. 성 안에 태학(太學)이 있었으나 날이 저물어 밖에서만 보았다. 금빛과 옥빛으로 된 기와와 건물의 크고 미려함을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한쪽 문에는 '양유소(養儒所)'라고 써 있고 성의 뜰에는 오래된 솔이 있다고 한다. 성 동쪽에는 문창각(文昌閣)이 있고 그 우측에는 문명각(文明閣)이 있다. 사방으로 장식을 만들어 층루를 지었고 창을 조각하고 난간을 채색하여 모두 지극히 정교하였으며 우뚝하게 높이 서 있었다. 누각의 네 면에는 금자(金字)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중 하나에는 '천하문명(天下文明)'이라고 써 있었다. 문창각 누각 안쪽에서 붉은 계단으로 누각에 올라가면 문창제군(文昌帝君)이 엄숙히 단좌하고 있으며 좌우에 신하들은 사방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용모가 모두 온화하고 윤택한 군자였다. 문명각(文明閣) 또한 누각 안쪽에서 붉은 계단으로 누각에 올라가면 문명제군(文明帝君)의 소상이 밝고 준결한 기상으로 오른손에 큰 붓을 잡고 글씨를 쓸 듯하다. 좌우로 모시는 소상들 또한 용맹하고 명철한 기상이 있었다. 이 풍운현은 본래 문장으로 이름난 선비가 많고 인물이 모두 청렴하고 빼어나며 미려하였으니 어찌 문창성(文昌星)¹이 비추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여염집과 시장 또한 모두 번화하였다.

- ¹. 문창성(文昌星) : 문곡성(文曲星)이라고도 한다. 이 별은 문재(文才)를 주관한다 한다.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



五日 5일

五日.至高麗店,世傳我國人被虜,至此地仍居焉,號爲高麗鋪,其中有水田,北來後初見也.至閭家鋪,有行乞於道者,皆老嫗孩兒,兒年僅四五歲,而能學母屈膝叩頭,馬前懇求一錢,極可恠也〔歷路種種有之〕.抵龍池菴,菴北有寺,乾隆出獵時所憩處,故名之也.日晚抵玉田縣.縣西有無終山,本春秋時,無終氏之國,而今爲縣.漢羊雍伯,家貧事母孝,貯水漿,在無終山頂,行人過此,必以水待之,忽一日有老人,偃僕陟山,似有渴喉之狀,雍伯跪進一椀,其老人出二石子贈之曰,種此石于田,可得玉,得玉可娶賢婦.雍伯如其言,果得玉一雙.時城南有徐氏,將嫁女,媒人填門,徐氏謂媒人曰,若以玉一雙爲幣,當許之.雍伯聞其言,以玉行納幣之禮,竟娶徐氏女,賢而有美,連生三子皆顯,人謂神明感其誠孝云.今縣北有雍伯舊居地.且燕昭王墓,在無終山下云.入城,城門石上題迎旭,第二門書京山.望海有賣扇所,扇製以左右開閉,畫春者多矣.帖春詞曰,‘漢史中存食貨誌,周官半是理財書.’

5일. 고려점(高麗店)에 이르렀다. 세간에 전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이 지역에 이르러 여기서 살게 되었으며 고려포(高麗鋪)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안에서는 수전(水田)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온 이후로 처음 본 것이었다. 여가포(閭家鋪)에 이르렀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거나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는 겨우 4 - 5세 정도였으나 부모가 무릎을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배워서 말 앞에서 동전 한 잎을 달라고 애원하니 아주 괴이하다.〔지나는 길에 걸인들이 종종 있었다.〕 용지암(龍池菴)에 닿으니 북쪽에 절이 있었다. 용지암은 건륭제가 수렵을 나갈 때 들러서 쉬던 곳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날이 저물 무렵 옥전현(玉田縣)에 닿았다. 현 서쪽에 있는 무종산(無終山)은 본래 춘추시대에 무종국(無終國, 소공이 봉하여진 땅이다.)이었다가 지금은 무종현이 되었다. 한(漢)의 양옹백(羊雍伯)은 집이 가난하였지만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모셨다. 마실 물을 저장해두는 곳이 이 무종산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행인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면 반

드시 물을 떠놓고 기다렸다. 어느 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산에 올랐는데 목이 마른 듯한 모습이라 웅백이 무릎을 굽히고 물 한 사발을 건넸다. 그 노인은 2개의 돌맹이를 꺼내어 주며 말하기를 "이 돌을 밭에 심으면 옥을 얻을 수 있고 옥을 얻으면 어진 부인에게 장가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웅백이 그 말처럼 하니 과연 옥 1쌍을 얻었다. 당시 성 남쪽에 서씨가 있었는데 딸을 시집보내려 하자 중매쟁이들이 문앞에 몰려들었다. 서씨가 중매쟁이들에게 말하길 "만약 옥 한 쌍을 폐백으로 삼는다면 허락하겠다."고 하였다. 웅백이 그 말을 듣고 옥으로써 폐백의 예를 드리고 마침내 서씨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그녀는 서씨의 딸은 어질고 아름다웠으며 연달아 아들 셋을 낳았는데 모두 현달한 인물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말하길 신명께서 그 진실된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 무종현 북쪽에는 웅백이 예전에 살던 곳이 있다. 또 연(燕) 소왕(昭王)의 묘도 무종산 아래에 있다고 한다. 성에 들어서니 성문의 돌 위에 '영욱(迎旭)'이라고 써 있고 제 2문에는 '경산(京山)'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부채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부채를 좌우로 접었다 펼 수 있게 만들었고 봄풍경을 그려 넣은 것이 많았다. 부채에 쓰여진 춘사에 이르기를 '《한서(漢書)》에는 식화(食貨, 즉 경제)에 대해 기록한 것이 있고, 《서경》〈주관(周官)〉에는 재화를 다루는 글이 반이나 된다.'고 써 있었다.

六日 6일

六日. 自西八里堡, 至三家庄. 有北小路, 翠屏山在近地. 轉一隅望薊州城, 城下大野平遠, 四面環以雲海, 如烟如霧如畫如繡, 便一水墨畫境, 乃皇城八景中. 薊門烟樹者是也. 薊州, 卽燕代之間, 一都會昭王之舊都也. 過於城外, 而行路滾忙, 未及歷覽於城內. 只聞其寺之壯麗, 則城兩壁上, 刻關張像若守門將然, 入第二門, 扁曰西拱神京. 行數百步有獨樂寺, 卽一大寺也. 門內左右有二大王, 瞋目橫劍. 額曰觀音之閣. 板書太白二小字. 閣中有觀音塑像. 長六丈有餘, 故稱丈六金身, 自腰以上, 望之不見也. 從西邊梯, 可三十餘級, 折而北上, 又二十三四級, 級盡上, 第一層於此始. 當觀音之臆, 仰看, 其頭上戴九子小金佛, 皆極奇巧. 其後有八面閣, 坐塑像二軀, 又其後西室中有臥佛, 世皆稱太白醉臥云. 至邦均宿所, 市肆閭閻頗有可觀.

6일, 서팔리보(西八里堡)로부터 삼가장(三家庄)에 이르렀다. 북쪽으로 작은 길이 나있으며 취병산(翠屏山)에 가까운 지역이다. 한 모퉁이를 돌아 계주성(薊州城)을 바라보니 성 아래로 넓은 들과 평원이 펼쳐져 있다. 사면이 바다의 운무로 둘러싸인 것이 연기인 듯도 하고 안개인 듯하며 그림 같기도 하고 수를 놓은 것 같기도 하여 그대로 한편의 수묵화 같은 곳이었다. 바로 황성(皇城) 8경 중 '계문(薊門)의 안개 드리운 숲'이 이것이다. 계주(薊州)는 곧 연(燕)나라·대(代)나라 때의 한 도회지로서 소왕(昭王)의 옛 도읍이다. 성 밖을 지났으나 갈 길이 바빠 성안은 미처 구경하지 못하였다. 다만 절의 장려함에 대하여 들었는데 성의 양 벽 위에는 관우(關羽)와 장비(張飛)의 형상이 수문장(守門將) 같이 새겨져 있고 제 2문으로 들어가면 편액에 '서공신경(西拱神京)'이라고 써 있다고 한다. 수백보를 가면 독락사(獨樂寺)가 있으니 매우 큰 절이다. 문 안쪽 좌우에는 두 대왕이 눈을 부릅뜨며 검을 가로지르며 서 있고 '관음지각(觀音之閣)'이라고 편액되어 있으며 현판에는 '태백(太白)' 두 글자를 작게 써 놓았다. 누각 안에 있는 관음소상(觀音塑像)은 키가 6장(丈) 남짓이라서 '장육금신(丈六金身)'으로 불리며 허리 위쪽은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서쪽

가장자리 계단으로 30단쯤 가다가 꺾어서 북쪽 위로 가면 또 23 - 24계단이 있고 계단을 다 올라가면 제 1층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관음보살의 가슴이 위치한 곳에 당도하여 머리를 우러러 바라보면 위에 9개의 작은 금부처를 이고 있는데 모두 지극히 기이하고 정교하였다. 그 뒤쪽에는 8면 누각에 소상 2좌가 안치되어 있고 또 그 뒤편 서실(西室) 안에는 와불(臥佛)이 있으며 세간에서 '태백취와(太白醉臥)'라고 일컫는다고 한다. 방균(邦均)에 이르러 하룻밤 묵었는데 시장과 여염집이 자못 볼 만하였다.



七日 7일

七日. 自白澗店發, 行路左右, 多植楊柳之類. 一寺, 扁曰古刹香花庵, 未及入覽, 而寺之宏傑, 佛之奇詭, 亦爲壯觀云. 寺西有離宮, 乾隆每年一次來宿之所也. 皇帝見一女僧而悅之, 載入後宮, 有新寵, 故割許多福田, 敕賜女僧之師, 此寺之富麗, 甲於西方云. 至錯河橋, 一名滹沱河. 蘇秦傳曰, 南有滹沱易水, 以此推之, 馮異之進麥飯處, 非此河也, 明矣. 抵燕郊堡宿所.

7일. 백간점(白澗店)을 출발하였다. 가는 길 좌우에는 버드나무 종류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 한 절에는 '고찰 향화암(古刹香花庵)'이라고 편액되어 있었다. 들어가서 구경하지는 못했으나 절이 크고 웅장하며 불상이 기이하고 특별한 것이 또한 장관이라고 한다. 절 서쪽에 있는 별궁은 건륭제가 매년 한 번씩 행차하여 묵었던 곳이다. 황제가 한 여승을 보고 어여빠 여겨 후궁으로 들이고 총애하였으므로 허다한 복전(福田)을 할당하여 여승의 스승에게 하사하였으니 이 절의 부유함과 화려함은 서방(西方)에서 제일이라고 한다. 석하교(錯河橋)에 이르렀다. 이곳을 일명 호타하(滹沱河)라고도 한다. 《사기열전·소진전(蘇秦傳)》에 이르기를 "남쪽에는 호타(滹沱)와 역수(易水)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풍이(馮異)가 보리밥을 진상하였다는 곳**¹은 이 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연교보(燕郊堡)에 닿아 하룻밤 묵었다.

¹. 풍이(馮異)가 보리밥을 진상하였다는 곳 :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황제가 되기 전에 요양(鎬陽) 무루정(無蔓亭)에서 풍이(馮異)에게 팔족을 대접받아 배고픔을 면하고, 또 남궁(南宮)에 이르러서 보리밥을 대접받은 뒤에 호타하(滹沱河)를 건너갔다는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한국고전종합DB [↩](#)



八日 8일

八日. 自方家庄至通州. 白河源牛欄山, 與陶河合流, 入于通州, 一名白遂河. 自白河, 漕運之船相通, 帆檣四集, 號爲奇觀. 有八里橋, 延袤之, 宏敞非他橋可比. 南京貨商彩船, 來留此河云, 故一行已先進北門, 余則向東門而下, 河水稍減, 南船不能來到, 但燕船之泊於河岸者, 難數其幾許, 而皆雙帆鉄索, 船上覆長板, 板上作屋. 且倉廩之富實, 甲於燕京, 蓋天下漕運之船, 雲集江邊, 百官頒祿, 自此中辦出, 而春夏之間, 帆檣如束, 連續十餘里云. 入其城, 左右市廛, 飾以黃金, 物貨之盛, 人物之繁, 與皇城幾爲相等. 路邊閭閻之家, 聞我人車聲, 唐女粉面插花盛粧者, 出於門前觀之, 往往有半空秋月之面, 三春弱柳之腰, 無非初見者繡眼之處也. 自此以石爲路, 連亘四十餘里, 馬蹄車轍, 愈益有聲, 如雷霆相搏. 路邊種種有坎, 坎中蘆林茂盛矣. 城內路陝, 往來之車轂相搏, 使行次, 亦不能前進, 中路留息, 間關抵店. 彼人觀者, 如堵牆焉.〔每至大村, 皆圍而觀之.〕

8일. 방가장(方家庄)으로부터 통주(通州)에 이르렀다. 백하(白河)의 근원은 우란산(牛欄山)으로 도하(陶河)와 합류하여 통주(通州)로 흘러 들어가니 백수하(白遂河)라고도 한다. 백하(白河)로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가 서로 통행할 때에는 돛대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진기한 광경이라고들 한다. 팔리교(八里橋)가 크고 널찍하게 이어진 것이 다른 다리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한양의 상선들이 와서 이 백하에 머무른다고 했기 때문에 일행들은 이미 먼저 북문으로 나아가고 나는 동문을 향하여 내려갔으나 백하의 물이 점차 줄어 한양의 배는 들어올 수 없었다. 다만 강가에 정박되어 있는 연경의 배는 그 수를 셀 수가 없이 많았는데 모두 두 배를 철사로 묶고 배 위에 긴 널판을 덮은 뒤 널판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이었다. 또 곳간의 넉넉함도 연경에서 제일이므로 온 세상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가 강가로 구름처럼 모여들며, 온갖 관료들의 녹봉이 여기에서 마련되니 봄과 여름에는 마치 돛대를 묶어 놓은 것처럼 10여리 정도 이어져 있다고 한다. 성에 들어가니 좌우 시장은 황금으로 꾸며져 있고 물화의

번성함과 인물의 풍부함이 황성과 거의 서로 같았다. 길가 여염에서 우리들의 수레소리를 듣고서 중국여인이 얼굴에 분칠을 하고 머리에는 꽃을 꽂아 화려하게 단장하고 문앞에 나와 구경하였다. 이따금 반쯤 떠오른 가을 달빛 같은 얼굴이나 춘삼월 어린 버들가지 같은 허리를 가진 여인들이 있어 처음 보고도 눈에 흘리지 않는 자가 없는 곳이다. 여기부터는 돌로 길을 만들어 40여리나 이어져 있는데 말발굽과 수레소리가 우리와 천둥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더욱 크게 들렸다. 길가에는 종종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갈대밭이 무성하게 나있었다. 성 안은 길이 좁아서 왕래하는 수레의 바퀴가 서로 부딪혀 사행의 행차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도중에 멈춰서면서 간신히 가게에 다다랐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같이 몰려들었다.(매번 큰 마을에 이를 때면 모두 에워싸고 구경을 하였다.)

九日 9일

九日. 自管家庄, 至彌勒院. 所過左右路邊, 無非卿相之墓, 墓前丙舍, 環以松楸榆柳, 且柱石刻某氏塋宅, 但成墳一節, 不離其俗, 不衣莎草, 每秋夕節日, 以土加於墳上. 抵東岳廟, 廟在路傍,

9일. 관가장(管家庄)으로부터 미륵원(彌勒院)에 이르렀다. 지나가는 좌우 길가에는 재상의 묘가 아닌 것이 없으며 묘 앞의 묘막 주위에는 소나무·가래나무·느릅나무·버드나무가 둘러져 있다. 또 망주석에는 '아무개의 묘자리'라고 새겨놓았다. 다만 분봉을 만드는 절차만은 명대와 풍속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초(莎草, 무덤에 입히는 잔디)도 입히지 않은 채 매번 추석이면 무덤 위에 흙을 더한다고 한다.

東西跨街, 有四牌樓, 極其奇麗. 樓內外扁曰太虛洞天、三清上界、永鎮國祚, 其一未記¹. 有石獅子, 對蹲門前, 振動爪牙, 見人欲搏. 近前視之, 心骨欲寒, 門上書東嶽之廟, 有左右夾門, 從此入第二門, 正大路, 西北穹碑叢立, 多於樹木, 歷數其碑, 凡九十有三, 而兩邊二層閣中, 有乾隆御製碑. 庭中月臺之上, 是爲廟之正殿, 蓋以青瓦, 金碧燦燦, 殿簷大板, 揭岱宗寶嶽. 中龕, 被袞冕執玉而坐者, 乃東嶽之神, 左右侍立者, 皆是洞府仙官. 卓上鑪鼎之類, 皆盡其妙, 其中有鉄釜, 恰受八九斗油, 以長炷燃火, 掛於榻前, 晝夜不滅, 世所謂漆燈長明者也. 又剪綵爲花葉, 懸之兩邊, 一般是三月天氣. 正殿夾以旁屋, 狀如飛鳥垂翼, 延屬於左右月廊, 廊之東西庭廣遠, 僅辨人之顏面.

동악묘(東岳廟)에 닿았다. 사당은 길가에 있었으며 동서로 가로지른 거리에 4개의 패루가 지극히 기이하고 아름다웠다. 누각 안팎의 편액에는 '태허동천(太虛洞天)·삼청상계(三清上界)·영진국조(永鎮國祚)'라고 써 있었고 그 중 하나는 기록하지 못했다. 돌사자가 문앞에서 마주보며 웅크리고 있었는데 손톱과 이빨을 흔들며 사람을 보면 달려들 것 같았다. 앞에 가까이 가서 보니 심장과 뼈에 한기가 드는 듯했다. 문 위에는 '동악지묘(東嶽之廟)'라고 써 있으며

좌우에 협문이 있었는데 제 2문으로 들어가니 정 가운데 큰 길이 있었다. 서북 쪽에 있는 큰 비석 둘레에는 나무가 많이 세워져 있었고 지나가며 세어보니 모두 93개였다. 비석의 양 옆의 2층 누각 안에는 건륭제의 글을 적어 놓은 비석이 있다. 뜰 안 월대(月臺)² 위에 있는 것이 사당의 정전(正殿)이다. 청와(靑瓦)가 금빛과 푸른빛이 섞여 찬란하였으며 정전의 처마에는 큰 현판에 '대종보악(岱宗寶嶽)'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다. 정전 가운데 감실에 곤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옥을 들고 앉아있는 사람이 동악(東嶽)의 신이고 좌우에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은 모두 선계의 관원이다. 탁자 위 화로나 술 같은 기물들이 모두 지극히 기묘하였다. 그 중 쇠가마는 8 - 9말의 기름을 넣기에 적당한 크기로 긴 심지에 불을 붙여 상탁 위에 걸어두면 밤낮으로 꺼지지 않으므로 세간에서는 '칠등장명(漆燈長明)'이라고 이른다. 또 비단을 오려 만든 꽃잎을 양쪽 길가에 매달아 두니 마치 삼월의 풍경 같았다. 정전 양쪽은 새가 날개를 드리우고 나는 것 같은 형상으로 별채를 끼고 있고 좌우로 행랑이 연달아 이어져 있었다. 동쪽과 서쪽 행랑 사이의 뜰은 넓고 멀어서 사람의 얼굴을 겨우 분간할 정도였다.

殿後有層屋，屋中塑像，遍是娘娘之位。由梯登樓，中龕蓮花榻上，坐玉皇上帝，兩邊侍立真人仙子，東有神馬一雙，一馬赤一馬黃，振鬣相向，颯颯如生。最後一殿，沈深森嚴，有一丈夫一婦人，具袞冕珠裳而坐，是東嶽神之爺孃也。坐前有初生兒十餘孩，門楣書育生之殿，又曰爲蒼生福。綵花之繁華，月臺之弘敞，彝鼎之雕鏤，庭廡之宏傑，與正殿無異，而東西屬以月廊，亦各四十間也。一間各置香爐，其中列坐塑像，有人化鬼者，有鬼而化禽獸者，俱奇險可畏。楣上各書所掌之職曰掌文章之所，掌壽夭之所，掌富貴之所，掌刑法之所。凡世間一切死生禍福陰報之事，皆在其中。諸神之位，不可盡記，而蓋泰山所屬地府神官也。其右殿中，有文昌帝君，位左右壁上，金字揭板，不計其數。自正殿至育生之殿，相去可三百四十餘步，計殿廊之間，則亦三百二十餘間，周遭蔓延之小屋，不與其數，天下寺觀之壯麗，當以東嶽廟爲第一也。

정전의 뒤편에는 여러 층으로 된 집이 있었고 집안의 소상은 두루 선녀의 신위였다. 계단을 통해 누각에 올라가면 가운데에 감실이 있고 연화탁(蓮花榻) 위에 옥황상제가 앉아 있고 양쪽 옆에는 진인과 신선이 모시고 서 있다. 동쪽에

는 신마(神馬) 1쌍이 있는데 한 마리는 붉은색, 한 마리는 황색으로 갈기를 휘 날리며 서로 향하여 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 가장 뒤에 있는 전당은 분위기가 고요하며 삼엄하다. 한 장부와 한 부인이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갖춰으며 구슬을 걸고 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데 이는 동악신(東嶽神)의 부모이다. 앉은 자리 앞에는 갓 태어난 아이 10여명이 있고 문미(門楣, 문 위에 가로 댄 나무)에는 '육생지전(育生之殿)'과 '위창생복(爲蒼生福)'이라고 써 있었다. 채화(綵花)의 화려함, 월대의 광대함, 이정(彝鼎)의 정교한 조각, 뜰과 별채의 광대함이 정전(正殿)과 다르지 않았다. 동쪽과 서쪽의 행랑 또한 각 40칸이나 되었다. 1칸마다 향로를 설치해 두었고 그 안에는 소상이 열 지어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귀신이 된 자, 귀신이 금수가 된 자가 모두 기이하고 험괴하여 두려울 만하였다. 문미(門楣)에는 각각 담당했던 관직이 쓰여 있는데 '문장을 관장했던 곳', '명줄을 관장했던 곳', '부귀를 관장했던 곳', '형벌을 관장했던 곳' 등이다. 세간의 모든 생사(死生)·화복(禍福)·음보(陰報, 음덕으로 보답 받는 것)의 일이 모두 이 안에 있었다. 여러 신의 지위를 다 기록하지 못하였으나 대개 태산(泰山)에 소속된 지부(地府)의 신관(神官)들이었다. 그 오른쪽 전당 안에는 문창제군(文昌帝君)이 있고 좌우의 벽 위에는 금자(金字)로 현판이 걸려 있는데 셀 수 없이 많다. 정전으로부터 육생지전(育生之殿)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340보 정도이고 정전과 행랑의 사이를 재보니 320여 칸이다. 주변에 만연해있는 작은 건물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니 천하에 있는 절 가운데 경관의 장려함으로는 동악묘(東嶽廟)를 제일로 치는 것이 당연하다.

使行具冠服，乘太平車，一行人皆從後入城，城門扁以朝陽。自朝陽至館十餘里，市廛棋布，樓臺星羅，便一黃金世界。古人仰觀天子宮闕之壯，與倉廩府庫城池園囿之富且大，而後知天下之巨麗，可謂先³護我心也。玉河館，本我國使星留寓之所，而今稱曰南館，扁曰四譯館。館在皇城之南玉河橋之側，先是到瀋陽，前一日書者，倍日兼行，先入燕京南館，使彼人造坑熾炭，預爲準備，此舊例也。遂分坑而處，前堂之西坑上房也。西廊之右坑，裨將朴麟蹄齊崧，李生員運綱，其越坑伴倘金天安啓灃，李

生員用汝. 東廊之右坑, 裨將卞教授崑, 其越坑余與金僉正相義同留也. 以白紋綾花塗壁, 明窓煖帳, 亦足以起居偃仰. 頃之三使臣詣禮部, 呈表咨文, 則漢侍郎, 率諸郎官祇受云. 余則因路撼大痛, 未能從玩.

사신들은 관복을 갖추어 태평거를 탔고 일행들은 모두 뒤따라 성에 들어왔다. 성문에는 '조양(朝陽)'이라고 편액되어 있었다. 조양으로부터 사신의 관소에 이르기까지 십여리를 가는 동안 시장에 가게가 바둑판의 돌처럼 늘어서 있고 누각은 별자리 같이 벌여 있는 광경이 문득 하나의 황금 세계 같았다. 옛 사람들이 천자가 사는 궁궐의 장려함과 공간·창고·성지(城池)·정원의 넉넉하고 광대함을 우러러 보고 난 후에야 천하가 거대하고 장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 말은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았다고 할 만하다. 옥하관(玉河館)은 본래 우리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지금은 남관(南館)이라고 부르고 편액에는 사역관(四譯館)이라고 쓰여 있다. 사역관은 황성의 남쪽 옥하교(玉河橋) 옆에 있다. 이보다 먼저 사신들이 심야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서자(書者)가 밤낮을 쉬지 않고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가며 먼저 연경(燕京)의 남관에 들어가서 저들로 하여금 숲을 피울 **캉(坑, 온돌방)**⁴을 만들게 하여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던 관례이다. 곧 온돌방을 나누어 거처하는데 전당(前堂)의 서쪽 온돌은 상방(上房)이 썼다. 서쪽 행랑의 오른쪽 온돌은 비장(裨將)인 인제(麟蹄) 박제송(朴齊崧)과 생원 이운경(李運綱)이 쓰고 그 건너편 온돌은 반당(伴尙)인 천안(天安) 김계풍(金啓豐)과 생원 이용여(李用汝)가 썼다. 동쪽 행랑의 오른쪽 온돌은 비장 교수 변곤(卞崑)이 쓰고, 그 건너 온돌은 나와 첨정(僉正) 김상희(金相羲)가 같이 머물렀다. 흰색 문양의 능화지로 벽을 발랐는데 밝은 창과 따뜻한 장막이 편히 기거하기에 만족스러웠다. 잠시 후 박회수·이근우·심돈영 세 사신이 예부(禮部)에 나아가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바치니 한인(漢人) 시랑(侍郎)이 여러 낭관들을 거느리고 공경히 받았다고 한다. 나는 먼 길에 시달려 크게 아팠으므로 따라가서 구경하지 못했다.

1. 其一未記 : 其一不能記 ※《경자연행잡지》 [↩](#)

2. 월대(月臺) : 건물을 세우기 전 바닥을 높이 쌓아 계단식으로 만든 건물의 기초 [↩](#)

3. 護 : *獲 ※문맥상 [↩](#)

4. 캥(坑, 온돌방) : '炕(강)'은 우리나라 '온돌'과 같이 방 밑으로 불을 피워 덥히는 것이나, 우리처럼 방 전체가 다 온돌인 것이 아니라 방의 반쪽이나 일부만 온돌로 하여, 방문 안에 들어서서 보면 '캥'은 마치 침대와 같이 되어 '강'으로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된다. ※이상은. 《담헌서》 해제. 한국고전종합DB [↩](#)



十四日 14일

十四日. 日氣清郎. 懣痾稍勝, 始緩步徐行. 至正陽門, 是乃國之南門也. 樓二層雕窓彩欄, 插入霄漢, 俯瞰城中. 大清門稍近望見, 門常不開, 南門之前門, 以其輦路, 亦常不開. 右有西門, 左有東門矣. 自西門, 出五六十步向南, 有正陽橋, 而橋之左右附橋, 其中橋御路也. 皆以石爲欄干, 其長五十步, 其廣十五間. 其前有正陽橋牌樓, 規【矢+莫】¹之宏傑, 金碧之煒煌, 不可盡狀.

14일. 날씨가 맑고 좋았다. 피곤과 병이 점차 기승을 부려 겨우 느린 걸음으로 서행하였다. 이 나라의 남문인 정양문(正陽門)에 이르렀다. 누대 2층에 아로새긴 창과 색색의 난간에는 은하수가 박혀있고 성안을 굽어볼 수 있다. 대청문(大清門)이 점차 가까워져 멀리 바라보니 문은 항상 열어놓지 않았는데 남문인 전문(前門, 정양문)은 천자의 수레가 다니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는 것이다. 오른쪽에는 서문, 왼쪽에는 동문이 있다. 서문으로부터 남향으로 50 - 60보 나가면 정양교가 있는데 다리 좌우로 다리가 붙어있으며 그 가운데 다리는 황제가 다니는 길이다. 모두 돌로 난간을 만들었으며 길이는 50보, 넓이는 15칸이다. 그 앞에는 정양교의 패루(牌樓)가 있는데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금빛과 푸른빛으로 화려하여 그 형상을 다 말할 수 없다.

未及橋十步許, 有西小路, 此去琉璃廠僅一里. 此路左右, 亦皆以琉璃函, 入珠玉、寶珮、繡囊、刀子, 玲瓏璨爛. 此肆之末, 路邊雜貨之肆, 有西洋硫黃, 以百餘箇入於紙匣, 匣頭塗泥膠樣甚麗, 其頭硫黃畫之, 即起火甚奇巧, 而其價則一匣當三四十文. 街之南有觀四柱者, 余與兒子四柱, 償一緡而論評, 余則應吉, 公門中等之命, 兒子聰明過人, 必成大器之命. 駐脚遠望, 步步金牌, 飾以龍頭、紗窓、繡闌、瓊戶、粉壁, 左右玲瓏, 往來之人, 如在水中畫中. 無非茶房、酒肆、筆鋪、墨館、燈店、車舍、刻字所、啄玉處、書畫廬、炷香市等, 羅列東西, 而許多書肆, 令人心醉目眩, 珍籤寶軸, 插架而連屋, 青緗錦帙, 疊刀而堆床. 入而觀之, 未知何書之在何方, 似難搜得, 而卷面糊小片白紙, 各書某書某秩也. 余入於街北第三家, 求本草、景岳

·保元,以銀三兩交貿.其下左右,無非眼鏡之舖,書畫之肆,而肆中列掛羊角燈,或華柳四方燈,以采畫紗塗之,以緞刻唐女橫臥之像,着以繡衣,掛以賣之,此是良漢的家所玩者云.鉄燈,則無非以紅紙刻,付長安諸堂號及廬號以賣之,假如恒慶爲堂號,則覓恒慶字燈買去,人參局人,則覓人參字燈買去矣.因日晚還,至正陽門內,酒食餅麪店舍,高大弘敞,腥膻之氣,迎【角+曷】²鼻孔,令人欲嘔矣.

다리에 다다르기 10보쯤 전에 서쪽으로 작은 길이 있다. 이곳은 유리창(琉璃廠)³과 겨우 1리쯤 떨어져 있다. 이 길 좌우에도 역시 모두 유리함이 놓여있었고 주옥·보석이나 패물·수놓은 주머니·작은 칼 등 영롱하고 광채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 시장의 끝 길가의 잡화 가게에는 서양유황(西洋硫黃, 성냥)이 있었는데 작은 종이상자에 성냥 백여 개가 들어있고 성냥갑의 머리부분에는 아교같은 것을 심히 거칠게 발라두었다. 성냥 머리부분의 유황을 그으니 즉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신기하였으나 그 값이 1갑에 30 - 40문(文)이나 되었다. 거리의 남쪽에는 사주(四柱)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 자식의 사주(四柱)에 대한 보상으로 돈 한꾸러미(緡)를 내고 들어보니 나는 '응당 길하니 중간 관직까지 오를 운명(應吉公門中等)'이며 자식은 '충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반드시 큰 그릇이 될 운명(聰明過人必成大器)'이라고 하였다. 길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니 걸음마다 금빛 패루가 용머리·비단 창문·화려하게 수놓은 문·옥 장식 문·분칠한 벽들로 장식되어 있어 좌우가 영롱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이 마치 물 속이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찻집·술집·붓가게·먹가게·등가게·수레가게·글자 새기는 곳·옥 조각하는 곳·서화가게·향가게 등이 동서로 나열되어 있었다. 허다한 서점에는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고 눈을 아득하게 하는 진귀한 죽편과 값진 두루마리가 서가에 꽂혀 천정까지 이어져 있고, 푸른빛이나 황금빛 비단으로 꾸민 책들이 책상에 겹치고 평상에 쌓여 있었다. 들어가서 구경하니 어떤 책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았고 책 앞표지에 작은 종이 조각을 붙여서 각 책마다 ○○책(書) ○○질(帙)이라 써두었다. 나는 거리 북쪽의 세번째 집에 들어가서 《본초강목》·《경악전서》·《수세보원》을 은 3냥에 거래하였다. 그 아래쪽으

로는 좌우가 모두 안경 점포와 서화 가게였다. 가게 안에는 양각등(羊角燈)을 걸어놓거나 화류사방등(華柳四方燈)을 줄지어 걸어 두고 그림을 채색한 비단을 발라두었다. 당여인(唐女)이 가로 누워있는 모습이나 수놓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비단에 새겨 걸어 팔고 있었다. 이것은 양한지(養漢的, 창녀)의 기방에서 완상하던 것들이라고 하였다. 철등은 붉은 종이로 새기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장안(長安)의 가게명나 물품명을 붙여놓고 물건을 판다. 가령 가게명이 항경(恒慶)이면 '항경(恒慶)'자가 써 있는 등을 찾아가서 사면 되고 인삼을 다루는 사람은 '인삼(人參)'자가 써 있는 등을 찾아가서 사면 된다. 날이 저물어 돌아가 정양문 안에 이르니 술과 밥, 떡, 국수를 파는 가게가 높고 크고 널찍하였지만 비린내가 풍겨 콧구멍으로 냄새가 들어오자 사람으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했다.

館之右第一家, 扁曰庶常館, 卽翰林學士之薇垣也. 第二青瓦之家佛堂也. 第三家焦廣局, 入於文房之所, 則主人揖而接引, 請坐於榻, 進一杯茶, 叙其寒暄. 焦氏年幾七十, 頗解我音, 言辭甚恭. 此是多年南館餽坑, 收賞之主人也. 其靜室, 左右列長卓, 置自鳴鍾、圖書、石屢千箇, 各色硯石、千里鏡、宮箋紙、筆墨等文房之俱, 皆極燦晃, 盡是欲賣於我人之物. 北壁上掛李知事(尙迪)周聯曰, '樂意相關禽對語, 生香不斷樹交花', 四壁皆古人書畫, 琉窓繡戶, 玲瓏晃漾.

남관(南館)의 오른쪽 첫번째 집에는 '서상관(庶常館)'이라고 편액이 되어있으며 한림학사가 있는 자미원(紫薇垣, 행정을 심의하던 중앙 관청)이다. 두번째의 푸른 기와집은 불당(佛堂)이다. 세번째 집은 초광국(焦廣局)인데 문방제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주인이 읊하며 맞이하면서 평상에 앉으라고 권한 후 차 한 잔을 건네며 인사를 했다. 초씨(焦氏)는 나이가 70인데 우리나라 말을 거의 알아들었으며 언사가 매우 공경스러웠다. 이 사람은 바로 다년간 남관(南館, 우리나라 사신이 묵는 곳)의 온돌방을 꾸며주고 세를 받는 주인이었다. 그 정갈한 방에는 좌우로 탁자가 길게 나열되어 있고 자명종·도서·돌 수천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색의 베틀돌·천리경·궁전지(宮箋紙)·붓·먹 등의 문구를 놓아두었다. 모두 지극히 휘황찬란하여 참으로 우리의 물건을 팔알아서라

도 사고 싶게 만들었다. 북벽 위에는 지사(知事) 이상직(李尙迪)의 주련이 걸려 있었다. '즐거운 뜻이 서로 이어지니 새가 말을 주고받고, 생기 도는 향기 끊임없이 이어지니 나무가 꽃과 어울리네.(樂意相關禽對語. 生香不斷樹交花.)'⁴ 네 벽에 모두 옛사람들의 서화가 있고 유리 창문과 화려한 문은 영롱함이 흘러 넘쳤다.

館之東玉河橋也, 館之西正陽門之路也. 自東西左右家, 皆以金牌掛於門前, 書於門壁, 曰朝鮮人參、海參、紙張、貢布等. 發賣局門上, 各揭金字堂號矣. 南有中和局, 此是皇曆賣咨官主人也. 其右有天儀局, 請余書周聯一次, 故書與. 北有天惠局, 請余書周聯二次, 壁書一張, 故亦書與. 余之筆法, 豈可露拙於大國而掛其姓名, 亦有榮耀焉故也. 物貨之儉, 自東至西一洞之人, 洞外之人, 不得入館, 賣貨館隸, 有收稅故也.

남관(南館)의 동편에는 옥하교(玉河橋)가 있고, 남관의 서편은 정양문으로 가는 길이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좌우의 집들은 모두 금패를 문앞에 걸어두었으며 문 벽에 '조선 인삼·해삼·종이·공포(貢布, 공납으로 바치던 베)' 등을 파는 물건을 써 놓았고 가게 문 위에는 각각 금색 글씨로 당호를 걸어 두었다. 남관의 남쪽으로는 중화국(中和局)이 있는데, 여기는 **황력재자관**⁵이 주인이다. 그 오른쪽에 천의국(天儀局)이 있었는데 나에게 처음으로 주련(周聯)을 써주길 청하였으므로 써서 주었다. 남관의 북쪽으로는 천혜국(天惠局)이 있었는데 나에게 두번째로 주련(周聯)을 써주길 청하였으므로 벽에 붙일 글을 1장 써서 주었다. 우둔하고 졸렬한 나의 필법으로 어찌 대국에 그 이름을 걸 수 있겠는가. 역시 은혜로운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들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한 동네 사람들이고, 동네 밖의 사람들은 구역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물화나 관노비를 팔 때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다.

南館之北大路邊, 有西洋館, 而已亥洋人四名, 出我之後, 有我人禁入之命, 故不得入玩. 洋人出遊於路上者, 皆眼睛黃鼻頭尖云.

남관(南館)의 북쪽 대로변에는 서양관(西洋館)이 있으나 기해년(1839년) 서양인 네 명이 우리나라를 떠난 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입을 금한다고 명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없었다. 길 위에 돌아다니는 서양인들은 모두 눈동자가 노랗고 코는 오뎅하다고 한다.

正陽門外左右, 冠婚擇日及卜筮者, 列坐. 越正陽橋, 向南而下, 菜肆, 則青紅蘿蔔、竹筴、薯蕷、甘蔗等, 雜菜備滿, 鮮市, 則鮒、鯉、鯡、鮎、銀魚等雜鮮, 皆水沈於木椀砂盆中, 鷄、鴨、豚、羊, 養蓄於圈簣, 柿、萄、落花生, 雜糖果, 及大棗大如鷄卵, 山查大如栗子, 生薑肥大如拳, 其餘綵緞、砂木器、毛物、麻霞子、烟臺, 換錢肆及衣廬, 亦爲燦然而其照數之聲, 極爲撓亂. 諸般黃金市肆, 橫亘十餘里, 東谷亦有冊肆, 而不及琉璃廠之備滿. 之東之西, 谷谷路邊, 皆市廬也. 門外之路街, 貫車彌滿, 行人計其遠近, 雇賃乘之. 市門之外, 懸大火繩, 使往來之人, 欲其喫咽, 溫燒餅甘蔗等, 以長木兩頭掛簫, 其中置火爐, 擔以行賣, 每買喫, 熱薰味佳, 足以禦寒. 路邊有茶商, 茶罐茶甫, 列置床上, 每飲一甫, 價與一文矣. 南門外, 多有遊市之盜, 我人出玩時, 或失眼鏡刀子者有之, 卽時告官, 則彼人還推來納云.

정양문(正陽門) 밖 좌우에는 관혼의 날짜를 택일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이 줄지어 앉아 있다. 정양교(正陽橋)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야채가게에는 푸르거나 붉은 무, 죽순, 마, 감자 등 갖은 야채가 가득 구비되어 있다. 생선 시장에는 붕어, 잉어, 송어, 메기, 은어 등 갖은 생선들을 모두 물에 담가 나무 사발이나 사기그릇 안에 두었다. 닭, 오리, 돼지, 양 등 가축은 우리에게 가두어 두었다. 감, 포도, 낙화생 등 여러 달달한 과일이 있었고 대추는 크기가 계란만하고 산사(山査)는 밤알만하며 생강은 주먹만큼이나 비대하였다. 그 나머지 비단, 사기그릇, 나무그릇, 모직물, 마하자(麻霞子, 일종의 관모(官帽)), 담뱃대 등이 있다. 환전소와 옷 가게 또한 찬란했는데 가격을 외치는 소리가 매우 요란하였다. 대부분 황금시장은 10여리에 걸쳐 뻗어 있었다. 동쪽 골짜기에도 책가게가 있으나 가득 구비되어 있는 유리창(琉璃廠)⁶에는 미치지 못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골목마다 길 주변은 모두 가게였다. 문밖의 길거리에는 세인력거가 가득했으며 행인들은 거리를 계산하여 돈을

내고 올라탔다. 시장의 문밖에는 큰 화승(火繩) 줄을 매달아 두는데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태우게 하려는 것이다. 따뜻하게 데운 떡이나 감자 등을 기다란 나무의 양쪽 끝에 통을 걸고 그 안에 화로를 넣고 메고 다니며 파는데 매번 사먹을 때마다 뜨겁게 훈증되어 맛이 좋고 한기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길가에는 차를 파는 상인이 찻그릇(茶罐)이나 차보시기(茶甬)를 평상 위에 줄지어 두었는데 차 1보시기를 마시는 값은 1문(文)이다. 남문 밖에는 시장을 배회하는 도둑들이 많은데 우리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안경이나 칼 등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즉시 관아에 알리면 그 놈들이 잡혀와서 돌려준다고 한다.

自正陽橋，行三里許入東谷，有已後市場，地名天壇露。坐路邊雜緞之片，新舊之衣，俱極燦爛。鐵保、翁方、綱何紹基之周聯，古畫書帖等雜物，列張於路上。自平明至巳時，收之欲買其件，則價呼倍蓰，其俗專在於謀利。此村素多良漢의云。

정양교(正陽橋)으로부터 3리쯤 가서 동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뒷시장이 있는데 지명은 천단로(天壇露)이다. 길가에 앉아 온갖 비단 조각이나 새 옷과 헌 옷을 파는데 전부 지나치게 화려하였다. 철보(鐵保)、옹방강(翁方綱)、하소기(何紹基)의 주련(周聯)과 옛 서화첩 등 잡다한 물건들이 길 위에 줄지어 늘어져 있다. 새벽녘부터 사시(巳時)까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모았는데 부르는 값이 몇 배나 되는걸 보니 그 풍속이 오로지 이익을 불리는데 있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본디 양한지(養漢의, 창녀)가 많다고 한다.

南門東之北有太僕寺，行五里許有門，即南門之東便南門，而門號未詳也〔俗稱曰下大門〕。崑偉製作，一如正陽門。市廛稍下於正陽門，外而出東門。向南之一里許入東，左右皆生材藥局。又至數百步入東，左右露列珠玉雜貨，而鋼針稱爲第一品。其北肆，皆藏寶佩之所也。密花、玉佩、珊瑚株等，藏于繡櫃，權於天平稱而賣之。

남문의 동북쪽에는 태복시(太僕寺, 황제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관서)가 있다. 거기에서 5리쯤 가면 문이 나오는데 남문의 동편에 있는 남문이며 문호는 상세히 알지 못한다.〔속칭 하대문(下大門)이라고 한다.〕 우뚝하고 위엄 있게 지어놓은 것이 정양문(正陽門)과 매한가지다. 시장은 정양문에서 조금 아래쪽

이라 동문 바깥쪽으로 나가야 한다. 남쪽을 향하여 1리쯤 가서 동쪽으로 들어서니 좌우가 모두 생약재를 파는 약국이었다. 또 수백보를 가서 동쪽으로 들어서면 좌우로 주옥과 잡화를 파는 노점이 늘어서 있으며 강침(鋼針)은 품질이 제일이라고 일컫는다. 그 북쪽에 있는 가게는 모두 값진 패옥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밀화(密花)·옥패(玉佩)·산호구슬 등을 수놓은 함에 넣어두고 천평칭(天平稱)에 저울질하여 판다.

南門之西五里許，有西洋館，雕鏤之細密，樓閣之奇巧，大異於燕京之製也，此是洋人所製云，而今爲廢館矣。路邊有雜貨露賣之肆，皆書畫文房之具也。至數百步有門，卽南門之西便南門，而門號未記也。制作亦如正陽門。又向西至數百步有衙門，額曰馴象所。門卒四五人守直門外，乃御駕象所養之府也。上判事馬頭費情錢，欲入觀之，門卒禁拒，曰閒雜人不得出入之意，既付公文於門面，若犯之，官員見汰，故不得許也。聞前時入玩，自年前雜人入，而相鬪致獄之後有禁云。

남문에서 서쪽으로 5리쯤 가면 서양관(西洋館)이 있다. 조각이 세밀하고 누각이 기이하고 정교하여 연경에서 지은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것은 서양인들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폐관되었다. 길가에 잡화를 파는 노점 가게에서는 모두 서화와 문방 도구를 판다. 수백보를 더 가면 문에 이르는데 남문의 서편에 있는 남문으로 문호는 상세히 알지 못한다. 지어놓은 형태는 역시 정양문과 매한가지다. 또 서쪽을 향하여 수백보에 이르면 아문(衙門)이 있고 편액에는 순상소(馴象所, 코끼리를 길들이는 곳)라고 써 있다. 병사 4 - 5인이 문 밖을 맡아서 지키고 있는데 황제의 수레를 끄는 코끼리를 기르는 관청이다. 상판사(上判事) 마두(馬頭, 사행의 수행원)가 뇌물을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려 하였으나 병사가 금하여 막으면서 한가한 잡인(雜人)들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공문으로 문앞에 붙여 두었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관원들이 관직에서 파면 당하므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들으니 이전에는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었는데 한해 전에 잡인들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다 옥사를 치룬 후에 금하게 되었다고 한다.

1. 【矢+莫】 : *模 ※문맥상 ↩

2. 【角+曷】 : *觸 ↩

3. 유리창(琉璃廠) : 자금성 지붕에 쓰일 유리기와를 만드는 유리공장이 모여 있던 곳으로 자금성 완공 후 공장이 문을 닫자 서적(書籍)과 골동(骨董)을 취급하는 상점이 들어섰다. ※한국고전종합DB ↩

4. (樂意相關禽對語. 生香不斷樹交花.) : 여기서는 이 주련을 지사(知事) 이상적(李尙迪, 1804 - 1865)가 지었다고 하였으나 다른 여러 곳에서는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대리시승(大理寺丞)을 지냈던 석만경이 지은 〈녹수음앵경대물(綠樹吟鶯景對物)〉의 한 구절이라고 적혀있다. ※성호전집 ↩

5. 황력재자관 : 황력은 중국에서 보내주는 역서(曆書)로 중국 조정에 역서를 청구하는 자문을 가지고 가는 사신을 말한다. ※한국고전종합DB 몽경당일사 - 주 ↩

6. 유리창(琉璃廠) : 자금성 지붕에 쓰일 유리기와를 만드는 유리공장이 모여 있던 곳으로 자금성 완공 후 공장이 문을 닫자 서적(書籍)과 골동(骨董)을 취급하는 상점이 들어섰다. ※한국고전종합DB ↩

二十八日 28일

二十八日. 禮部公文來到曰明早某時, 皇帝在海甸幸, 皇太后宮預待, 宮門之外侯駕, 祇迎仰瞻云云. 且今日詣鴻臚院預儀云云. 三使臣乘太平車, 詣鴻臚院. 自玉河橋邊, 至北路五里許, 歷欽天監, 太醫院之上, 有鴻臚院. 至門外, 皆下馬入重門, 三使臣留於正殿, 三門之東月廊矣. 頃之, 鴻臚官乘太平車, 前陪軍騎馬, 高聲喝導, 而引至東月廊, 下車而入, 通官亦留於東月廊. 其正殿以黃瓦盖之, 兩層六稜, 閣中置黃榻, 覆黃袱, 虛位排設, 燦然且肅. 頃之, 開正門, 鴻臚官左右對立而呼唱, 朝士數人, 拜叩而退, 此是過去朝士肅拜之禮也. 其後通官引三使臣, 立於正門磚石, 從官亦以冠服侍立, 鴻臚官呼唱, 皆拜叩而退, 還至館所.

28일. 예부에서 공문(公文)이 도착하였다. '내일 새벽 모(某)시에 황제가 해전(海甸)에 행차가 있으니 황태후궁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궁문 밖으로 어가가 지나가면 공경히 맞이하고 우러러 보라.'고 하였다. 또 '오늘 홍려원(鴻臚院)에 나아가 의식에 참여하라'고도 하였다. 세 사신은 태평거(太平車)를 타고 홍려원에 나아갔다. 옥하교(玉河橋) 주변으로부터 북로(北路)까지 5리쯤 가다가 흠천감(欽天監)을 지나서 태의원(太醫院) 위쪽이 홍려원이다. 문 밖에 이르자 모두 말에서 내려 중문(重門)으로 들어갔다. 세 사신은 정전(正殿)에 머물러 있었는데 세번째 문의 동월랑(東月廊)이다. 잠시 후 홍려관(鴻臚官)이 태평거를 타고 전배군관들은 말을 타고 고성을 지르며 길을 트면서 동월랑(東月廊)으로 인도하였다. 태평거에서 내려 들어가니 통관(通官) 역시 동월랑에 머물러 있었다. 그 정전은 황금빛 기와로 덮여 있는 2층의 6각 건물로 건물 가운데에는 황금 탁자를 놓고 황금 보자기를 덮어 빈 신위를 안치해 두었는데 찬연하고 엄숙했다. 잠시 후에 정문(正門)이 열리자 홍려관이 좌우를 마주 대하게 하고 호창(呼唱)하니 조정의 신하들이 구부려 절을 하고 나왔다. 이것이 과거부터 조정의 신하들이 해오던 숙배(肅拜)의 예절이다. 그 후 통관이 세 사신을 인

도하여 정문의 벽돌에 서도록 하였고 종관(從官) 또한 관복을 갖추고 옆에서 모시고 섰다. 홍려관이 호창하자 모두 엎드려 절하고 물러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二十九日 29일

二十九日. 未明發行, 自東夾門而入, 是乃闕中之路也. 大小市肆之繁華, 民庶往來之車輪, 彌滿於路. 中闕之城, 未知其幾匝也. 行數十里, 出西華門, 有二牌樓. 轉向一二里, 市肆欲盡, 而路左右環以榆柳, 其邊塚墓相望, 或圍粉牆, 或立短碣, 皆公侯卿相之山也. 又至二十里, 到圓明園, 借旅店止宿. 地勢平廣, 周回可五六里, 四面夾以雜樹, 前有溝水橫流, 一半向西山, 一半入于大江, 海甸所居之人, 皆王侯宗親公卿之家, 是清人也. 漢人一不能居于此地云. 其樓臺宮殿朝家閭宅, 皆極燦美, 不能畫成其形, 令人有翻然欲仙之意. 夜半車聲磷磷馳過者甚衆, 而車前懸紅字號鉄燈, 或前導騎人, 持鞭高呵, 宛如辟除之語, 此皆入闕之朝士也.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동쪽의 좁은 문으로 들어서니 여기가 꺾의 안쪽 길이다. 크고 작은 상점들이 변화하였고 백성들이 왕래하는 수레바퀴가 갈수록 길에 가득했다. 중앙의 꺾을 둘러싼 성은 몇 겹인지 알 수 없었다. 수십리를 가서 서화문(西華門)을 나가니 2개의 패루가 있었다.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1 - 2리가니 상점이 끝나려는 길 좌우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둘러져 있고 그 주변에는 무덤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것은 흰 담으로 에워싸고, 어떤 것은 단갈(短碣, 작고 둥근 비석)을 세워 놓았는데 모두 공후(公侯)나 경상(卿相)의 무덤산이다. 또 20리를 가서 원명원(圓明園)에 닿아 여관을 빌려서 묵었다. 이곳은 지세(地勢)가 평평하고 넓으며 둘레가 거의 5 - 6리쯤 되고 온갖 나무들을 심어 놓았다. 앞에는 도랑물이 가로지르며 흐르는데 절반은 서산(西山)을 향하여 흐르고 절반은 해전(海甸)의 큰 강에 유입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왕실의 종친이거나 공경대부의 집안으로 청나라 사람들이다. 한인(漢人)들은 누구도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한다. 그 누대와 궁전과 조정과 저택은 모두 지극히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그림으로도 그 모습을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불현듯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한밤 중에 수레 소리를 덜컹덜컹 울리며 말을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수레 앞에

는 붉은 글자를 새긴 철등(鐵燈)을 매달았고 때로 앞에서 말을 모는 사람이 채찍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것이 흡사 '물렀거라' 하는 벽제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들은 모두 궐에 들어가는 조정의 신하들이다.

圓明園後歷二門, 行百餘步, 有二層閣, 卽山高水長閣云, 而未暇閱覽. 正大光明殿近處, 有虎圈, 凡三十四間, 用甃築之高如城郭, 以鉄絲網¹, 盖其上圈, 外樹巨木爲柵云. 而今已毀罷, 放虎故也. 皇帝放圈中之虎, 出獵觀遊, 若有搏虎者, 特賞賜. 且有擒虎來納者, 亦爲賞賜, 虎則更蓄於圈中云. 新春又有放生宴, 鉄籠中, 藏鳩鷹鳥雀之屬, 畫鼓一鳴, 侍臣開籠放之, 任其飛去, 取新春生物之意也云.

원명원(圓明園) 뒤편에 있는 두 개의 문을 지나 1백여 걸음쯤 가면 산고수장각(山高水長閣)이라고 하는 2층 누각이 있으나 거름이 없어서 관람하지는 못하였다.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 가까운 곳에 호랑이 우리가 34칸 있는데 벽돌로 담을 성곽만큼 높이 쌓았고 철사그물로 위쪽 우리를 덮었으며 바깥쪽에 큰 나무들을 심어 울타리로 삼았다고 한다. 지금은 호랑이를 방사하였으므로 이미 헐었다. 황제가 우리 안의 호랑이를 풀어주고서 사냥을 나가 유람하였고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도 특별히 상을 주었다. 또한 호랑이를 생포하여 잡아온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호랑이는 다시 우리에 넣고 길렀다고 한다. 새로운 봄이 오면 또 방생연(放生宴)을 열고 철로 만든 새장 안에 구관조·매·참새 등을 가두어 놓았다가 화고(畫鼓)가 한번 울리면 신하들이 새장을 열어 놓아주고 마음대로 날아가게 하니 새 봄에 만물을 생동시키려는 뜻이라고 한다.

平明詣祇迎所, 自皇城, 撥軍絡續於道, 卿宰或乘四人輦, 或乘翰林車, 或騎馬者, 往來不絕. 掃地軍連立等待, 若有馬糞下地, 卽爲淨掃. 各洞口以木揮帳垂翳, 雜人一禁. 我人亦冠服, 外皆逐入洞中. 頃之, 前後陪朝臣三四十人, 後有持長劔騎馬者五六人矣. 皇帝着黃麻霞羅黃狍皮周衣, 乘馬自執轡而過. 顔色黃潤, 隆準長頤, 鬚髮稀少, 春秋六十八, 而無隆老之氣, 骨格清瘦, 滿腔溫和之像. 三使臣及從人, 一齊跪坐仰瞻, 則皇帝回顧, 若有意而行矣. 此行與他時有異, 故使行次, 卽爲還館.

새벽에 지영소(祗迎所)에 나아가니 황성에서부터 파발군(擺撥軍)이 길에 줄지어 있었다. 공경이나 재상은 사인교(四人轎, 4인이 메는 가마)를 타거나 한림거(翰林車)를 타고 혹은 말을 타기도 하였으며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바닥을 쓰는 군사들이 연이어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말이 똥을 바닥에 싸놓으면 곧 깨끗하게 청소했다. 각 동의 입구에는 무명(白木) 휘장을 드리워 잡인이 들어오는 것을 일절 금했다. 우리들도 관복을 입었으며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천막 안까지 쫓겨 들어갔다. 잠시 후 앞뒤에 조정의 신하 30 - 40인이 수행하고 뒤에는 장검을 차고 말을 타고 있는 자 5 - 6인이 보였다. 황제는 황금 마하락(麻霞羅, 관모의 일종)와 황금빛이 도는 새끼 돼지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周衣)를 입고 말에 올라 직접 고삐를 잡은 채 지나갔다. 얼굴빛은 황금빛으로 윤이 나고 콧대가 우뚝하며 턱이 길고 수염이 적었다. 춘추가 68세였으나 노인의 쇠한 기운이 없고 골격은 살집이 없이 말랐으며 가슴 가득히 온화함을 품은 듯한 모습이었다. 세 사신과 종인들이 나란히 꿇어 앉아 우러러 바라보니 황제가 죽 돌아보고 생각하는 듯하며 지나갔다. 이 행차는 어느 때와 달랐으므로 사행의 행차 일행은 곧 숙소로 돌아왔다.

余與四五人，爲看西山勝景，迂路西行，行五里許，至文昌閣，卽萬歲山初入之路也。山之最高頂，有三層黃屋，自中層至下層，附以高樓曲臺，其架疊重複之狀，不可一一指數。山勢窈窕陂陀，西屬西山，一名香山。其前大江橫流，卽昆明湖也。湖中有小島，島上黃鶴，世稱西山絕景，此湖乃黃河水引入者也。湖邊山西山北奇形樓臺，不可勝數。西南有十七橋，築玉爲虹門，門之數凡十七，故名之。十七橋之頂，有樓閣，樓東曰偃虹，西曰流蜨，北曰洞庭留賞，南曰天遊，又曰望蟾閣，曲欄複道，橫亘左右，且疊石爲窟，隆然深曲。入其窟，北有小石門，門外遍是江。縱目一望，玉泉之塔，萬壽之瓦，如²案，峯峯奇樹，谷谷層臺，蕩洋於空碧之中，但二山無晴嵐爽氣，可知人巧不如天作之眞也。沿江十餘里，無非垂楊彩楹，可謂五步一樓，十步一閣，皇帝自五龍橋幸西山時，放舟經過之所也。又有萬壽寺，未暇閱覽，而門上曰萬壽樓，樓

後二層黃屋, 曰潛心面辟, 又曰功德無邊, 東有二層高樓, 曰無量壽, 此寺之雄傑奇巧, 與東岳廟萬佛寺相等云. 自皇城至海甸之路, 丐乞嫗穉, 焚萬壽香一炷, 納于車前而請一文.

나와 4 - 5인은 서산의 승경을 바라보며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5리쯤 가서 문창각(文昌閣)에 이르렀으니 만세산(萬歲山)의 초입 길이다.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3층으로 된 황옥(黃屋)이 있었다. 가운데층부터 아래층까지 고루(高樓)와 곡대(曲臺)를 붙여 두었으며 그 겹겹이 쌓아 입힌 골조를 일일이 셀 수 없었다. 산의 형세가 그윽하고 험준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서산에 속해 있고 향산(香山)이라고도 한다. 그 앞에는 큰 강이 가로질러 흐르니 곧 곤명호(昆明湖)이다. 호수 중앙에는 작은 섬이 있고 섬 위에는 황학루(黃鶴樓)가 있으며 세간에서는 '서산절경(西山絕景)'이라고 일컫는다. 이 호수는 황하의 물을 끌어온 것이며 호숫가 산 서쪽과 산 북쪽에는 기이한 형태의 누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서남쪽에는 십칠교(十七橋)가 있는데 옥을 쌓아 홍문(虹門)을 만들었으며 문의 수가 17개이므로 이름을 십칠교라고 지은 것이다. 십칠교의 꼭대기에는 누각이 있으며 동쪽 누각은 '언홍(偃虹)', 서쪽 누각은 '유동(流蠓)', 북쪽 누각은 '동정유상(洞庭留賞)' 남쪽 누각은 '천유(天遊)' 또는 '망섬각(望蟾閣)'이라고 한다. 누각은 굴곡진 난간과 몇겹의 길이 가로지르고 있다. 또 돌을 첩첩이 쌓아서 굴을 만들었는데 우뚝 솟고 깊게 굽어 있었다. 그 굴에 들어가면 북쪽에 작은 돌문이 있고 문 밖에는 이 강이 둘러 있다. 눈이 닿는 대로 바라보니 옥천(玉泉)의 탑과 만수(萬壽)의 기와는 마치 궤안(几案) 같았고 봉우리마다 기이한 나무요, 골짜기마다 층층 누대가 푸른 창공 안에서 일렁이는 듯했다. 다만 두 산은 맑은 날의 산 아지랑이와 청량한 산기운이 없으니 사람이 인공적으로 지은 것은 하늘이 만든 천진함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을 따라 10여리를 가면 버드나무가 드리우고 색색의 기둥이 아닌 곳이 없으며 다섯 보마다 누대요, 열 보마다 누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곳은 황제가 오룡교(五龍橋)로부터 서산(西山)으로 행차할 때 배를 띄워 지나는 곳이다. 또 만수사(萬壽寺)가 있었으나 관람할 겨를이 없었다. 문 위에는 '만수루(萬壽

樓)'라고 적혀있고 만수루 뒤 2층 황옥(黃屋)에는 '잠심면벽(潛心面辟)', '공덕무변(功德無邊)'이라고 적혀있다. 동쪽으로는 무량수(無量壽) 불전라는 2층의 높은 누대가 있다. 이 절은 웅결하고 정교하여 동악묘(東岳廟)의 만불사(萬佛寺)와 서로 견줄만하다고 한다. 황성으로부터 해전(海甸)에 이르니 길에 구걸하는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만수향(萬壽香) 1개에 불을 붙여 수레 앞에 내밀면서 1푼(文)을 달라고 청했다.

1. 綱 : *綱 ←

2. 兀 : *兀 ←

十月 10월



二日 2일

十月二日. 禮部公文到曰, 天子自海甸離發幸, 皇城預待, 宮門候駕, 祇迎仰瞻, 仍爲下直云云.

10월 2일. 예부에서 공문이 도착하여 '천자가 해전(海甸)을 떠나 행차할 때 황성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궁문에 어가가 지나가면 공경(恭敬)하여 맞이하고 우러러 뵈 후 하직 인사를 드리도록 하라.'하였다.



三日 3일

三日. 鷄鳴時, 歷東安門、東華門, 行一里餘, 有大紅門, 入其門百餘步, 有碑, 書曰, 王以下官民等以上, 皆下馬. 東有一峰, 聳然立林藪之間, 上有三層閣, 扁曰廣寒, 乃萬壽山也, 崇禎皇帝殉社稷之所也. 至堆雲門, 有一白塔, 高不知幾十丈, 其下即永安寺也. 未及寺數百步, 有石橋, 橋兩邊江水浩大, 盖引通州之江水, 流入宮牆. 皇帝幸西山時, 乘龍舟, 由此橋而行也. 夾岸皆是疎松細柳, 滿江無非層樓畫閣. 夾路數百餘步, 檀香成林, 林畔即太液池. 池西南, 有二層高樓, 扁曰紫光閣. 黃瓦碧甍紋簾繡桷之壯麗, 與太和殿, 相爲上下.

3일. 닭이 울 때 동안문(東安門)、동화문(東華門)을 지나 1리쯤 가니 대홍문(大紅門)이 있었다. 그 문으로 백여 보쯤 들어가니 비석에 '왕 이하 백관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말에서 내리시오'라고 써 있었다. 동쪽에는 봉우리 하나가 우뚝하니 산림과 연못 사이에 서 있고 위쪽으로는 '광한(廣寒)'이라고 편액되어 있는 3층 누각이 있으니 곧 만수산(萬壽山)이다. 송정 황제(崇禎皇帝, 명나라 의종)가 사직을 위해 순직한 곳이다. 퇴운문(堆雲門)에 이르니 백담(白塔) 하나가 있는데 높이가 몇 십장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아래는 영안사(永安寺)이다. 절에 닿기 수백보 앞에 석교(石橋)가 있고 다리 양쪽 강물이 넓고 크게 흐르고 있었는데 아마 통주(通州)의 강물을 끌어와 궁의 담 안으로 유입시킨 것이다. 황제가 서산(西山)에 행차할 때 용주(龍舟, 황제의 선박)를 타고 이 다리 아래로 지나간다. 강기슭은 모두 성긴 소나무 사이로 가느다란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고 강 가득히 화려한 누각이 없는 곳이 없다. 길을 따라 수백보를 가면 단향목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숲 가장자리는 태액지(太液池)¹이다. 태액지 서남쪽에는 2층의 높은 누대가 있고 '자광각(紫光閣)'이라고 편액되어 있다. 황색기와, 푸른 용마루, 무늬 새긴 주렴, 수놓은 기둥이 장엄하고 화려하여 태화전(太和殿)과 상하를 견줄만하였다.

歷福華門、陽澤門，行一里餘，至萬佛寺，自第三層屋至第一層，凡一百二十三級，佛之數曰萬者，舉大數而言也。上峯有極樂世界，而山路崎嶇紆迴，登此者幾希，神將奇鬼，散立巖間。板上題性根成海云，而未及閱覽。自此東行數十步，翼然有臨水之亭，一曰浮翠亭，二曰湧瑞亭，三曰龍澤亭，四曰澄祥亭，五曰滋香亭，橋道之屈曲蜿蜒，若龍之矯矯然，合以名之曰五龍亭。至玉螭橋，橋甚廣闊，皆以玉爲欄，東望而樓臺，不可勝記，西望而五龍之逶迤，萬佛之崢嶸，俱在鏡中蕩漾浮動，若古所謂蓬²仙子之居焉。行幾十里許，至西直門內，三使臣及從人，安寓於南便店舍。

복화문(福華門)과 양택문(陽澤門)을 지나 1리쯤 가서 만불사(萬佛寺)에 이르렀다. 제 3층부터 제 1층까지 123계단이 있다. 불상의 수를 만(萬)이라고 한 것은 큰 숫자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상봉(上峯)에는 극락세계 같은 풍경이 있으나 산길이 험준하고 구불구불 돌아야 하므로 이곳까지 올라온 이는 거의 없다. 신령스러운 장수와 기괴한 귀신들이 바위틈에 흩어져 있는 듯 했다. 현판에는 '성근성해(性根成海)'라고 쓰여 있다고 하나 열람은 하지 못하였다. 동쪽으로부터 수십 보를 가면 나는 듯이 물에 임하고 있는 정자가 있다. 첫 번째가 부취정(浮翠亭), 두 번째가 용서정(湧瑞亭), 세 번째가 용택정(龍澤亭), 네 번째가 징상정(澄祥亭), 다섯 번째가 자향정(滋香亭)으로 이어진 다리가 구불구불하여 마치 용이 용맹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으므로 다섯 정자를 합하여 오룡정(五龍亭)이라고 한다. 옥동교(玉螭橋)에 이르렀다. 옥동교는 매우 광활하며 모두 옥으로 난간을 만들었다. 동쪽으로 누대가 바라다 보이는 광경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고 서쪽으로는 오룡정이 꿈틀거린다. 만불사는 높고 험준하여 모두 거울 속을 떠다니며 넘실대는 듯하니 마치 옛날 선인(仙人)이 살다고 하는 봉래산(蓬萊山)이나 영주산(瀛洲山) 같았다. 몇 십리쯤 가서 서직문(西直門) 안에 이르렀다. 세 사신과 종인(從人)들은 남쪽의 주막에서 묵기로 했다.

至平明，始覺飢寒，故使文点釧，買扁矢一椀，乘熱頓喫後，遂出路邊。往來之轎車，掃地之軍卒，一如海甸幸行時，有騎馬而負黃袱裹者，有覆黃袱而書御茶房，二人舁而去者，或有宦官先詣者。頃之，皇帝之行將近，通官引使臣，排立祇迎所。禮部侍郎先至，相揖於首堂，方同知禹叙，又相揖於上使大臣，仍立於路邊矣。少頃，騎馬軍橫

持長劔者數十人, 前導, 其前張黃涼傘層層, 皆以金絲龍紋作繡, 皇帝乘黃屋輦, 左右窓附琉璃, 後陪朝臣數十人, 後有鳳尾扇一雙矣. 此時使臣及從官, 皆跪坐仰瞻皇帝俯右, 出視琉璃窓曰, 歸告國王平安. 使臣及從官, 皆叩頭而退. 禮部侍郎纔過皇帝之後, 遂揮鞭上馬而隨駕矣.

다음날 새벽녘에 추위와 배고픔이 느껴지자 문점쇠(文点釧)를 시켜 편시(扁矢) 1사발을 사오게 하여 뜨거울 때 단번에 마신 후 길가로 나갔다. 가마와 수레가 왕래하고 군졸들이 바닥을 쓰는 것이 해전(海甸)의 행차 때와 똑같았다. 말을 탄 채 황색 보따리를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 황색 보자기에 '어다방(御茶房)'이라고 써서 덮은 것을 두 사람이 함께 이고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환관도 있었다. 이윽고 황제의 행차가 가까워 오자 관원들이 사신(使臣)을 이끌고 지영소(祗迎所)에 줄지어 섰다. 예부시랑이 먼저 이르러 수당(首堂)과 서로 읍하였다. 동지(同知) 방우서(方禹叙) 또한 상사(上使)와 대신(大臣)들과 서로 읍한 후 길가에 섰다. 잠시 후 장검을 가로 잡은 수십 명의 기마군이 앞에서 인도하였다. 그 앞에는 황량산(黃凉傘)을 겹겹이 펼쳐 놓았는데 금실로 용무늬를 수놓아 만든 것이었다. 황제가 올라 탄 황옥교(黃屋輦)는 좌우에 유리창을 붙였고 그 뒤로 조정의 신하 수십 명이 수행하였다. 그 뒤에는 봉미선(鳳尾扇) 1쌍이 따랐다. 이 때 사신과 종관(從官)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우러러 보니 황제가 몸을 우측으로 구부려 유리창을 통해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거든 국왕에게 평안한지 고하라."고 하였다. 사신과 종관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났다. 예부시랑이 그제야 황제의 뒤를 따라 지나가니 이윽고 군사들도 말에 올라 채찍을 잡고 여가를 따랐다.

1. 태액지(太液池) : 紫光閣位於中海西岸,也就是古稱太液池之濱 ←

2. : *瀛 ←



五日 5일

五日. 三使臣詣闕受賞, 行五里許, 入宮之夾門, 此是大清門內天安門外. 廣庭皆鋪以磚石, 左邊夾以御溝. 正路有五玉橋七虹門, 俱極壯麗, 橋側二獅子蹲伏左右, 若開口鼓齒者然. 行五十餘步, 卽天安門, 門內有二玉柱, 對立雕龍, 若飛騰之狀, 長幾十丈. 左有七廟, 右有太社, 周迴連延, 不知其幾間, 而皆覆以黃瓦. 入第四門, 扁曰端門, 門左右以一字, 各有三門, 合七虹門也. 自門初至門端, 幾爲三十間, 而深邃作穴, 雖日晴而甚黯也. 庭之延袤, 比前庭三有倍焉, 東西相望, 雖相熟之面, 不辨誰某也. 古詩云, '肅肅宮城內, 彤庭赫弘敞', 可謂善形容也. 庭中有三層石, 石上插大輪圖, 蓋測日之石也.

5일. 세 사신이 하사품을 받기 위해 궐에 나아갔다. 5리쯤 가서 궁 옆문으로 들어가니 이곳이 대청문(大清門)의 안이자 천안문(天安門)의 밖이다. 넓은 뜰에는 모두 벽돌이 깔려있고 왼쪽 옆에는 좁게 대궐을 흐르는 수로가 있었다. 중앙의 길에는 5개의 옥교(玉橋)와 7개의 홍예문이 있으며 모두 지극히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다리 옆에는 2마리의 사자상이 좌우로 웅크리고 있었는데 마치 입을 벌리고 이빨로 깨물 듯하였다. 50걸음쯤 걸어 들어가니 천안문이었다. 문 안쪽에는 2개의 옥기둥이 있었는데 마주보는 용을 새겨놓은 것이 마치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형상으로 길이가 거의 10장이나 되었다. 왼쪽에는 칠묘(七廟)가 있고 오른쪽에는 태사(太社)가 있으며 그 주위를 둘러 건물이 연달아 있는데 몇 칸이나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모두 금빛 기와로 덮여 있었다. 네번째 문에 들어서니 '단문(端門)'이라고 편액되어 있으며 문 좌우에 각 3개씩 일자로 문이 있으니 합하여 7개의 홍예문이다. 첫 번째 문부터 끝에 있는 문까지 거의 30칸쯤 되어 길게 구멍처럼 뚫려있어 맑은 날에도 심히 어두웠다. 뜰의 면적은 이전의 뜰과 비교하여 3배나 되는 듯했는데 동서로 서로 바라보면 비록 익숙한 얼굴이라도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옛 시에 '궁성의 안은 엄숙

하고, 궁궐의 뜰은 넓고 흰하네.〔肅肅宮城內, 彤庭赫弘敞〕'라고 하였으니 이 모습을 잘 형용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뜰 안에는 삼층석이 있고 돌 위에는 큰 바퀴모양을 그린 것을 끼워 두었는데 아마 해를 관측하는 돌인 것 같다.

第五門, 扁曰午門, 此亦七虹門也. 門兩邊屬高樓五座, 摠以名之曰五鳳樓, 紋窓、繡檻、碧瓦、黃牆, 插入雲漢. 門外立一大碑, 書曰, 官員人等, 皆至此下馬. 碑內外刻清書、漢書、蒙書、蕃書、回回書, 字樣皆奇怪不同. 蓋諸國人至此, 見此書, 皆下馬之意也. 碑西疊石爲兩堤, 堤間引入通州江水, 是種蓮處也. 暫留於西廊, 既已通官引三使臣, 至午門外, 鴻臚官對立左右, 高聲一唱, 其聲響寥亮, 如我國之引儀也. 通官進使家傍, 告曰, 此聲是興拜叩頭之節次也, 皆行禮後跪坐地上.〔雖雨雪不得布拜席.〕通官輩奉綵緞、黃囊、銀、貂、白馬, 向使家前, 此則皇帝賜送殿下之物也. 又以雜綵及銀子馬一雙, 次第置三使前, 兼給象胥、醫、寫、諸人. 每人前各賞賜, 緞鷺、芳紬各一疋, 銀子二十兩. 奴賞銀五兩、水靴、氈襪各一件. 恭受訖, 鴻臚官依前高唱而, 又拜叩. 蓋初叩始見之禮, 後叩謝其賜也. 朝士之往來於殿庭者, 服飾皆極侈麗, 麻霞子插雕銀塗采之頂子, 或插珊瑚瑪瑙等. 上層覆以象毛向風飄飄. 附白鶴胸背, 項垂念珠, 領上加繡, 領庇於兩肩, 章服之緣, 以金絲繡龍紋, 着貢緞靴子.

제 5문에는 '오문(午門)'이라고 편액되어 있으며 이곳 역시 7개의 홍예문으로 되어 있다. 문가 양쪽에는 높은 누대가 5좌(座)가 속해 있으며 총칭하여 오봉루(五鳳樓)라고 한다. 무늬 새긴 창문, 수놓은 듯한 난간, 푸른 기와, 황금빛 담장이 하늘을 뚫을 듯하다. 문 밖에는 큰 비석 하나가 서 있고 '관원들은 모두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시오'라고 써 있다. 비석 안팎으로 만주어, 한문, 몽고어, 페르시아어, 아라비아어로 새겨 두었는데 글자의 모양이 모두 기괴하고 다르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곳에 이르면 이 글을 보고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뜻일 것이다. 비석 서쪽에는 돌을 쌓아서 양쪽에 제방을 만들고 제방 사이에는 통주(通州)의 강물을 끌어들었으며 이곳에 연꽃을 심어 두었다. 잠시 서랑(西廊)에 머물렀다가 이윽고 통관(通官)이 세 사신을 인도하여 오문(午門) 밖에 이르렀다. 홍려관(鴻臚官)이 좌우로 마주서서 높은 목소리로 한번 호창

하였는데 그 소리가 맑고 쟁쟁하여 우리나라의 인의(引儀)¹ 같았다. 통관이 사신의 곁에 나아가 이르기를 "이 소리는 흥배(興拜)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절차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니 모두 예를 행하고 나서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비록 비나 눈이 와도 절하는 자리에 천을 깔 수 없다.〕통관의 무리가 채단(綵緞)·황낭(黃囊)·은·초피·백마를 받들고 사신 앞으로 향하였는데 이는 황제가 전하(殿下)에게 하사하여 보내는 물품이다. 또 여러 비단과 은자(銀子)와 말 1쌍을 차례대로 세 사신 앞에 두고 겸하여 역관·의관·사서 등 여러 사람에게 주었다. 사람마다 앞에 각각 상으로 단로(緞鷲)·방수(芳綃) 각 1필, 은자 20냥을 주었다. 노비에게는 상으로 은자 5냥과 장화와 털버선을 각 1개씩 주었다. 공손히 받기를 마치니 홍로관이 앞서 했던 대로 높은 소리로 호창하기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였다. 아마 시작할 때는 처음 뵈는 예로써 절한 것이고 뒤에는 하사한 것에 대한 감사로써 절한 것 같다. 정전(殿庭)을 드나들 때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복식이 모두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답다. 마하자(麻霞子)²에는 은을 깎아 채색한 것을 정수리에 꽂거나 산호(珊瑚)나 마노(瑪瑙) 등을 꽂고 꼭대기에 상모(象毛, 모자 끝에 꽂는 깃털)를 달았는데 바람을 맞으면 흔들린다. 가슴에는 흰 학 모양의 흥배를 붙이고 목에는 구슬 꾸러미를 걸고 옷깃 위에는 수를 놓아 양 어깨를 감싼다. 장복(章服)의 가장자리에는 금색실로 용무늬를 수놓고 공단(貢緞)으로 된 신발을 신는다.

¹. 인의(引儀) : 통례원에 속하여 의식에서 식순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

². 마하자(麻霞子) : 마하라(麻霞羅). 마하라는 일종의 관모(官帽)로 꼭대기 부분에 달아놓은 것(頂子)으로 벼슬의 높낮음을 가리켰다. 청동석(靑銅石)이 첫째로 높은 품계이며, 그 다음이 산호인데 산호에도 등분이 있어 조각한 것이 조각하지 않은 것의 밑에 들며, 또 그 다음이 옥이며, 은이며, 금은 가장 낮은 품계다. ※김정중. 《연행록·奇遊錄·雜錄·十六日》 참조. 한국고전종합DB



七日 7일

七日. 自禮部送宴床于館所, 此是使臣入燕之後, 設宴於禮部而待之, 卽例也, 而今當國恤, 豈可進宴. 讓而不進其宴, 以校子床餅果雜糖等置於鑰, 有足牒匙, 餅器上又加餅器, 果器上又加果器, 最上置一条猪脚, 其餅不堪喫也. 每一床上下, 銀子三使臣則十兩式, 從官則五兩式云. 從官之床未及, 入於坑中, 而無賴之輩, 隨入亂獲, 極其撓亂, 通官輩亦不能禁止, 未知風俗不能整肅而然, 或侮我人而然也.

7일. 예부에서 남관으로 잔칫상을 보내왔다. 사신이 연경에 들어온 후에 예부에서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는 것이 관례이나 지금은 국상(國恤)이 있으므로 어찌 잔치에 나아가겠는가. 그러므로 사양하고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으니 늦그릇에 떡과 과일, 여러 사탕 등을 담아 교자상을 차려준 것이다. 다리가 있는 접시에는 떡그릇 위에 또 떡그릇을 올리고, 과일그릇 위에 또 과일그릇을 올린 후 제일 위에는 돼지다리 1개를 놓아두었으므로 그 떡은 먹을 수 없었다. 상(床)마다 등급이 있어 은자(銀子)로 세 사신의 상은 10냥짜리이고, 종관(從官)의 상은 3냥짜리라고 하였다. 종관의 교자상이 아직 오지 않아 온돌에 들어갔는데 무뢰배들이 따라 들어와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고 심하게 소란을 일으켰다. 통관들 또한 무뢰배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었는데 풍속이 정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업신여겨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十六 16일

十六日. 納方物. 由東夾門迂迴, 至五六百步, 南有青瓦門屏, 其後有兩殿閣, 左右三門垂青簾, 甚崔嵬雄壯. 門卒各五六人, 踞於卓上, 門側有青屋轎. 問青殿之名, 乃皇子所居也. 東至左翼門, 門外軍卒, 弓矢垂掛於繩上而守直, 紙布席子等, 使彼人給雇, 舁入於門外, 安稅. 頃之, 乃舁入庫, 遂隨入, 卽午門內太和殿也. 牆殿之薨, 色似黃金, 照夕陽益玲瓏也. 五層玉欄干, 月臺上殿閣之廣闊崔嵬, 不可名狀, 左右置烏銅篆爐, 乃焚沈香之爐也. 兩邊立白玉大鶴一雙, 月臺下蹲伏玉獅子一雙. 月臺正路, 覆玉雕龍, 若偃伏遊動之狀. 門內左右, 立雕龍玉柱, 自月臺正路至午門, 內覆以玉, 左右夾路, 自正一品至從九品, 立品銅制作, 上尖下廣, 腹圓中空, 如帽子樣. 東西月廊, 相去迂遠, 望之熹微. 軍卒開封鑰, 紙物納于西庫, 席子納于南右庫, 其餘亦未詳記. 其後中和殿, 又其後保和殿.

16일. 방물(方物)을 헌납하였다. 동쪽 협문을 끼고 돌아 5 - 6백보를 가니 남쪽에 푸른 기와의 문병(門屏)이 있고 그 뒤편으로 두 전각(殿閣)이 있었다. 좌우 3개의 문에는 푸른 주렴을 늘어뜨렸으며 매우 높고 웅장하였다. 문졸 5 - 6명이 탁상에 걸터앉아 있었으며 문 앞에는 청옥교(靑屋轎, 가마의 일종)가 있었다. 푸른 기와로 된 건물의 명칭을 물으니 황태자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다. 동쪽으로 좌익문(左翼門)에 이르자 문 밖에 군졸들이 화살을 활 시위에 걸어 드리운 채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바칠 종이 · 벼 · 화문석 등을 저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문 밖에서부터 메고 오게 하면 편하다. 잠시 후 그들이 메고 창고로 들어 갔는데 따라 들어가니 바로 오문(午門) 안의 태화전(太和殿)이었다. 담과 전각의 기와는 색이 황금 같았으며 석양이 비추니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다섯 층의 옥난간과 월대(月臺) 위 전각은 광활하고 우뚝하여 그 모습을 형용할 수 없었다. 좌우에는 구리에 까마귀를 새겨 넣은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침향(沈香)을 태우는 화로이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백옥(白玉, 대리석)으로 만든 큰 학 1쌍을 세워 두었고 월대 아래에는 옥으로 된 사자 1쌍이 웅크리고 있

다. 월대의 정로(正路)에는 옥을 깔아 용을 조각했는데 마치 편히 누워 자유롭게 노니는 듯한 형상을 새겨두었다. 문안 좌우에는 용을 새긴 옥기둥이 세워져 있고 월대의 정로에서 오문까지 옥을 깔아 두었다. 좌우 협로에는 정일품(正一品)에서 종구품(從九品)에 이르기까지의 품계를 구리로 제작하여 세워 놓았는데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넓으며 배처럼 둥글게 안은 비어있어 모자 같은 형상이다. 동쪽과 서쪽의 월랑은 서로의 거리가 멀어 바라보면 희미하게 보일 정도이다. 군졸들이 봉하여 둔 자물쇠를 열어 지물(紙物)은 서쪽 창고에 넣고 화문석은 남쪽 오른편 창고에 넣었으며 그 나머지는 역시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태화전 뒤편은 중화전(中和殿)이고 또 그 뒤편은 보화전(保和殿)이다.

附錄 부록



太學 태학

北行五里許, 路過柴肆¹. 古宋丞相文山, 死節之所也. 叢祠、妖剝, 無非金瓦繡戶. 轉向北門, 至成賢街牌樓, 此是入學之正路也. 歷國子監, 入持敬門, 門內有致齋所, 又有神廚神庫. 庭廣二百餘步, 左右碑立者一百四十有二, 皆進士題名石也. 詣大成門, 其門置新石鼓, 一碑刻韓文公石鼓歌. 其內左右, 置古石鼓, 各五箇, 長十圍, 廣一抱. 一鼓半存, 中空如臼, 尤可奇也. 殿之左右以配四聖, 其側有十哲之位, 而冉氏朱文公, 亦在其間, 凡十二也. 以棕櫚皮織席, 廣鋪甃上, 卓子上惟銅器五坐而已. 殿廡東西, 不知其幾賢之位, 而蓋如我東所制. 仍向辟雍. 東西有四廳六堂. 北有一室, 揭三板, 一曰彝倫堂, 二曰文行忠信, 三曰福疇攸叙. 南一牌樓, 內書學海節觀, 外書圓橋教澤. 中有二層黃屋, 是辟雍也. 石橋下壁水之, 西畔有老槐, 圍以石牆. 世傳許魯齋手種也. 槐之去今五百有餘載, 朽死久矣. 乾隆甲午, 有二枝從根中出來, 鬱鬱相持, 若扶護老樹者然, 人或謂文明之兆也. 又有五華宮康熙院堂也, 而有蒙古僧云. 又有雍和門, 其制度亦壯麗云矣.

북쪽으로 5리쯤 가다가 길에서 시사(柴肆)를 지났다. 옛 송나라 승상 문산(文山, 문천상 文天祥)이 절개를 지키다 죽은 곳이다. 잡된 사당과 요망한 사찰은 모두 금빛 기와와 수놓은 문으로 되어 있었다. 북문으로 방향을 돌려 성현가(成賢街) 패루에 이르니 여기가 태학에 들어가는 정로(正路)였다. 국자감(國子監)을 지나 지경문(持敬門)으로 들어서니 문 안에 치재소(致齋所)가 있고 또 신주(神廚, 제물을 마련하는 곳)와 신고(神庫, 제수를 보관하는 곳)가 있다. 뜰은 너비가 200여보쯤 되며 좌우로 세워둔 비석은 142개로 모두 진사의 이름을 적어둔 비석이다. 대성문(大成門)에 나아가니 그 문에는 새 석고(石鼓)를 설치해 두었으며 비석 하나에는 한문공(韓文公, 한유)의 〈석고가(石鼓歌)〉를 새겨 놓았다. 그 안쪽에는 좌우로 옛 석고(古石鼓)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5개로 길이가 10위(圍)이고 너비가 1포(抱)였다. 옛 석고 하나는 반만 남은 채로 절구처럼 가운데가 비어있어 더욱 기이하였다. 대성전 좌우에 있는 4성(四聖,

죽 안자·증자·자사·맹자)에게 배향하였다. 그 곁에는 10철(十哲, 즉 안연·민자건·염백우·중궁·재아·자공·염유·자로·자유·자하)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염씨(冉氏)**²와 주문공(朱文公, 주희) 또한 그 사이에 있어 모두 12개였다. 종려나무 껍질로 돛자리를 엮어 벽돌 위에 넓게 깔아 놓았고 탁자 위에는 구리 그릇 5개만 놓여 있다. **전무(殿廡)**³의 동서로 셀 수 없이 많은 현자들의 위패가 있으며 대개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슷하였다. 그후에 벽옹(辟雍)으로 향하였다. 동서로 4개의 청(廳)과 6개의 당(堂)이 있다. 북쪽으로는 집한 채가 있으며 3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륜당(彝倫堂)'이고 두 번째는 '문행충신(文行忠信)'이고 세 번째는 '복주유서(福疇馳鼠)'라고 써 있다. 남쪽으로는 패루 하나가 있으며 안에는 '학해절관(學海節觀)'이라고 써 있고 밖에는 '원교교택(圓橋教澤)'이라고 써 있다. 중앙에는 2층 황금빛 건물이 있으니 이것이 벽옹(辟雍)이다. 석교(石橋) 아래로는 벽수(壁水)가 흐르고 서쪽 물가에 늪은 회화나무가 있으며 돌담으로 에워싸고 있다. 세간에 전하기를 허노재(許魯齋, 허형)가 손수 심은 것이라고 한다. 회화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오백여년 전의 것으로 썩어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건륭 갑오년(1774)에 뿌리로부터 두 개의 줄기가 자라나 울창하게 서로 기대어 마치 늪은 나무를 보호하려고 붙들고 있는 듯하니 사람들이 문덕(文德)이 빛날 징조라고 하였다. 또 강희제(康熙帝)의 원당(院堂) 오화궁(五華宮)이 있으며 몽고인 승려가 말하길 또 웅화문(雍和門)이 있었는데 그 모습 역시 웅장하고 화려하였다고 한다.

1. 柴肆 : 柴市 ※《계산기정》↩

2. 염씨(冉氏) : 김창협의 《연행일기》에는 有子로 되어있다. ※김정중, 《연행록》 주석 ↩

3. 전무(殿廡) : 전당(殿堂)과 행랑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



蘆溝橋 노구교

自正陽門, 行二十里, 出廣寧門, 轉向十餘里, 有一牌樓, 內書經環同軌. 外書蕩平歸極. 又行十里, 至拱極城門, 扁曰威嚴, 出門至百餘步, 有蘆溝, 溝上有石橋, 橋長一百四十三丈, 廣二十餘步, 左右首尾, 石象對蹲, 其間環以石欄, 欄上石獅子羅立, 獅子之數, 凡二百有八十. 傍有四間黃屋, 屋中立御題碑. 凡山東隴右之路, 至此始分, 故天下之車馬, 輻湊而都會, 橋邊有收稅所焉. 西望一山, 逶迤屈曲, 綿亘數百餘里, 卽鞍馬山也. 聞石炭產於此山, 燕人以炭爲利者, 用橐駝驢騾, 載運不絕, 而駝之數十居八九. 燕京八景中, 稱蘆溝曉月者, 藉其石橋之壯觀而然也.

정양문(正陽門)으로부터 20리를 걸어 광녕문(廣寧門)을 나갔다. 방향을 돌려 10여리를 가니 패루가 하나 있었는데 안에는 '경환동궤(經環同軌)'라고 써 있고 밖에는 '탕평귀극(蕩平歸極)'이라고 써 있었다. 또 10리를 가서 공극성(拱極城)에 이르니 문에 '위엄(威嚴)'이라고 편액되어 있었다. 문을 나가 100여보를 가면 노구(蘆溝)가 있다. 노구 위에는 석교(石橋)가 있으며 길이가 143장(丈)이고 너비가 20여 보이다. 다리 좌우 맨 앞과 끝에 코끼리 석상이 마주 웅크리고 있고 그 사이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다. 난간 위에는 사자 석상이 죽 세워져 있으며 모두 280개이다. 그 옆에는 4칸의 황옥(黃屋)이 있고 황옥 안에는 어제비(御題碑)가 세워져 있다. 산동(山東)과 농우(隴右, 농서)의 길은 여기에 이르러 나뉘기 시작하므로 천하의 수레와 말들이 이곳으로 온통 모여든다. 다리 가장자리에는 수세소(收稅所, 세를 거두어들이는 곳)가 있다. 서쪽에 산 하나가 보이는데 구불구불 굴곡이 수백여리를 끝없이 이어지니 즉 안마산(鞍馬山)이다. 들으니 이 산에서 석탄이 생산되는데 석탄으로 이득을 보는 연경 사람들이 낙타·나귀·노새로 끊임없이 실어 나르며 열에 여덟아홉은 낙타라고 한다. 연경팔경(燕京八景) 중 '노구의 새벽달(蘆溝曉月)'이라고 하는 것은 노구교의 장관을 의거하여 말하는 것이다.



風俗 풍속

燕窩湯, 皇帝進御之別膳也. 燕之在海島者, 作窩時, 伺小魚之躍於水上, 輒掠啣來, 曝之一日, 和海邊鹹土, 築壘爲窩, 盖魚之陽氣盛者, 必躍於水云. 每年春夏之交, 掇取其窩, 調以爲湯.

연와탕(燕窩湯)은 황제에게 진상하던 특별한 음식이다. 해도(海島)의 제비는 등지를 틀 때 작은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낚아 물고 와서 햇볕에 하루를 말리고 바닷가의 짠 흙과 섞어서 겹겹이 쌓아 등지를 삼는다. 양기(陽氣)가 왕성한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서 뛰어오른다고 한다. 매년 봄여름이 교차되는 때에 그 등지를 가져다가 조리하여 탕을 만든다.

燕土之俗, 每除夕元霄, 寒食秋夕, 用紙銃逐鬼, 銃聲豪壯, 勝於砲響, 終朝達夜, 陸續不絕. 豪富之家, 紙銃之價, 摠以計之, 則費銀三四百云. 且公候之妻, 卿相之女, 向東岳廟前, 焚香發願. 新歲之奇觀, 爲第一也. 且雖非節日, 留宿之路, 往往放銃也.

연경의 풍속에 매 선달 그믐날 저녁·정월 보름날·한식·추석마다 지총(紙銃)으로 귀신을 쫓는다. 총소리가 크고 웅장하여 대포 소리보다 크며 아침이 다하고 밤이 지나도록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부유한 집에서 쓰는 지총의 값을 모두 합하면 은으로 3-4백 냥은 든다고 한다. 또 공후(公候)의 아내나 경상(卿相)의 딸은 동악묘(東岳廟) 앞을 향해 향을 태우고 소원을 빈다. 새해의 기이한 광경은 이것이 제일이다. 또 비록 명절이 아니더라도 유숙하는 근처의 길에서 종종 지총을 터뜨린다.

構屋之制, 皆以一字無曲, 屋中造堦, 用甃築之, 高尺餘, 長不滿一丈, 其名曰坑. 坑下鋪氈, 必作奇紋, 四壁築甃, 前面都是奇紋完子. 窓用五色金采琉璃. 氈上散置交椅, 其人坐法, 皆箕踞而已. 或依椅上, 或箕坑頭. 盤子皆以唐竹爲機, 以唐紙塗之. 壁上每以紅紙, 書附指日高陞, 或擡頭見喜·位列三台·當朝一品·君子自重.

집을 짓는 형식은 모두 일자형으로 굽은 곳이 없다. 집 안에는 온돌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는데 높이는 1자 정도에 길이는 1장(丈)이 채 안되며 '강(坑)¹'이라고 한다. 온돌 아래에는 벽돌을 깔고 반드시 기이한 문양을 넣는다. 네 벽도 벽돌로 쌓았으며 전면에는 완자 모양의 기이한 문양이 가득하다. 창은 오색에 번쩍이는 유리를 사용했다. 벽돌 위에는 의자를 벌여 놓았으며 이곳 사람들은 앉을 때 모두 두 다리를 뻗고 앉는다. 혹은 의자 위에 기대거나 온돌 끝에 다리를 뻗고 앉는다. 천장은 모두 당죽(唐竹)으로 기틀을 만들고 당지(唐紙)를 바른다. 벽 위에는 매번 홍지(紅紙)로 '지열고승(指日高陞)'·'대두견희(擡頭見喜)'·'위열삼태(位列三台)'·'당조일품(當朝一品)'·'군자자중(君子自重)'라고 붙이기도 한다.

祠堂者, 簇子, 曾祖伯叔之類, 皆列書隨姓氏某公之位, 或主牘安於卓上, 左右掛周聯, 上揭堂號, 卓前列坐鐵香爐、香盒、燭臺等. 鐵壺插萬壽香一束.

사당(祠堂)에는 족자(簇子)에 증조나 백부, 숙부 등에 대해 성씨에 따라 아무 개 공(公)의 신위라고 족 써두고 혹은 위패를 탁상 위에 안치시킨다. 좌우에는 주련을 걸어두고 위에는 당호(堂號)를 걸며 탁상 앞에는 주석향로·향합(香盒)·촛대 등을 벌여 둔다. 주석으로 된 호리병에는 만수향(萬壽香)을 1묶음 꽂아 둔다.

家家坑內龕中, 坐一小金佛, 或坐關帝, 或掛畫像, 亦列坐香爐燭臺等. 或以金銀紙作花樣, 累累連貫, 左右掛之.

집집마다 온돌 안 감실에는 작은 황금 불상 1좌(坐)를 놓거나 관제(關帝)를 놓아 두거나 화상(畫像)을 걸어두고 또한 향로나 촛대 등을 벌여 둔다. 간혹 금색 지나 은색지로 꽃모양을 만들어 겹겹이 연달아 꿰어 좌우에 걸어두기도 한다.

男子削兩額髮及腦後髮, 只留中, 編髮垂後, 下端以黑絲結之, 前視如僧, 後視如童. 母論老兒, 皆着麻霞子, 無冠童之別. 男子多有未娶者, 盖女貴之致也. 五十以前削鬚, 五十以後不削. 一二歲兒亦削髮, 而只留兩頂髮, 結以紅木繩.

남자는 양쪽 이마와 뒤흘의 머리는 깎고 중앙의 머리만 남겨둔다. 머리를 땀아 늘어뜨린 후 하단을 검은 실로 묶으니 앞에서 보면 스님 같고 뒤에서 보면 동자 같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마하자를 쓰며 관례를 올린 사람과 동자의 구별이 없다. 남자는 아직 장가들지 못한 사람이 많았는데 아마 여자가 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50세 이전에는 수염을 깎고 50세 이후에는 깎지 않는다. 1 - 2세 아이 역시 삭발을 하는데 양쪽 정수리의 머리를 남겨두고 붉은 천으로 묶는다.

女子不削而束髮爲髻，粧以首飾，挿彩花一二枝，夏秋間貧者，或挿唐菊花之類。懸耳鐙，指環則左右指各着一環，右腕或着錫環。未嫁女，雖爲髻，有頂路或左右髮作路，以紅木繩結之，編髮垂下。

여자는 머리를 깎지 않고 묶어서 틀어 올리고 머리장식으로 꾸민다. 채화(彩花, 비단을 오려 만든 꽃) 1 - 2개를 꽂는데 여름과 가을에 가난한 사람은 당국화(唐菊花) 같은 꽃을 꽂기도 한다. 귀에는 귀걸이를 달고 가락지는 좌우 손가락에 각 1개씩 끼며 오른쪽 팔에는 간혹 주석 팔찌를 차기도 한다.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는 머리를 틀어 올리더라도 정수리에 가르마를 타거나 머리 양 옆으로 가르마를 타서 붉은 천으로 묶고 땀아서 아래로 늘어뜨린다.

唐女緊束其足，如五六歲小兒，又躡弓鞋行時，欹斜傾側，不能遠步云。

한족 여인은 발을 5 - 6세 소아의 발처럼 단단하게 묶는다. 또 궁혜(弓鞋)를 신고 걸을 때에는 몸을 기우뚱하여 비스듬히 걸으며 멀리까지 걸을 수 없다고 한다.

其俗不潔齒，齒白者鮮，有多食葷菜故穢臭，或有難堪者矣。爪甲多不剪，

그 풍속에 이를 닦지 않아 치아가 하얀 사람이 드물고 냄새가 강한 훈채(葷菜)를 많이 먹어 더럽고 냄새가 나며 간혹 건디기 힘든 경우도 있다. 손톱은 대부분 자르지 않는다.

織錦汲水炊飯等節，皆男子爲之。女子則抱幼兒橫竹長²，遊戲於門內而已。

비단을 짜거나 물을 길거나 밥을 짓는 일은 모두 남자가 한다. 여자는 어린 아이를 안고 긴 담뱃대를 피우며 집안에서 논다.

南草男女老少至於三四歲兒, 無不喫焉. 雖處女佩南草小囊, 囊中必插短竹.

담배는 남녀노소, 3 - 4세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비록 처녀라도 작은 담배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 주머니 속에는 반드시 짧은 대나무 담뱃대를 꽂고 다닌다.

銅器有邦禁, 故器皿代以磁器, 食時用筴不用匙, 或用砂匙.

구리 그릇은 나라에서 금하므로 도자기로 대신한다. 먹을 때는 젓가락을 쓰고 숟가락은 쓰지 않는다. 간혹 사기숟가락을 쓰기도 한다.

男女之同衣袴子, 制作與我東一似, 而同衣周衣等, 無領而以紐四五箇鎖之, 當冬則加領結紐. 男子行纏至於膝上, 繼纓於腰帶之中, 以青紫雜色制着, 而富者綾羅之類, 貧者三升綿布之類. 外着周衣, 長至足跗上, 大帶以黑楮紗類四五尺, 兩端垂於後之左右. 自八九月, 着毛周衣者, 往往有之, 而或隱毛或露毛, 兼連附馬蹄吐手矣. 袴子雖冬不着綿, 而能耐寒外, 着毛周衣故也. 或周衣之上, 加氈³背子⁴者有之.

남녀의 저고리(同衣)와 바지는 제작 방식이 우리나라와 똑같으나 저고리, 두루마기(周衣) 등은 옷깃이 없고 단추 4 - 5개로 잠근다. 겨울에는 옷깃을 달고 단추를 잠근다. 남자의 행전(行纏)은 무릎 위까지 이르고 끈은 요대(腰帶)에 매며 청색과 자주색이 섞인 것을 만들어 착용한다. 부유한 사람은 비단 종류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삼승포로 만든다. 바깥에 입는 두루마기는 길이가 발등 위까지 오고 대대(大帶)는 흑저사(黑楮紗)류로 4 - 5척이며 양쪽 끝을 뒤쪽 좌우로 늘어뜨린다. 8 - 9월부터는 털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종종 있는데 털을 속으로 감추거나 드러내거나 하고 또한 말굽 모양의 손 토시를 덧댄다. 바지는 비록 겨울이라도 솜을 붙이지 않고도 능히 바깥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털두루마기를 입기 때문이다. 간혹 두루마기 위에 털조끼를 덧대어 입는 사람도 있다.

鞋子則靑紅黑白, 皆有之. 兒子女子, 多着繡鞋, 男子多着太史鞋雙鼻鞋, 以三升緞屬, 不用糊附, 甚柔薄, 或臥趾或立趾着之. 冬則多着氈鞋, 而鞋鼻皆長矣.

신발은 청색·홍색·흑색·백색이 모두 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놓은 신을 많이 신고 남자는 태사혜(太史鞋)나 쌍비혜(雙鼻鞋)를 많이 신는다. 삼승포 종류로 만드는데 풀을 먹이지 않으므로 매우 부드럽고 얇아서 발을 눕히거나 세워서 신는다. 겨울에는 털신발을 많이 신으며 신발의 앞코는 모두 길다.

女子多着草綠袴子, 外着大袖長裙. 貧者靑黑綿布等制着, 其貌甚不美. 富者制以靑紅緞, 其上下縐作紋繡着之, 極爲美麗. 靑年女子塗粉粧飾之規, 自柵至燕同然. 衾枕亦皆以靑黑色花布等爲之. 衣服前後之廣, 皆偉活.

여자는 대부분 초록바지를 입고 겹에는 소매가 넓고 긴 치마를 입는다. 가난한 사람은 청색이나 흑색 면포 등으로 제작하여 입는데 그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다. 부자들은 청색이나 홍색 비단으로 만들며 그 위아래에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입으니 지극히 곱고 아름답다. 젊은 여자들이 분을 바르고 단장하여 꾸미는 법도가 있는데 책문에서부터 연경까지 모두 똑같다. 이불과 베개는 모두 청색이나 흑색의 꽃무늬 천 등으로 짓는다. 옷의 앞뒤 너비는 모두 크고 넓다.

皇城之內, 盛粧女子, 乘太平車, 不垂面帳或追從, 女子憑軾而行, 此是朝士家婦人之類也云.⁵

황성의 안에는 화려하게 단장한 여자들이 태평거에 타고 가는데 면장을 드리우지 않으므로 간혹 종인이 따르기도 한다. 여자는 수레에 기대어 가는데 이들은 조정 신하들의 부인들이라고 한다.

村店家食法. 校子床頭, 四五人環以食之, 或箕坐於校椅. 食時初進一鑊壺酒蔥蒜苦草醬等, 則連飲四五杯後〔其杯似烟臺筒矣〕, 又進一甫飯粉菜〔卽白麪和猪菰而烹者〕煎餅, 菰湯則俟盡喫. 又一甫飯猪肉豆腐煎等, 連續如是進, 以飽爲度. 其飯則烹以搜之篩以去水, 其鼎無鉄盖, 以唐竹木作盖覆之.

촌점가 식사법. 교자상에 4 - 5인이 둘러 앉아 먹거나 혹은 의자에 다리를 뻗고 앉는다. 먹을 때에는 처음에는 주식 술병에 술과 파·마늘·고추·간장 등을 넣고 4 - 5잔을 연거푸 마신 후에(그 잔은 담뱃대 통과 비슷하다), 또 밥 한 그릇에 분채(粉菜)(국수에 돼지고기와 배추를 섞어서 끓인 것)와 전병을 먹는다. 배춧국은 다 먹은 후에 마신다. 또 밥 그릇에 돼지고기와 두부조림 등을 먹는다. 연속해서 이와 같이 먹기를 배부를 때까지 한다. 그 밥은 끓여서 체로 물을 걸러내고 모은 것으로 그 술에는 술뚜껑이 없고 당죽목(唐竹木)으로 뚜껑을 만들어 덮어 두었다.

母論老兒, 皆着腹袱, 制以四方, 一方繼紐, 兩方繼纓, 以方橫着於胸腹之間, 以纓掛項, 垂胸而合紐, 左右兩方之纓, 環而結腰. 如此則自兒時, 似無腹疾, 甚有理也.

노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모두 배보자기(腹袱)를 착용한다. 모양은 사각형으로 한쪽 모에는 단추를 달고, 두 모에는 끈에 맨다. 한쪽 모가 가슴과 배 사이에 오도록 배보자기를 가로로 맨다. 끈을 목에 걸고 가슴쪽에 드리워 단추에 낀다. 좌우 모서리의 끈은 몸통을 빙 둘러 허리에 묶는다. 이와 같이 하면 어릴 때부터 배에 병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니 매우 일리가 있다.

雖夏熱之時, 無布苧之衣, 但以三升綿布緞屬等, 單衣着之云.

비록 여름철 더울 때에도 베옷이나 모시옷은 없다. 다만 삼승면포(三升綿布), 비단류 등을 홑겹으로 입는다고 한다.

無砧衣之法, 而衣服傷垢, 則賣於衣肆, 而買着新衣, 或新制着之.

옷을 빠는 법이 없다. 의복이 상하거나 때가 묻으면 옷가게에 팔고 새 옷을 사서 입거나 새로 지어서 입는다.

〔無樑屋〕, 自閭陽驛至燕京, 往往有之. 屋制或五七樑, 平如大盤, 以海邊鹹土和白灰塗之. 其上雖無苫蓋, 經歲風雪, 少無壞漏之處.

대들보가 없는 집이 여양역(閭陽驛)에서부터 연경까지 종종 있다. 집은 간혹 5 - 7개의 들보만으로 짓기도 하는데 평평한 것이 큰 접시 같고 해변의 짠 흙을 흰 재와 섞어서 바른다. 그 위에 비록 이엉 지붕이 없지만 해마다 바람과 눈을 겪어도 조금도 무너지거나 새는 곳이 없다.

村舍中草家, 往往有之, 而盖以葛竹, 其盖法甚奇異. 皇城則一無草家矣.

촌가에는 초가집이 종종 있다. 지붕은 축죽(葛竹)으로 만들며 그 지붕을 이는 법이 심히 기이하다. 황성(皇城)에는 초가집이 하나도 없다.

門屏之制. 或有門外, 或有門內, 而塗灰之面, 或作奇紋, 或刻壽福字.

문병(門屏)을 짓는 법. 문 밖이나 안에 두며 회를 바른 면에는 기이한 무늬를 그리거나 '수복(壽福)'이라는 글자를 새긴다.

朝士家, 則內門屏, 印書吏部兵部翰林等職, 隨經逐条列付, 大門外, 長印禮部工部刑部太醫欽天監等職, 禁止喧嘩, 不得偃臥等話, 付於左右, 又門壁印付如作故違四字、定行送究四字, 並朱圈. 門上揭文魁武魁進士第, 各稱其出身. 烈女家, 冰清玉潔, 松心竹節等文字, 塗金揭於外壁上, 又有孝子烈女石門, 立於路邊.

조정 신하의 집에서는 안쪽 문병(門屏)에 이부(吏部)·병부(兵部)·한림(翰林) 등 관직을 새겨 놓고 경력에 따라 한 조목씩 줄지어 붙여 두었다. 대문 밖 문병에는 장인(長印)·예부(禮部)·공부(工部)·형부(刑部)·태의(太醫)·흠천감(欽天監) 등 관직이나 '떠들지 마시오〔禁止喧嘩〕', '눕지 마시오〔不得偃臥〕' 등의 말을 좌우에 붙여두었다. 또 문 벽에는 '여작고위(如作故違)' 4자와 '定行送究(정행송구)' 4자를 새겨 붙여두고 아울러 붉은색 동그라미를 쳐놨다. 문 위에는 '문괴(文魁)'·'무괴(武魁)'·'진사(進士) 급제' 등을 걸어 각기 그 출신을 표시하였다. 열녀의 집안에서는 '빙청옥결(冰清玉潔)'·'송심죽결(松心竹節)' 등의 문자를 금색으로 칠하여 외벽 위에 걸어두었다. 또 효자문이나 열녀문도 길가에 돌로 세워져 있다.

城內外無一溝渠, 皆以隱溝, 通水道矣.

도성 내외에는 도랑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 도랑을 숨기고 수도로 통하게 한 것이다.

闕之九重門及正陽門洞開, 則如一貫然云.

궐의 아홉 겹의 문과 정양문(九重門)을 통하도록 열어두면 하나로 관통되는 듯하다고 한다.

北俗本無酒之清醴之濁, 而只有燒酒, 或如葡萄色, 或如鬱金色, 其味甘而香, 其氣頑而烈. 此釀之法, 始自元時徐家, 而其杯樽, 小如栗殼, 其飲也, 連飲屢杯矣.

북쪽 풍속에는 본래 청주와 탁주가 없고 다만 소주가 있으니 포도색 같은 것도 있고 울금색 같은 것도 있다. 그 맛은 달고 향기로우며 그 향기가 독하고 강렬하다. 이 주조법은 원나라 서씨 집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술 잔의 크기가 밤 껍질처럼 작으며 마실 때에는 연달아 여러 잔을 마신다.

皇城戒嚴周密, 無人定鍾巡更之例, 而店舍則四方富商大賈, 每以金銀綵緞藥材⁶等屬來, 投宿于店, 次而其羣馬衆車, 列於庭中, 喂於石確⁷, 故店主終夜懸燈. 或四巡擊錚, 所以防穿窬⁸之盜也.

황성의 계엄은 주밀하여 인정(人定) 종이나 순찰을 하는 관례는 없으나 여관에는 사방의 부유한 상인이나 대상들이 매번 금·은·비단·약재 등 가지고 와서 가게에 투숙한다. 다음으로 그들의 말과 수레를 뜰안에 늘어세우고 돌구유에서 말을 먹이므로 여관 주인들이 밤새도록 등을 매달아 놓는 것이다. 때로 사방을 돌며 쇠를 두드리는 것은 담을 넘어오는 도둑을 막으려는 까닭이다.

羊脂燭, 堅潤光明, 而無一點淚, 其制甚精,〔自柵至燕皆同〕而我東之所不及者也.

양기름으로 만든 초는 견고하고 윤택하며 빛이 밝으면서도 촛농이 한 방울도 새지 않는다. 그 제작 방법이 심히 정밀하여〔책문에서부터 연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다.〕우리나라의 것은 미치지 못한다.

屋上積雪, 每以乘梯掃之, 慮其向陽注靄, 易爲沾衣而然歟.

옥상에 눈이 쌓이면 매번 사다리로 올라가 눈을 쓴다. 생각건대 그곳에 태양이 비추면 처마로 물이 떨어져 자주 옷을 적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驢之大者, 皇城多有之, 自小黑山至遼東, 皆小者矣. 無鞍驢子, 每乘於脊鬘間.

큰 나귀는 황성에 많이 있다. 소흑산(小黑山)으로부터 요동에 이르기까지의 나귀는 모두 작다. 안장을 얹지 않은 나귀는 매번 등골과 엉덩이 사이에 탄다.

畊田驢騾半之, 非獨牛耕而已. 田器與吾東恰似, 而大小差異. 阡陌多種蜀黍, (一名唐竹), 又種黍粟菽麥, 而水田絕無而僅有.

밭을 가는 것은 나귀와 노새가 반이니 소만 밭을 가는 것은 아니다. 농기구는 우리나라와 흡사하며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밭두둑에는 대부분 축서(蜀黍)를 심는다.(당죽(唐竹)이라고도 한다.) 또 기장·조·콩·보리를 심는데 수전(水田)은 전혀 없고 있더라도 겨우 조금이다.

秋收之法, 築垣掃場, 以圓石係繩, 駕於驢馬, 環而周行, 則皮實相分. 柵遼之間, 或如我東, 揮鞭而打者有之.

추수하는 법. 담을 쌓고 그 속을 깨끗이 쓴 후 둥근 돌에 줄을 묶고 나귀나 말에 메어 둔다. 원을 그리게 하며 돌면 껍질과 알맹이가 서로 분리된다. 책문과 요동 부근에는 간혹 우리나라와 같이 도리깨를 휘두르며 타작하는 사람도 있다.

舂穀無杵臼之具, 大磨石上, 加以圓石, 繫繩於石之兩頭, 駕於驢馬之屬, 周而行之. 磨穀之驢, 皆以袱片封閉其目, 禁其喂穀故也. 磨豆腐時, 亦以此法爲之.

곡식을 찧을 때는 절구나 공이를 도구로 쓰지 않는다. 큰 갈돌 위에 둥근 돌을 얹어 돌의 양쪽 끝에 줄을 메고 나귀나 말에 메어 원을 그리며 돌게 한다. 곡식을 가는 나귀는 모두 보자기 조각으로 그 눈을 봉하여 가리는데 그 곡식을 먹는 것을 금하려는 까닭이다. 두부를 갈 때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한다.

作末之法, 一間房屋中, 安排諸具, 窓外一人, 閑坐搖手而已.

가루 내는 방법. 한 칸의 방 안에 가루 내는 도구들을 설치해 놓고 창밖에 한 사람이 한가롭게 앉아 손을 움직이면 된다.

牛馬驢騾之屬, 雖冬不設厩, 飲以冷水, 粟藁細剉, 粟藁冷水和而喂之, 俾遂其性, 而牛則角直而豐長, 隱然有光矣.

소·말·나귀·노새 등은 비록 겨울에도 마구간을 설치해주지 않는다. 냉수를 마시게 하며 조의 짚을 가늘게 썰고 조나 촉서(蜀黍)를 냉수에 타서 먹이로 주어 그런 성질을 따르게 하면 소는 뿔이 곧고 풍성하게 잘 자라고 은근히 빛이 난다.

牧豕者, 各驅豕數百, 投市店, 共宿一庭之內, 兩羣相雜, 若難辨別, 而平明二人, 出店門外, 植杖路左, 呼之數聲, 則羣豕各尋其主, 來集杖底, 其訓養有法.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각각 돼지를 수백 마리씩 몰고 와서 가게에 투숙하면서 함께 뜰 안에서 재우는데 양쪽 무리가 서로 섞여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진다. 동틀 무렵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나가 길가에 지팡이를 꽂아 놓고 여러 번 소리 내어 부르면 돼지 무리들이 각각 그 주인을 찾아 지팡이 밑에 모여 드니 돼지를 기르고 가르치는 것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다.

羔羊之蕃息, 果如所聞, 千百爲羣. 或寢或咆, 山野之間, 望之如雪.

양의 번식은 과연 듣던 대로 천백 무리에 이른다. 산과 들에서 자거나 돌아다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눈이 쌓인 것 같다.

【豕+亭】⁹【豕+亭】⁹ 養其坑內. 聽人指使, 或掛錢其頸, 則必走市上, 買其物而歸云. 人或寘諸懷中者有之, 猫亦家家蓄之.

발발이(勃勃, 작은 개)는 온돌 안에서 기른다. 사람의 지시를 잘 들어서 때로 목에 돈을 걸어주면 반드시 시장에 달려 나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온다고 한다. 사람들 중에는 늘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고양이 또한 집집마다 기른다.

列路邊或木桶或筐筥中貯水列置, 則往來之驢騾渴飲訖, 擲入一錢於桶中而去.

길가에 나무통이 ○나 광주리에 물을 채워서 줄지어 놓아두면 왕래하는 나귀와 노새가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고 물을 다 마시고 나서는 나무통 안에 1전(錢)을 던지고 간다.

其村家賤灰而重糞, 大路之邊, 自開東, 有持筐荷糞¹⁰者, 環擁馬後, 其糞未及落地, 輒受以筐, 或隨至幾十里者有之, 或貧家以馬糞炊食者有之.

촌가에서는 재는 천하게 여기고 똥은 귀하게 여긴다. 큰길 가에서 아침이 밝으면 광주리를 들고 삼태기를 멘 자들이 말 뒤에서 둘러싸고 있다가 그 똥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재빠르게 광주리로 받는다. 간혹 몇 십리를 따라가서 받는 이도 있고, 또 가난한 집에서는 말똥으로 밥을 짓는 사람도 있다.

貯糧於屯子之內, 屯子織以萑葦, 其樣如礪¹¹石, 而長一丈有半, 圍亦如之. 大者容五六十石, 小者容三四十石, 蓋以十斗爲一石矣.

식량은 둔자(屯子) 안에 저장한다. 둔자는 억새나 갈대로 짜며 그 모양이 마치 향아리 같고 높이가 1장(丈) 반이며 둘레도 그 정도이다. 큰 것은 곡식 50 - 60 석(石)을 저장할 수 있고 작은 것은 곡식 30 - 40석을 저장할 수 있다. 대개 10말(斗)을 1석으로 친다.

自柵至燕, 往來商賈之大車, 入穀於大葦石, 或烟草紙物雜貨等, 馱如泰山, 其上商人, 或有執長鞭者, 有坐睡者, 有喫烟者. 或以笞簣作房樣, 商人留於其內, 以驢騾牛馬, 雜駕八九匹.

책문으로부터 연경까지 왕래하는 상인들의 거대한 수레에는 큰 가마니에 곡식을 넣고 운반하는데 간혹 담배, 지물(紙物), 잡화 등을 짐말에 태산같이 쌓아 놓기도 한다. 상인은 그 위에 올라 긴 채찍을 잡고 있거나 앉아서 졸거나 담배를 피운다. 간혹 대나무와 돌자리로 방 모양을 만들어 상인들이 그 안에서 머물기도 한다. 나귀, 노새, 소, 말 등이 섞여 8 - 9필이 끌고 다닌다.

揮項如我東之毛風遮, 或以紅黑之氈, 裹於麻霞子上, 垂至耳下. 毛耳匣, 或如蝴蝶樣, 或如蝙蝠樣, 或作彩繡. 各場市賣之, 而價一雙爲三四十文.

휘항(揮項)은 우리나라의 털 풍차(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이다. 어떤 것은 붉은 색이나 흑색으로 된 털가죽을 마하자 위에서부터 싸서 귀 아래에 이르기까지 드리운다. 털로 귀를 덮는 부분은 나비 모양이나 박쥐모양이고 간혹 예쁘게 수를 놓기도 한다. 이것들을 시장에서 팔며 값은 1쌍에 30 - 40문(文)이다.

鳶鳶瓦, 一名雌雄瓦, 有禁令, 故非王宮禡馬之家, 則不能用焉. 閭閻豪富之家, 皆¹²以女瓦, 其制如掌大, 而甚精堅. 牆垣之上, 每以瓦作奇紋填灰, 若雕鏤然.

원앙 기와는 '자웅와(雌雄瓦)'라고도 하며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왕궁이나 마제(禡祭, 군신(軍神)에게 무운(武運)을 빌던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면 쓸 수 없다. 여염집이나 부유한 집 모두 여와(女瓦)로 지붕을 엮는다. 여와는 큰 손바닥만 하게 만들며 매우 정밀하고 견고하다. 담 위에는 매번 기와에 재를 메꿔 기이한 무늬를 넣는데 마치 쇠에 조각한 것 같다.

列路至皇城, 或熾以石炭, 或蒸以葛黍柴及其根.

황성에 이르기까지 길에서는 석탄으로 불을 떼기도 하고 간혹 축서(葛黍)나 그 뿌리로 불을 떼기도 했다.

皇城内, 大禁石硫黃, 喫烟及蒸火時, 以黃紙作炷, 口吸數次, 即起火矣.

황성 안에서는 석유황(石硫黃, 성냥)을 크게 금한다. 담배를 피울 때나 불을 지필 때에는 유황지로 심지를 만들어 입으로 여러 차례 불면 불꽃이 일어난다.

水烟臺以朱錫, 制如鳶頂樣, 入水於其中, 其上口烟筒插入, 填南草, 燃以黃紙炷, 口吸烟五六次而棄灰, 又填南草. 如是者, 四五次而止. 每吸時, 水聲汨汨然作矣.

물 담뱃대(水烟臺)는 거위 정수리 모양을 본떠 주석으로 만든다. 그 안에 물을 넣고 그 위쪽 입구에 연통을 꽂고 담배를 채워 넣는다. 유황지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피우고 입으로 5 - 6차례 흡연을 하고 재는 떨어버린다. 다시 담배를

채워 이와 같이 4 - 5차례 하고 나서 끈다. 매번 연기를 빨 때마다 물소리가 골 골하고 일어난다.

鴉片烟, 自柵至燕, 無人不喫, 而以烟臺臥以吸之, 其樣如稀黑糖矣.

아편 담배는 책문에서부터 연경에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누운 채로 담뱃대로 들이마시는데 모양은 희석한 검은 물엿처럼 생겼다.

海甸之內, 大禁柴木之火, 只以石炭烹飪, 而炭臭似石硫黃, 甚不美而不至病頭疼矣

해전(海甸) 안에서는 땔나무로 불을 피우는 것을 크게 금한다. 석탄으로만 음식을 삶고 익히는데 석탄 냄새가 마치 석유황 같이 매우 좋지 않으나 두통이 생기지는 않는다.

清曆無臘, 以十二月初八日爲佳節, 其日和五穀爲粥, 迭相饋遺.

청나라 책력에는 납일이 없어 12월 8일을 가절(佳節)로 삼는다. 그 날이면 오곡으로 죽을 쑤어서 서로 음식을 번갈아 보내어 나눠먹는다.

紙鳶制作, 與東方有異, 以黃紫紙, 巧作人形, 及鷹鳶蛺蝶之狀, 而有長尾, 乘風一飛, 綵絲悠揚, 之東之西, 一任人意, 此亦可觀云也.

종이연 제작 방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있다. 누런빛이나 자줏빛 종으로 사람이나 매, 솔개, 나비의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고 긴 꼬리를 단다. 바람을 타고 한 번 날아가면 색실이 동서로 유유히 훑날리며 사람의 생각을 모두 말길 수 있으니 이 또한 가히 볼만하다고 하더라.

場戲, 每日設於場中, 奇奇體小, 塑像及小兒, 口掛長鬚, 身着彩衣, 紅黃雜色者, 或舞或蹈而遊戲. 數人立於帳外, 不收錢者, 不許入玩. 或左右立木, 以長木橫加其上, 解脫上衣者, 懸於長木, 而越才甚捷. 有變化妖術者, 或以小乾蛇, 化爲大活蛇, 或以破器爲成器者有之, 而亦未盡覽其諸般變術也. 又有鞦韆戲燈戲等各条云.

마당놀이는 매일 마당 한가운데에 설치된다. 소상(塑像)이나 어린아이 같은 기이할 정도 작은 체구의 사람이 긴 수염을 걸고 몸에는 붉은색·황금색·여러 색으로 채색된 옷을 입고 춤추는 듯 뛰는 듯 유희한다. 몇 사람이 장막 밖에서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 구경하지 못하게 막았다. 좌우에 나무를 세우고 긴 나무를 그 위에 가로로 걸쳐 놓고는 상의를 풀어 헤친 자가 긴 나무 위에 매달려 재주를 넘는 모습이 매우 민첩하다. 변화 요술을 부리는 자는 작게 말린 뱀을 크고 살아 있는 뱀으로 변화시키거나 깨진 그릇을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시키기는 자도 있었으나 역시 모든 변화술을 다 관람하지는 못했다. 또 그네 묘기와 등불 묘기 등 각 종목이 있다고 한다.

其人不飲生冷, 善喫茶, 又喜食蘆子檳榔縮砂, 皆消食^{13 25}安胃之物, 茶則無時不啜, 而待客必先勸一盃矣. 檳榔街路果廬, 以剪子切作兩片而賣之矣.

그 사람들은 찬 물을 마시지 않으며 차를 잘 마신다. 또한 노자(蘆子)·빈랑(檳榔)·축사(縮砂)를 잘 먹는데 모두 음식을 소화시켜 위장을 편하게 하는 음식이다. 차는 마시지 않는 때가 없고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잔을 권한다. 빈랑은 길거리 과일가게에서 가위로 두 조각으로 잘라서 판다.

鴈【牧+鳥】¹⁴鵝鴨鷄猪牛羊, 例爲常餐, 而惟不食狗肉.

기러기·집오리·거위·오리·닭·돼지·소·양고기는 으레 항상 반찬으로 먹지만 개고기는 먹지 않는다.

自狼子山, 種柳於路之左右, 至瀋京尤盛, 自瀋京至燕臺二千里, 連延不絕, 枝葉之蒼蔚, 根株之長短, 少無參差, 其養樹之法, 盖如是.

낭자산(狼子山)에서부터 길의 좌우에는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심경(瀋京, 심양)에 이르면 더욱 많다. 심경으로부터 연대(燕臺)까지 2천리 내내 버드나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가지와 잎의 울창함과 뿌리와 나무 기둥의 길이는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나무를 기르는 방법이 이와 같을 것이다.

彈琴弓, 以羊腸爲弦, 彈時如春鳥聲, 如絲竹響, 令人可聽. 每瞽者, 彈琴與琵琶而行乞.

탄금궁(彈琴弓)은 양의 창자를 당겨서 현(弦)으로 삼는데 탄금을 탈 때 봄에 새소리가 나는 듯,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사람이 가히 들을 만하다. 매번 맹인들이 탄금과 비파(琵琶)를 가지고 구걸을 한다.

歷路相鬪者或有之, 兒童輩或有時相詰, 只呼王八(音바), 卽鰲也. 八否樣卽不好也, 只八(音바), 卽賢也. 其辱如是而已.

지나는 길에 서로 싸우는 자들이 간혹 있었다. 아이들은 간혹 서로 헐뜯으면서도 단지 왕바(王八)(음은 '바'이다.)라고만 한다. 왕바는 곧 자라이고 여덟 가지(효·제·충·신·예·의·염·치)가 없는 상태이니 즉, 좋지 않은 것이다.¹⁵ 바(八)(음은 '바'이다.)만으로 치면 곧 자지이다. 그 욕을 하는 정도가 이와 같을 뿐이다.

(紅魚)長僅二寸, 或一寸有餘, 有全身通紅者, 有身紅尾白者. 琉璃瓶中, 投數十尾, 洋洋潑潑, 周回上下之際, 玲瓏怳惚. 或曰養魚時, 以丹砂和水, 則魚飲此而浸漬漸染, 仍變其質云.

홍어(紅魚)는 길이가 2촌쯤 되거나 1촌 남짓하며 몸 전체가 붉은 것이 있고 몸은 붉고 꼬리가 흰 것이 있다. 유리병 안에 수십 마리를 넣으면 팔딱팔딱거리며 위아래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영롱하고 황홀하다. 혹 말하기를 물고기를 기를 때에는 단사(丹砂)를 물에 섞으면 물고기가 이것을 마시고 몸에 스며들어서 점차 염색된 후 그 바탕색이 변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汲水及餅麪等屬, 皆以長木橫跨於兩肩, 木端左右, 係其兩桶, 自古無背負之法. 又汲水及馱肉物也, 既載一輪車, 兩手驅其車機而行. 或卜重者, 前加一人, 係繩拽之.

물을 길거나 떡이나 국수 등을 질 때는 모두 긴 나무를 양 어깨에 가로로 걸치고 나무의 좌우 끝에 통을 매달았으니 예로부터 등에 짐을 지는 법이 없었다. 또 물을 길거나 고기를 나를 때는 미리 일륜거(一輪車)에 실어 두고 양 손으로

일륜거의 중심을 잡고 간다. 짐이 무거운 경우에는 앞에서 한 사람이 더하여 줄을 묶고 끈다.

有罪者, 衣赭衣, 手足關以鉄索云, 而路中此様女子, 插花而行者有之, 鬢邊黥者曰官盜. 行海甸時, 路邊一寺之外, 有鬢髮髻髻衣黑者, 頸係鉄索, 長五六尺, 其端垂結於門內, 擊鐘叩頭而乞, 此乃殺人者云. 叩頭之際, 鉄聲丁丁, 垂髮飄飄, 其刑杖以竹爲棍. 路中或有着枷而行者, 如我東之行枷矣. 正陽橋東北川石築邊樹枝, 一人結項而垂, 觀者如市, 問其故, 此乃露捉潛通其夫, 賜死云.

죄가 있는 사람은 홍갈색 옷을 입고 손발에는 쇠사슬을 채운다고 한다. 길 가 운데 그런 모양으로 머리에 꽃을 꽂고 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귀밑머리 주변에 '관도(官盜)'이라고 낙인이 새겨져 있다. 해전(海甸)을 지날 때 길가에 한 절의 바깥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늘어진 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목에는 길이 5-6척이 되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 끝은 문 안에 매어 늘어져 있었으며 종을 치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했는데 이 자는 살인자라고 하였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와중에 쇠소리가 철그렇거리며 늘어뜨린 머리가 바람에 나부꼈다. 그 형벌로 대나무를 곤장으로 삼아 태형을 쳤다. 길 가던 중에 간혹 칼(枷)을 쓰고 가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칼과 같았다. 정양교(正陽橋) 동북쪽 냇가 돌을 쌓아놓은 주변의 나무 가지에 한 사람이 목이 매달려 축 늘어져 있었는데 구경꾼이 마치 저잣거리처럼 많았다. 그 까닭을 물으니 이 사람은 그 지아비 몰래 내통하다 잡혀 탄로가 나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自柵至燕, 店壁村牆, 往往付春^和¹⁶圖膏藥牌紙, 或貼春藥方文, 其文淫褻悖亂, 或貼落胎方.

책문으로부터 연경에 이르기까지 가게 벽이나 마을 담장에는 종종 춘화(春畵)가 그려진 고약(膏藥) 싸는 종이가 붙어 있고, 혹은 춘약(春藥, 성욕을 돋우는 약제)에 대한 처방문이 붙어 있는데 그 문장이 음란하고 난잡하다. 간혹 낙태방(落胎方)도 붙어있다.

琉璃廠有溷廁(名曰出恭)十餘間, 仄中置淨¹⁷, 厠¹⁸上熬芙蓉香. 其四壁貼春和¹⁹圖, 使人登溷, 則其價必收二三文云, 而未及見玩.

유리창(琉璃廠)²⁰에 측간(출공(出恭)이라고도 한다.)이 십여 칸 있는데 측간 안에는 깨끗한 받침대를 두고 받침대 위에 부용향을 태운다. 그 사방 벽에는 춘화도(春畵圖)를 붙여두고 사람이 그 측간에 오르면 그 값으로 반드시 2 - 3 문(文)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구경하지는 못하였다.

貧僧窮丐或跨驢, 富豪者必乘車騎馬云, 而亦未及見玩.

가난한 중이나 빈궁하고 미천한 사람들은 간혹 나귀를 타고, 부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수레나 말을 탄다고 하는데 아직 구경하지는 못하였다.

*兒始生, 以錦繡或篩輪爲窠, 置兒其中, 懸諸架下, 狀如鷄窠. 兒啼則以手搖其窠, 或左或右, 搖搖不定, 則啼聲即止, 名曰搖車.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수놓은 비단이나 사륜(篩輪, 대나무로 둥글게 엮은 것)으로 요람을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넣고 시렁 아래에 매달아 두는데 닭의 둥지 같이 생겼다. 아이가 울면 손으로 그 요람을 흔드는데 좌우로 일정하지 않게 흔들면 우는 소리가 곧 그치니 이것을 요차(搖車)라고 한다.*

以麻霞羅頂子, 辨官之尊卑, 青銅²¹石爲第一崇品, 其次珊瑚, 珊瑚之中亦有等分, 雕者居不雕者之下, 又其次, 玉也銀也, 金則是下品.

마하라의 꼭대기에 단 장식으로 관직의 높고 낮음을 분별할 수 있으니 청동석(靑銅石)이 제일이고 그 다음은 산호(珊瑚)이다. 산호 가운데서도 또한 등급이 나뉘며 조각한 것은 조각하지 않은 것보다 아래이고 그 다음은 옥과 은이며 금은 하품이다.

有喪之家, 用白簾裹屋之上下內外, 名曰塋屋. 其門外立長竿, 是謂招魂. 使樂生吹竹彈絲, 傍有僧徒, 擊鐘誦經, 是謂娛尸云.

상을 당한 집에서는 흰 대자리로 집의 상하와 안팎을 싸니 **악실(壘屋)**²²이라고 한다. 그 문 밖에는 긴 장대를 세워두는데 이것을 초혼(招魂)이라고 한다. 악생(樂生)에게 대피리를 붙고 가야금을 타게 하며 옆에는 승려의 무리가 있어 종을 치며 불경을 암송하니 이를 오시(娛尸)라고 한다고 한다.

客死者, 旅魂飄揚, 無所依泊, 而聞鷄鳴, 則隨來云, 故旅櫬上, 必置雄鷄一隻云. 客死之棺, 多積於廟寺之內矣, 市廛賣棺, 槨以楊木, 附片作舟樣, 塗以朱漆, 其上畫山川雲氣.

객지에서 죽은 자는 나그네의 혼백이 바람에 나부껴 머물러 의지할 곳이 없다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따라 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관 위에 반드시 수탉 1마리를 올려둔다고 한다. 객사자의 관(棺)이 사당과 절 안쪽에 많이 쌓여 있다. 시장에서 관을 파는데 백양목으로 사방을 두르고 조각을 붙여서 배 모양으로 만들어 붉은 옷칠을 한 후 그 위에 산·하천·구름 등을 그린다.

出柩時, 張樂前導, 及葬, 掘墳寸餘, 築土掩棺, 不蓋莎草, 用白灰塗之, 狀若墩臺, 環以粉牆, 而羊虎之石, 松楸之林, 鬱有可觀. 此則富豪之所藏²³, 至若貧者不然, 路左田頭, 露棺居多, 或移置空寺, 有經歲不葬者.

시신을 운구할 때에는 앞에서 풍악을 울려 인도하고, 시신을 매장할 때에는 구덩이를 1촌 남짓 너비로 파서 쌓아둔 흙으로 관을 덮고 잔디는 덮지 않고 백회를 바르니 모양새가 돈대(墩臺) 같다. 백회(白灰) 바른 담을 둘레에 양이나 호랑이 석상을 세우며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어 숲이 울창하니 가히 볼 만하다. 이것은 부호들의 장례이다. 가난한 자들의 장례는 그렇지 않으니 길가나 밭두둑에 노출된 채 놓여있는 관이 많고 혹은 빈 절에 옮겨 두기도 하는데 한해를 넘기도록 매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撥引時, 喪輿以紅貢緞, 繡龍鳳鳥獸之紋, 制飾燦爛, 軍人數三十, 麻霞子上插雉尾者, 舁之. 五方旗幟、肅靜牌、草綠芭蕉扇、儀仗、馬²⁴、魂童等, 羅立輿前, 管籥種鼓之樂, 立於其前. 喪人以白布喪服, 坐於車中, 男女親戚, 亦乘車隨之, 哭則不作.

발인을 할 때에는 상여를 붉은 공단에 용·봉황·날짐승·들짐승의 무늬를 수놓아 찬란하게 장식한다. 군인 30여 명이 마하자 위에 꿇꼬리깃을 꽂고 상여를 맞들고 간다. 오방(五方) 깃발·숙정패(肅靜牌, 군중에 표를 세워 정숙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초록빛 파초선·의장(儀仗)·말·혼동(魂童) 등을 상여 앞에 벌여 세우고 피리 불고 북치는 악대가 그 앞에 선다. 상주는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수레 가운데 앉고 남녀 친척들 또한 수레에 타고 따라가며 곡소리는 내지 않는다.

婚家之門上, 掛紅緞於門楣, 設樂, 至二三更始止, 新郎新婦乘紅貢緞四人轎, 屋蓋以黑絲作綱, 其粧甚媚麗. 五方旗幟、肅靜牌、芭蕉扇、儀仗, 及作樂之節, 與撥引時似同矣.

혼례가 있는 집의 문에는 붉은 비단을 문미(門楣, 문 위에 가로 댄 나무)걸어 두고 음악을 연주하다가 2 - 3경이 되어 비로소 멈춘다. 신랑·신부는 붉은 비단으로 된 4인이 드는 가마에 오르며 검은 실로 엮은 망사로 지붕을 가리는데 그 단장한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오방(五方) 깃발·숙정패(肅靜牌)·파초선·의장과 음악을 연주하는 예절이 발인할 때와 거의 같다.

田中葛黍及粟麥之根, 皆拔而列置於畝邊, 待其乾, 以鋤打土, 後載於大車而運之, 野無遺根枯草矣.

밭 가운데서 축서·조·보리의 뿌리를 모두 뽑아 줄지어 밭이랑 가장자리에 놓고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흙을 두들겨 턴 후에 큰 수레로 옮겨 실으면 들에 남은 뿌리나 시든 풀이 없게 된다.

路中休紙及舊索布片等, 以鉄鉤取受於筐筥, 路無棄遺者.

길에 휴지나 오래된 끈이나 베조각 등은 쇠갈고리로 바구니에 거두어들이니 길에 버린 것이 남아 있지 않다.

毋論果菜餅肉柴草柱樑板木, 皆稱而賣之.

과일、채소、떡、고기、땔나무(柴草)、들보、기둥、판목은 모두 소리쳐 부르며 판매한다.

城門開閉, 以日暮爲閉, 以天明爲開.

성문의 개폐는 날이 저물면 닫고 아침이 오면 연다.

鳥籠, 每以細竹構之形圓, 養以鸚鵡等珍禽恠鳥, 而俱啄粟飲水之器, 懸於塵肆之簷角.

새장은 매번 얇은 대나무로 원통형으로 만든다. 앵무새 등 진기하고 이름 모를 새를 기르는데 쪼아 먹을 곡식과 마실 물을 그릇을 갖추어 두고 가게 처마 끝에 매달아 둔다.

井水, 皆以轆轤汲引汲水油酒等器, 皆入於柳枝缸, 而不滲漏亦甚奇也.

우물물은 모두 도르레로 길으며 길은 물이나 기름, 술 등을 담을 때 그릇은 모두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항아리에 넣는데 새지 않아 매우 신기하다.

官人往來之車, 右插紅旗, 書曰盛京兵部公務, 或錦州知縣, 或鄉試, 各書其官.

관인이 왕래하는 수레는 오른쪽에 붉은 깃발을 꽂는데 "성경병부공무(盛京兵部公務)", "금주지현(錦州知縣)", "향시(鄉試)" 등 각각 그 관직명을 쓴다.

鹽品不如我東之美, 形似砂塊, 味甚鹹惡, 每碎以用之. 其沈菜之法, 以軟肥之菰, 和鹽入甕, 而不蓋其口. 塵埃堆積, 而每喫時, 搜出水洗矣.

소금의 품질은 우리나라의 것만큼 좋지 못하다. 형태는 모래덩어리처럼 생겼는데 맛이 심히 짜고 나쁘며 매번 부수어 쓴다. 채소를 절이는 방법은 연하고 두툼한 배추를 소금을 뿌려 웅기에 넣어 두고 그 입구를 덮지 않는다. 진흙과 티끌이 쌓이지만 먹을 때마다 꺼내어 물로 씻는다.

柵門, 是燕京之極東而邊遠, 故人心多頑惡, 專在於謀利, 或風土之使然者也.

책문(柵門)은 연경의 동쪽 끝에서도 먼 변방이므로 사람들 마음이 대부분 완악하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려고만 한다. 풍토가 그렇게 만든 것인 듯하다.

1. 炕(坑) : '炕(강)'은 우리나라 '온돌'과 같이 방 밑으로 불을 피워 덥히는 것이나, 우리처럼 방 전체가 다 온돌인 것이 아니라 방의 반쪽이나 일부분만 온돌로 하여, 방문 안에 들어서서 보면 '강'은 마치 침대와 같이 되어 '강'으로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된다. ※이상은. 《담헌서》해제. 한국고전종합DB ↩

2. 橫竹長 : *長橫竹 ※문맥상 ↩

3. 背子 : 褙子 ↩

4. 背子 : 褙子 ↩

5. 盛粧女子, 乘太平車, 不垂面帳或追從, 女子憑軾而行, 此是朝士家婦人之類也云. : 女子出入, 乘太平車, 貴主命婦亦然, 男子騎從之 ※《계산기정》 ↩

6. 村 : *材 ※문맥상 ↩

7. 確 : *鑊 ※문맥상 ↩

8. 廡 : *窰 ※문맥상 ↩

9. 【𠂔+亨】【𠂔+亨】 : 勃勃 ※《계산기정》

𠂔𠂔 ※《연암집·醉踏雲從橋記》 ↩

10. 簣 : *簣 ※김정중 《연행록》 ↩

11. 礪 : *甌 ※김정중 《연행록》 ↩

12. : *編 ※김정중 《연행록》 ↩

13. 消食 : *消息 ※金正中, 《연행록(燕行錄)》. 1791 ↩

25. 金正中, 《연행록(燕行錄)》에는 消息으로 되어 있고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이를 천식을 없앴다고 하였으나, 消食으로 바꿔쓴 듯 하다. [↩](#)

14. 【牧+鳥】: *鷺 ※金正中, 《연행록(燕行錄)》 [↩](#)

15. 여덟 가지(효·제·충·신·예·의·염·치)가 없는 상태이니 즉, 좋지 않은 것이다. : '王八'는 남을 욕하는 말이다. 효·제·충·신·예·의·염·치(孝弟忠信禮義廉恥)의 여덟 가지를 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왕빠(忘八)라고도 한다.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

16. 和 : *晝 ※문맥상 [↩](#)

17. 兀 : 几 ※김정중《연행록》 [↩](#)

18. 兀 : 几 ※김정중《연행록》 [↩](#)

19. 和 : *晝 ※문맥상 [↩](#)

20. 유리창(琉璃廠) : 자금성 지붕에 쓰일 유리기와를 만드는 유리공장이 모여 있던 곳으로 자금성 완공 후 공장이 문을 닫자 서적(書籍)과 골동(骨董)을 취급하는 상점이 들어섰다. ※한국고전종합DB [↩](#)

21. 鋼 : *銅 ※김정중《연행록》 [↩](#)

22. 악실(壑屋) : 상을 당하여 중문(中門) 밖의 추녀 밑에 백토(白土)를 쌓아서 축조한 상막(喪幕)으로, 흰 상태로 두고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는다. ※한국고전종합DB 각주정보 [↩](#)

23. 藏 : *葬 ※문맥상 [↩](#)

24. 馬 : '馬'앞에 두 자의 빈칸이 있다. [↩](#)

所産 토산물

文寶齋白露紙

矚遠齋眼鏡

寧遠衛詹氏墨

沙河驛白蘊梨栗

太陵河魚鰕

野鷄坨桑枝筐

薊州眼藥

中後所驄毯

寧遠白糖

撫寧扁食

瀋陽竹葉

淸山梨紅(卽山查)鹿茸膏

狼子山薇蕨

連山關生雉

小黑山家鷄

白塔堡豆腐

通州之針

冷井之水, 皆有名於關中.

柵門西洋紋紙、千年紙、山查、餅、黃茶.

문보재(文寶齋)의 백로지(白露紙)

촉원재(矚遠齋)의 안경

영원위(寧遠衛)의 첨씨묵(詹氏墨)

사하역(沙河驛)의 백전(白蘊)、배、밤

대릉하(大凌河)의 생선、새우

야계이(野鷄坨)의 상지광(桑枝筐, 뽕나무 줄기로 만든 광주리)

계주(薊州)의 안약(眼藥)

중후소(中後所)의 총담(驄毯, 말털 담요)

영원(寧遠)의 백당(白糖)

무령(撫寧)의 편식(扁食)

심양(瀋陽)의 죽엽

청산(淸山)의 이홍(梨紅)(즉, 산사(山査))、녹용고(鹿茸膏)

낭자산(狼子山)의 고사리

연산관(連山關)의 산 평

소흑산(小黑山)의 닭

백탑보(白塔堡)의 두부

통천(通川)의 바늘

냉천(冷泉)의 물. 모두 관중(關中)에서 유명하다.

책문(柵門)의 서양 무늬지、천년지¹、산사(山査)、떡(餅)、황차(黃茶).

1. 천년지 : 내구성이 뛰어나 천년지라고 하였음 ←

燕臺八景 연대팔경

金臺夕照

蘆溝曉月

玉泉垂虹

瓊島春雲

薊門烟樹

居庸疊翠

西山積雪

太液晴波.

康熙時, 添入通州夜市.

금대(金臺)의 석양 빛

노구(蘆溝)의 새벽 달

옥천(玉泉)에 드리운 무지개

경도(瓊島)의 봄날 구름

계문(薊門)의 안개 드리운 숲

거용관(居庸)의 첩첩 푸른빛 산

서산(西山)에 쌓인 눈

태액(太液)의 맑은 파도.

강희제 때 통주(通州)의 야시장이 추가 되었다.

一行目錄 일행목록¹

正使 朴判府事〔晦壽〕

副使 李參判〔根友〕

書狀官 沈校理〔敦永〕

正使裨將 朴麟蹄〔齊崧〕

卜教授〔崑〕

李生員〔運綱〕

伴尙 金天安〔啓禮〕

李生員〔用汝〕

一堂上 方同知〔禹叙〕

二堂上 秦同知〔應煥〕

三堂上 金僉知〔樂源〕

四堂上 李僉知〔鎮泰〕

一上判事 金僉正〔聖翼〕

二上判事 尹判官〔世根〕

乾糧官 李僉正〔鎮翼〕

掌務官 李主簿〔鍾五〕

一從事 趙判官〔行侃〕

二從事 吳判官〔時璟〕

三從事 韓主簿〔應吉〕

寫字官 皮護軍〔相驥〕

畫員 李教授〔邦埴〕

醫員 金僉正〔相羲〕

정사 판부사 박회수
부사 참판 이근우
서장관 교리 심돈영
정사비장 인제 박제승
교수 변곤
생원 이운경
반당 천안 김계풍
생원 이용여
일당상 동지 방우서
이당상 동지 진응환
삼당상 첨지 김낙원
사당상 첨지 이진태
일상판사 첨정 김성익
일상판사 판관 윤세근
건량관 첨정 이진익
장무관 주부 이종오
일종사 판관 조행간
이종사 판관 오시영
삼종사 주부 한응길
사자관 호군 피사기
생원 교수 이방식
의원 첨정 김상희

¹. 함께 사행을 간 심돈영의 《연행록·일행총록(一行摠錄)》에는 30여명이 되는 일행의 직제와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황도순은 자신이 속해있는 무리였던 역관훈상당상(譯官訓上堂上) 진응환(秦應煥) 이하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의원(醫員) 김상희(金相羲) 등 22명의 이름만 적어두었다. ※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 연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 의사학회지. 2018.

vol.2(31) : 24 [↩](#)



己酉七月十七日 燕行往還路程記 연행왕환
노정기(기유년 7월 17일)



七月 7월

高陽 碧蹄. 四十里. 十七日晴. 宿所.

고양 벽제. 40리. 17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坡州 坡平. 四十里. 十八日晴. 宿所.

파주 파평. 40리. 1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長湍 臨湍. 三十五里. 十九日晴. 中火.

장단 임단. 35리. 19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松京 太平. 四十五里. (申後大雨) 宿所.

송경 태평. 45리. (신시 후에 큰 비) 하룻밤 묵었다.

金川 金陵. 七十里. 二十日晴. 中火.

금천 금릉. 70리. 20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平山 東陽. 三十里. 宿所.

평산 동양. 30리. 하룻밤 묵었다.

蔥秀 寶山. 三十里. 二十一日晴. 中火.

총수 보산. 30리. 21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瑞興 龍泉. 五十里. 申雨. 宿所.

서흥 용천. 50리. 신시에 비. 하룻밤 묵었다.

劔水 鳳陽. 四十里. 二十二日陰. 中火.

검수 봉양. 40리. 22일. 흐림. 점심을 먹었다.

鳳山 洞仙. 三十里.〔洞仙關〕宿所.

봉산 동선. 30리.〔동선관(洞仙關)〕하룻밤 묵었다.

黃州 齊安. 四十里.〔赤壁江、月波樓〕二十三日晴. 宿所.

황주 제안. 40리.〔적벽강(赤壁江)、월파루(月波樓)〕23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中和 生陽. 五十里. 二十四日晴. 中火.

중화 생양. 50리. 24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 留一日.
- 1일 머물렀다.

平壤 大同. 五十里.〔練光亭、浮碧樓〕宿所.

평양 대동. 50리.〔연광정(練光亭)、부벽루(浮碧樓)〕하룻밤 묵었다.

順安 安定. 五十里. 二十六日晴. 中火.

순안 안정. 50리. 26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肅川 肅寧. 六十里. 宿所.

숙천 숙녕. 60리. 하룻밤 묵었다.

安州 安興. 六十里.〔向日軒、晴川江、百祥樓〕二十七日雨雷. 宿所.

안주 안흥. 60리.〔향일헌(向日軒)、청천강(晴川江)、백상루(百祥樓)〕27일.
비오고 번개. 하룻밤 묵었다.

嘉山 嘉平. 五十里. 二十八日晴. 宿所.

가산 가평. 50리. 2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納清亭. 二十五里. 二十九日晴.

■ 납청정. 25리. 29일. 맑음.

定州 新安. 三十五里. 宿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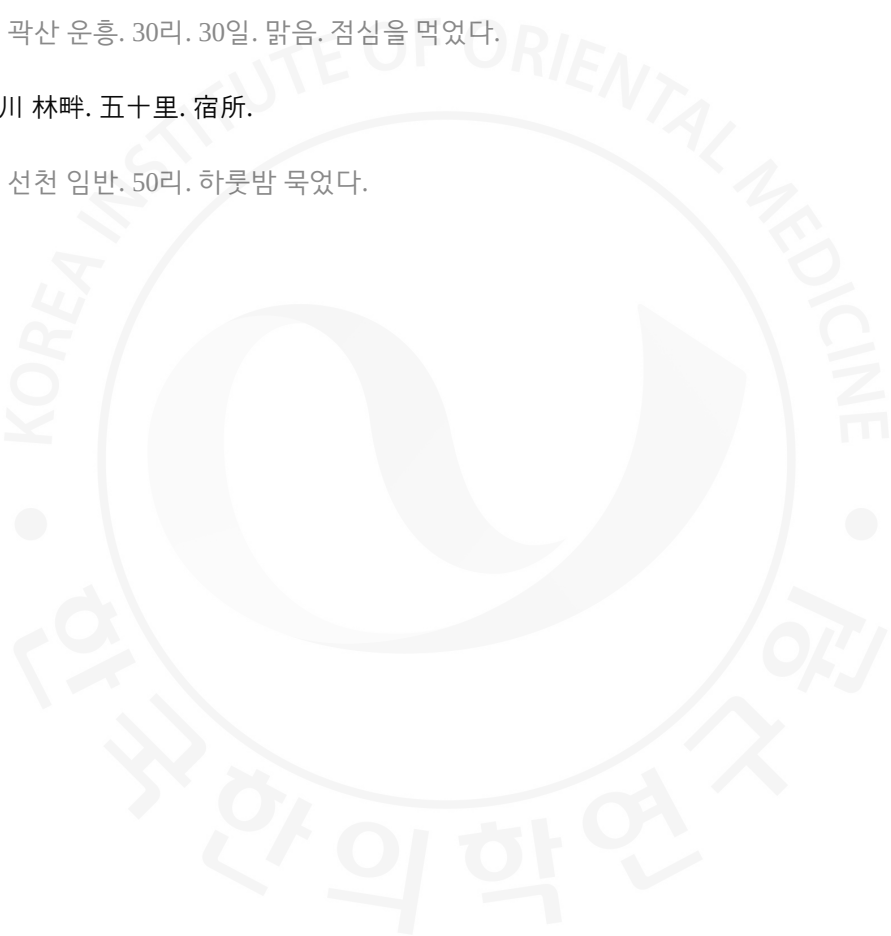
■ 정주 신안. 35리. 하룻밤 묵었다.

郭山 雲興. 三十里. 三十日晴. 中火.

■ 광산 운흥. 30리. 30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宣川 林畔. 五十里. 宿所.

■ 선천 임반. 50리. 하룻밤 묵었다.



八月 8월

鐵山 車輦. 四十五里. 八月初一日晴. 中火.

철산 차련 45리. 8월 1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龍川 良策. 三十里. 宿所.

용천 양책. 30리. 하룻밤 묵었다.

所串 義順. 四十里. 初二日陰風. 中火.

소곶 의순. 40리. 2일. 흐리고 바람. 점심을 먹었다.

義州 龍灣. 三十五里. 宿所.

의주 용만. 35리. 하룻밤 묵었다.

- 留四日.
- 4일 머물렀다.

鴨綠江. 五里.

압록강. 5리.

小西江. 一里.

소서강. 1리.

中江. 四里.〔自此蘆葦夾路, 地皆黑沙, 多柳林〕

중강. 4리.〔여기부터는 갈대로 길이 좁아졌고 땅이 모두 검은 모래이며 대부분 버드나무 숲이었다.〕

方陂浦. 五里.

방피포. 5리.

三江. 五里.

삼강. 5리.

九連城. 四里.(古鎮江府) 二十四里. 初七日晴. 中火.

구련성. 4리.(옛 진강부(鎭江府)이다.) 여기까지 24리. 7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恒頭河子. 二里.

항두하자. 2리.

九連城站. 四里.

구련성참. 4리.

望隅. 八里.

망우. 8리.

者音卜. 四里.(蝦蟆塘)

자음복. 4리.(하마당(蝦蟆塘)이다.)

碑石隅. 二里.(有碑者¹沒)

비석우. 2리.(글자가 없어진 비석이 있다.)

松隅. 三里.

송우. 3리.

松隅. 三里.²

송우. 3리.

馬轉板. 一里.〔沙窩子〕

마전판. 1리.〔사와자(沙窩子)이다.〕

石隅. 五里.

석우. 5리.

金石山. 七里, 三十六里. 宿所.

금석산. 7리, 여기까지 36리. 하룻밤 묵었다.

中衙門. 三里.〔質光峴〕

중야문. 3리.〔질광현(質光峴)이다.〕

湯池子. 五里.〔溫井坪〕

탕지자. 5리.〔온정평(溫井坪)이다.〕

乾浦. 三里.

건포. 3리.

細浦. 七里.

세포. 7리.

柳田. 二里.

유전. 2리.

湯站. 九里.〔湯山城, 或云明時所築〕

탕참. 9리.〔탕산성(湯山城)이다. 혹자는 명나라 때 축성된 것이라고 한다.〕

蔥秀站. 三里.

총수참. 3리.

魚龍堆. 一里.〔知他爾〕

어룡퇴. 1리.〔지타이이다.〕

車踰獐頃. 四里.〔沙坪〕

거유장경. 4리.〔사평이다.〕

王八石. 十里.〔路傍所熊小岩, 自此至柵門皆平蕪. 鳳凰山望見.〕

왕팔석. 10리.〔길가는 웅소암(熊小岩)이 있는 곳이다. 여기부터 책문(柵門)까지 모두 평평하고 잡초가 무성하다. 봉황산(鳳凰山)이 바라다 보인다.〕

上龍山. 三里.

상용산. 3리.

柵門. 十里, 六十里. 初八日晴. 宿所.

책문. 10리, 여기까지 60리. 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 留一日
- 1일 머물렀다.
- 自義州至柵門, 一百二十里.
- 의주(義州)부터 책문(柵門)까지 120리.

安市城. 五里.

안시성. 5리.

榛平. 二里.

진평. 2리.

鳳池. 四里.

봉지. 4리.

舊柵門. 三里.

구책문. 3리.

鳳凰山. 十二里.〔峯如插筆, 石色蒼潤, 東南四五峯尤奇秀, 南有古城石築.〕

봉황산. 12리.〔봉우리가 붓을 꽂아놓은 듯 하고 돌의 색은 푸르고 윤이 난다.
동남쪽 봉우리 4 - 5개는 더욱 기이하고 수려하며 남쪽에는 고성(古城)의 석축
이 있다.〕

鳳凰城. 四里.〔自此閭閻市肆頗壯.〕

봉황성. 4리.〔여기부터 여염집과 시장이 자못 성대하다.〕

三叉河. 六里.

삼차하. 6리.

二台³子. 四里.

이대자. 4리.

乾子浦. 十里.

건자포. 10리.

四台⁴子. 一里, 五十一里. 初十日細雨. 宿所.

사대자. 1리, 여기까지 51리. 10일. 가는 비. 하룻밤 묵었다.

伯顏洞. 九里.〔俗稱元時伯顏住軍之處.〕

백안동. 9리.〔세간에서는 원나라때 백안(伯顏)이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이라고
한다.〕

麻姑嶺. 十里.

마고령. 10리.

松站. 十里.〔薛劉站, 雪裡站, 古鎮東堡.〕

송참. 10리.〔설류참(薛劉站) 혹은 설리참(雪裡站)은 옛날의 진동보(鎭東堡)이다.〕

少長岑. 五里.〔⁵峯子.〕

소장령. 5리.〔규령자(峣岑子)이다.〕

瓮北河. 五里.〔三家河源, 出分水岑.〕

옹북하. 5리.〔삼가하(三家河)를 시작으로 분수령(分水岑)으로 흘러간다.〕

大長岑. 五里.〔長岑子〕

대장령. 5리.〔장령자(長岑子)이다.〕

劉家河. 八里.

유가하. 8리.

黃家莊. 二里, 五十四里. 十一日細雨. 中火.

황가장. 2리, 여기까지 54리. 11일. 가는 비. 점심을 먹었다.

八渡河. 五里.〔金家河〕

팔도하. 5리.〔금가하(金家河)이다.〕

獐頃. 一里.

장경. 1리.

林家臺. 九里.〔金鷄河〕

임가대. 9리.〔금계하(金鷄河)이다.〕

范家臺. 五里.

범가대. 5리.

二道方身.

이도방신.

通遠堡. 三十五里.〔古鎮夷堡〕宿所.

통원보. 35리.〔옛날의 진이보(鎭夷堡)이다.〕하룻밤 묵었다.

石隅.

석우.

和尚庄.

화상장.

草河口橋.

초하구교.

番洞. 二里.〔路邊有武安王祠. 自通遠至此路, 皆長谷一水, 再度過此, 一望平蕪, 無人家田疇, 山氣益麗.〕

답동. 2리.〔길가에 무안왕(武安王)의 사당이 있다. 통원보에서부터 이 길까지 모두 장곡(長谷)의 물이 두 차례 이곳을 지난다. 바라보면 인가나 농가없이 평평하고 잡초가 무성하여 산의 기상이 더욱 아름답다.〕

分水峯. 十五里.〔西水入遼河, 東水入中江, 故一名金復河, 遼東山脉過此.〕

분수령. 15리.〔서쪽 강물은 요하(遼河)로 들어가고, 동쪽 강물은 중강(中江)으로 들어가므로 금복하(金復河)라고 부르며 요동산맥이 이곳을 지나간다.〕

高家峯. 六里.〔分⁶手以後, 皆野梨間有柳.〕

고가령. 6리.〔분수령 이후로는 모두 들배나무이고 간간히 버드나무가 있다.〕

俞家峯. 四里.

유가령. 4리.

連山關. 五里.〔古鴉鵲⁷關, 村有小廟〕五十五里. 十二日暗風. 宿所.

연산관. 5리.〔옛날의 아골관(鴉鵲關)으로 마을에는 작은 사당이 있다.〕여기까지 55리. 12일. 어둡고 바람. 하룻밤 묵었다.

會寧峯. 二十里.〔入長谷頻渡水. 到此勢高路曲.〕

회령령. 20리.〔긴 골짜기에 들어가 자주 물을 건넜다. 이곳에 이르니 형세가 높고 길이 굽어있다.〕

甜水河. 十七里.〔踰峯里許, 有小廟, 西南間有一石塔在山過, 是虎狼谷, 由此可達狼子山二十里.〕

침수하. 17리.〔고개를 넘어 몇 리를 가면 작은 사당이 있고 서남쪽 산자락에 석탑 하나가 있다. 이곳은 호랑곡(虎狼谷)으로 여기로부터 20리를 가면 낭자산에 도달할 수 있다.〕

甜水站. 三里.〔城中有佛寺, 始有木花田, 行一二里, 西邊有山如屏, 蓋青石之餘麓, 從此抵千山〕四十里. 十三日晴. 中火.

침수참. 3리.〔성안에 절이 있는데 목화밭이 시작되고 1 - 2리를 가면 서쪽에 병풍같은 산이 있다. 아마 청석산의 여남은 한 자락인 듯한데 여기를 따라가다보면 천산(千山)에 닿는다.〕여기까지 40리. 13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靑石峯. 十里.

청석령. 10리.

小石峯. 五里.〔峯北有一路, 卽遼東捷路.〕

소석령. 5리.〔고개 북쪽에 길이 하나 있는데 곧 요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狼子山. 十五里.〔居民頗盛, 始有漢女〕三十里. 宿所.

낭자산. 15리.〔거주민들이 꽤 많고 처음으로 한족 여인을 보았다.〕여기까지 30리. 하룻밤 묵었다.

摩天峯. 八里.〔西有唐太宗駐驛山馬蹄峯.〕

마천령. 8리.〔서쪽으로 당태종이 지나간 주필산(駐驛山)과 마제령(馬蹄峯)이 있다.〕

頭關站. 八里.

두관참. 8리.

三流河. 四里.〔水流東北, 入太子河, 所過第四水, 邊有一廟.〕

삼류하. 4리.〔물이 동북쪽으로 흘러 태자하(太子河)로 들어가며 네번째 물을 건너면 옆에 사당이 하나 있다.〕

王祥峯. 十里.

왕상령. 10리.

石門峯. 四里.〔西峯之路甚險.〕

석문령. 4리.〔서쪽 고갯길이 매우 험준하다.〕

王寶臺. 六里.〔冷井多野芹〕四十里. 十四日陰風. 中火.

왕보대. 6리.〔냉정(冷井)에 들미나리가 많다.〕여기까지 40리. 14일. 흐리고 바람. 점심을 먹었다.

高麗叢. 十里.〔有畚, 自此始出遼野, 遼野有千山.〕

고려층. 10리.〔논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요동 벌판이 시작된다. 요동 벌판에 천산(千山)이 있다.〕

阿彌庄. 五里.

| 아미장. 5리.

木廠. 五里.

| 목창. 5리.

太子河. 九里.〔或曰, 燕太子丹亡走處〕

| 태자하. 9리.〔혹자가 말하길 연(燕)나라 태자 단(丹)이 도망친 곳이라고 한다.〕

迎水寺. 一里.〔自柵至此, 稱東八站〕三十里. 宿所.

| 영수사. 1리.〔책문으로부터 여기까지를 동팔참(東八站)이라고 부른다.〕 여기
까지 30리. 하룻밤 묵었다.

接官廳. 十二里.〔路左築丈輓臺, 上有小閣.〕

| 접관청. 12리.〔길 왼쪽으로 벽돌로 쌓은 대(臺)가 있고, 그 위에 작은 누각이 있
다.〕

防虛所. 六里.

| 방허소. 6리.

三道把. 五里.〔自防虛所至此, 有烟臺舊址.〕

| 삼도파. 5리.〔방허소(防虛所)에서 여기까지가 연대(烟臺)의 옛터가 있다.〕

瀾泥堡. 五里.

| 난니보. 5리.

萬寶橋. 六里.〔橋傍有碑, 乃康熙丁亥立.〕

| 만보교. 6리.〔다리 옆에 있는 비석에 의하면 강희(康熙)연간 정해년에 세워진
것이다.〕

烟臺河堡. 四里.

| 연대하보. 4리.

山腰舖. 五里.

| 산요포. 5리.

五里臺. 五里.

| 오리대. 5리.

十里河堡. 七里.〔村中有小河, 河上有古城, 豆腐甚佳.〕五十五里. 十五日晴. 宿所.

| 십리하보. 7리.〔마을에 작은 하천이 있고 하천 위에 옛 성이 있다. 두부가 매우
맛있다.〕여기까지 55리. 15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板橋堡. 五里.

| 판교보. 5리.

長城店. 五里.

| 장성점. 5리.

古家子. 四里.

| 고가자. 4리.

沙河堡. 六里.〔有河橋.〕

| 사하보. 6리.〔하천에 다리가 있다.〕

暴交哇. 六里.

| 포교와. 6리.

毡匠舖. 四里.

전장포. 4리.

火燒橋. 二里.

화소교. 2리.

白塔堡. 八里.〔村中有白塔, 高十餘丈, 層爲十二, 有一石橋.〕四十里. 十六日晴. 中火.

백탑보. 8리.〔마을 안에 백탑(白塔)이 있으며 높이가 10여 장(丈)이고 12층으로 되어 있으며 석교(石橋)가 하나 있다.〕여기까지 40리. 16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一所臺. 五里.〔路有左右廟.〕

일소대. 5리.〔길의 좌우로 사당이 있다.〕

渾河堡. 五里.

혼하보. 5리.

渾河. 一里.〔耶里江, 有木橋, 河水出胡地, 流西南, 入太子河, 入遼河. 去瀋陽九里. 所孝廟在瀋時作亭子.〕

혼하. 1리.〔일명 야리강(耶里江)으로 목교(木橋)가 있다. 혼하(遼河)의 물은 호지(胡地)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태자하(太子河)로 들어가 요하(遼河)로 유입된다. 심양과 거리가 9리 정도 되는 곳으로 효묘(孝廟, 효종)가 심양에 있을 때 지은 정자이다.〕

瀋陽. 九里.〔奉天府盛京, 未及城一里有大寺, 白塔近城有水, 卽渾河之汎濫者. 古挹婁國, 唐瀋州, 遼興遼. 明衛, 天啓自五衛門, 一將軍, 一府尹. 瓮城門外, 有石橋, 城東察院, 卽丁丑後我人被虜所拘處. 北館卽見辱處, 西門外路北有雕甍大屋, 皆寺館.〕二十里. 宿所.

심양. 9리.〔봉천부(奉天府) 성경(盛京)으로 성(城)에 도착하기 1리 앞에 큰 절이 있다. 백탑 근처의 성에는 물이 있는데 혼하(渾河)가 범람한 것이다. 이곳은 옛 읍루국(挾婁國)으로 당나라 때는 심주(瀋州)였고, 요(遼)때는 흥료(興遼)였다. 명(明)때 위(衛)를 설치했다가 천계(天啓, 명나라 희종의 연호)때 다섯 위문(衛門)을 두면서 부터 장군 1명과 부윤 1명을 두었다. 웅성(瓮城) 문밖에는 석교(石橋)가 있고 성 동쪽에는 찰원(察院)이 있는데 곧 정축년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갇혀있던 곳이다. 북관(北館)은 치욕을 당했던 곳이고⁸, 서문밖 길 북쪽에는 무늬를 아로새긴 큰 기와집들이 있는데 모두 사찰이나 도관(道館)이다.〕여기까지 20리. 하룻밤 묵었다.

- 自柵至瀋陽, 四百四十五里.
- 책문(柵門)부터 심양(瀋陽)까지 445리

願堂寺. 五里.

원당사. 5리.

塔橋. 七里.

탑교. 7리.

方士村. 五里.

방사촌. 5리.

壯元橋. 五里.

장원교. 5리.

永安橋. 八里.〔築路始此, 凡三虹門, 有欄干獅子樣.〕三十里. 十七日晴. 中火.

영안교. 8리.〔축로(築路)⁹의 설치하는 이 다리가 시초이다. 모두 3개의 홍예문 수로가 있고 난간에는 사자 형상이 있다.〕여기까지 30리. 17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雙家子. 五里.

쌍가자. 5리.

大方身. 十里.

대방신. 10리.

磨刀橋. 五里.

마도교. 5리.

白邊站. 十里, 三十里. 宿所.

백변참. 10리, 여기까지 30리. 하룻밤 묵었다.

神農店. 十二里.

신농점. 12리.

孤家子. 十三里, 二十五里. 十八日晴. 中火.

고가자. 13리, 여기까지 25리. 18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周流河. 十里.〔巨流河. 出胡地, 入長城南流太子河, 入海. 三水合處謂三分關, 亦名三叉河. 二里許, 又渡一小水, 卽周流河之支流. 西岸有小邱, 上有空城, 其西皆蒙古居也.〕

주류하. 10리.〔거류하(巨流河)이다. 호지(胡地)를 나와서 장성 남쪽을 지나 태자하(太子河)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세 물이 합해지는 곳이라 삼분관(三分關) 또는 삼차하(三叉河)라고 한다. 2리쯤 가면 또 작은 물 하나를 건너는데 곧 주류하(周流河)의 지류이다. 서쪽 강가에 작은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빈 성이 있다. 그 서쪽은 모두 몽고인들이 사는 곳이다.〕

巨流河堡. 五里.

거류하보. 5리.

西店子. 二里.

| 서점자. 2리.

五道河. 三里.

| 오도하. 3리.

四方臺. 七里.

| 사방대. 7리.

郭家屯. 四里.

| 곽가둔. 4리.

新民屯. 四里, 三十五里. 宿所.

| 신민둔. 4리, 여기까지 35리. 하룻밤 묵었다.

小黃旗堡. 四里.

| 소황기보. 4리.

大黃旗堡. 八里.

| 대황기보. 8리.

柳河溝. 八里.

| 유하구. 8리.

石獅子. 十五里.

| 석사자. 15리.

營房. 十里.(古城子)

| 영방. 10리.(고성자(古城子)이다.)

白旗堡. 五里.(見醫巫閭山) 五十里. 十九日晴. 宿所.

백기보. 5리.(의무려산(醫巫閭山)이 보인다.) 여기까지 50리. 19일. 맑음. 하룻
밤 묵었다.

小白旗堡. 十二里.

소백기보. 12리.

新方. 五里.

신방. 5리.

一板門. 十三里.(半¹⁰扛門)

일판문. 13리.(반랍문(半拉門)이다.)

靠山屯. 八里.(王家子, 王八蓋子.)

곡산둔. 8리.(왕가자(王家子), 왕팔개자(王八蓋子)라고도 한다.)

二道井子. 十二里, 五十里. 二十日午風. 中火.

이도정자. 12리, 여기까지 50리. 20일. 오후에 바람. 점심을 먹었다.

神隱寺. 八里.

신은사. 8리.

新店. 二十二里.(胡家窩棚. 築路止.)

신점. 22리.(호가와붕(胡家窩棚)이다. ¹¹축로(築路)가 설치된 다리는 이 호가
와붕에서 끝난다.)

土子井. 二里.(過此以後, 始有烟臺, 或方或圓, 上有層台, 用設砲矢穴.)

토자정. 2리.(이곳을 지나면 비로소 연대가 있는데 각진 것과 둥근 것이 있다.
위에는 층대가 있고 대포 구멍과 활 구멍을 설치해 두었다.)

十里扛子. 八里.

십리강자. 8리.

烟臺. 五里.〔烟臺始此.〕

연대. 5리.〔연대가 이곳에서 시작된다.〕

小黑山. 五里.〔有西瓜皮黃綠〕五十里. 宿所.

소흑산. 5리.〔수박 껍질이 황녹색인 것이 있었다.〕여기까지 50리. 하룻밤 묵었다.

羊腸河. 十二里.

양장하. 12리.

中安堡. 十八里, 三十里. 二十一日晴. 中火.

중안보. 18리, 여기까지 30리. 21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于家臺. 五里.

우가대. 5리.

朝陽鋪. 三里.

조양포. 3리.

八望臺. 三里.

팔망대. 3리.

舊店里. 三里.

구점리. 3리.

二臺子. 六里.

| 이대자. 6리.

古家子. 三里.

| 고가자. 3리.

大古家子. 五里.

| 대고가자. 5리.

焦家店. 五里.

| 초가점. 5리.

廣寧站. 五里, 三十八里. 宿所.

| 광녕참. 5리, 여기까지 38리. 하룻밤 묵었다.

興隆店. 五里.

| 흥릉점. 5리.

雙河堡. 五里.

| 쌍하보. 5리.

北鎮堡. 五里.(城外有寺.)

| 북진보. 5리.(성 밖에 절이 있다.)

常興店. 五里.

| 상흥점. 5리.

二臺子. 二里.

| 이대자. 2리.

三臺子. 六里.

삼대자. 6리.

閭陽驛. 十二里.〔無樑屋始此.〕四十里. 二十二日晴. 中火.

여양역. 12리.〔들보가 없는 집이 여기부터 시작된다.〕여기까지 40리. 22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二臺子. 十里.

이대자. 10리.

三臺子. 五里.

삼대자. 5리.

四臺子. 五里.

사대자. 5리.

五臺子. 五里.

오대자. 5리.

望山堡. 五里.

망산보. 5리.

石山站. 十里.〔十三山.〕四十里. 宿所.

석산참. 10리.〔십삼산(十三山)이다.〕여기까지 40리. 하룻밤 묵었다.

三臺子. 四里.

삼대자. 4리.

禿老婆店. 八里.〔二臺子〕

독노파점. 8리.〔이대자(二臺子)이다.〕

大陵河. 十三里.〔甘同醯佳. 路過有四同碑, 先來例書過去日字.〕

대릉하. 13리.〔감동젓(甘同醯)이 맛이 좋다. 지나는 길에 사동비(四同碑)가 있는데 **선래군관(先來軍官)**¹²이 으레 지나가는 날짜를 적어둔다.〕

大陵河堡. 五里, 三十里. 二十三日風. 宿所.

대릉하보. 5리 여기까지 30리. 23일. 바람. 하룻밤 묵었다.

四同碑. 十二里.〔明將王平父子勅文之碑.〕

사동비. 12리.〔명나라 장수 왕평(王平) 부자의 칙문이 담긴 비석이다.〕

雙陽店. 八里, 二十里. 二十四日風雨雷. 宿所.

쌍양점. 8리, 여기까지 20리. 24일. 비, 바람, 번개. 하룻밤 묵었다.

小陵河堡. 五里.

소릉하보. 5리.

小陵河橋. 三里.〔抵錦州之路〕

소릉하교. 3리.〔금주(錦州)의 길과 닿아있다.〕

西店子. 一里.〔水手營〕

서점자. 1리.〔수수영(水手營)이다.〕

松山堡. 十四里.〔北過有一帶城, 城北里許山外, 卽錦州衛, 去此可十四里. 辛巳我國世子及大君, 自瀋陽至此, 以漢將祖大壽柳琳, 砲丸落於幙次, 隨汗伊移此處〕二十三里. 二十五日陰. 中火.

송산보. 14리.〔북쪽을 지나면 일대가 성이다. 성 북쪽으로 1리쯤의 산 바깥에 금주위(錦州衛)로 이곳과의 거리가 14리쯤 된다. 신사년(1641년)에 우리나라 세자와 대군이 심양(瀋陽)에서 출발하여 이곳에 이르렀는데 한나라 장수 조대

수(祖大壽)와 유림(柳琳)이 막차에 포환을 떨어뜨리니 칸(汗, 몽고족 우두머)을 따라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까지 23리. 25일. 흐림. 점심을 먹었다.

官馬山. 十三里.(有官馬塚)

관마산. 13리.(관마총(官馬塚)이 있다.)

杏山堡. 五里.(自大陵河至杏山店等地, 皆祖將洪承疇兩人戰敗地也.)

행산보. 5리.(대릉하에서 행산보까지 지역은 모두 장군 조대락(祖大樂)과 홍승주(洪承疇) 두 사람이 전투에서 패한 땅이다.)

十里河. 八里.

십리하. 8리.

高橋堡. 十里.(舊城在村北二里) 三十六里. 宿所.

고교보. 10리.(옛성은 마을 북쪽으로 2리 떨어진 곳에 있다.) 여기까지 36리. 하룻밤 묵었다.

朱家店. 二里.

주가점. 2리.

紅旗營. 五里.

홍기영. 5리.

塔山所. 五里.(天晴日朗時, 望鳴呼島, 見日出. 城中有寺.)

탑산소. 5리.(날씨가 청명한 날에 오후도(鳴呼島)를 바라보면 일출이 보인다. 성 안에 절이 있다.)

朱砂河. 五里.

주사하. 5리.

罩羅店. 二里.

| 조라점. 2리.

罩羅山. 一里.〔三義廟〕

| 조라산. 1리.〔삼의묘(三義廟)가 있다.〕

二臺子. 四里.

| 이대자. 4리.

連山驛. 六里, 三十里. 二十六日晴. 中火.

| 연산역. 6리, 여기까지 30리. 16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烟臺河. 五里.〔五里有石橋, 長春橋西有寺.〕

| 연대하. 5리.〔5리쯤에 석교가 있다. 장춘교(長春橋) 서쪽에는 절이 있다.〕

長春橋. 五里.

| 장춘교. 5리.

雙樹堡. 一里.〔有廟, 夾路種柳.〕

| 쌍수보. 1리.〔사당이 있으며 길가에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다.〕

雙石城. 一里.

| 쌍석성. 1리.

乾紫嶺. 二里.

| 건자령. 2리.

東八里堡. 八里.〔望鷄鳴山, 山頂有嘔血臺.〕

동팔리보. 8리.〔계명산(鷄鳴山)을 바라보면 산 정상에 구혈대(嘔血臺)가 보인다.〕

東頭臺. 二里.

동두대. 2리.

永寧寺. 一里.

영녕사. 1리.

寧遠衛. 五里, 三十里. 宿所.

영원위. 5리, 여기까지 30리. 하룻밤 묵었다.

靑墩臺. 六里.〔觀日出.〕

청돈대. 6리.〔일출을 보았다.〕

曹庄驛. 六里.

조장역. 6리.

七里坂. 六里.

칠리판. 6리.

五里橋. 七里.

오리교. 7리.

中右所. 五里.〔沙河所城南, 有一重城, 卽羅城也.〕三十里. 二十七日晴. 中火.

중우소. 5리.〔사하소(沙河所)의 성 남쪽에 겹성(重城)이 있는데 곧 나성(羅城, 성의 외곽에 쌓은 성)이다.〕여기까지 30리. 27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乾溝臺. 三里.

건구대. 3리.

烟臺河. 五里.〔有廟見海.〕

연대하. 5리.〔사당이 있는데 바다가 보인다.〕

半拉店. 五里.

반랍점. 5리.

望海店. 二里.

망해점. 2리.

曲尺河. 五里.

곡척하. 5리.

三里橋. 七里.

삼리교. 7리.

東關驛. 三里.

동관역. 3리.

二臺子. 五里.〔有廢烟臺, 觀日出.〕

이대자. 5리.〔폐허가 된 연대(烟臺)에서 일출을 보았다.〕

三臺子. 五里.

삼대자. 5리.

六渡河橋. 五里.〔有板橋, 有廟.〕

육도하교. 5리.〔판교와 사당이 있다.〕

中後所. 三里.〔近南六百步, 有羅城.〕 四十八里. 宿所.

중후소. 3리.〔남쪽으로 6백보쯤 가면 나성(羅城, 성의 외곽에 쌓은 성)이 있다.〕 여기까지 48리. 하룻밤 묵었다.

一臺子. 五里.

일대자. 5리.

二臺子. 四里.

이대자. 4리.

三臺子. 三里.〔有廟.〕

삼대자. 3리.〔사당이 있다.〕

沙河站. 六里.〔有壞城, 有關廟.〕

사하참. 6리.〔무너진 성이 있고 관제묘가 있다.〕

雙墩臺. 四里.

쌍돈대. 4리.

板橋. 四里.

판교. 4리.

葉家墳. 四里.

엽가분. 4리.

口魚河屯. 二里.

구어하둔. 2리.

口魚河橋. 三里.

구어하교. 3리.

亮水河. 七里, 四十二里. 二十八日風. 中火.

양수하. 7리, 여기까지 42리. 28일. 바람. 점심을 먹었다.

滿井河. 四里.

만정하. 4리.

前屯衛. 四里.〔自中後至此, 無大野, 山皆土也. 往往有翠峰, 有寺.〕

전둔위. 4리.〔중후소(中後所)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큰 들이 없으며 산은 모두 토산으로 이따금씩 푸른 산봉우리가 있고 절이 있다.〕

王家臺. 五里.

왕가대. 5리.

望江臺. 三里.

망강대. 3리.

王濟溝. 四里.

왕제구. 4리.

頭封河. 五里.

두봉하. 5리.

高岑驛. 五里.〔有石橋.〕

고령역. 5리.〔석교(石橋)가 있다.〕

小松岑溝. 三里.

소송령구. 3리.

大松岑溝. 五里.〔登後原, 見海.〕

대송령구. 5리.〔뒗동산에 오르니 후원에서 바다가 보인다.〕

中前所. 七里, 四十七里. 宿所.

중전소. 7리, 여기까지 47리. 하룻밤 묵었다.

大石橋. 七里.

대석교. 7리.

兩水湖. 三里.

양수호. 3리.

老軍屯. 五里.

노군둔. 5리.

王家庄. 二里.

왕가장. 2리.

八里堡. 十里.〔姜女廟, 卽孟姜, 其夫范朗.〕

팔리보. 10리.〔강녀묘(姜女廟)가 있다. 이름은 맹강(孟姜)이고 남편은 범랑(范朗)이다.〕

四方城子. 五里.〔將臺〕二十七里. 二十九日風. 中火.

사방성자. 5리.〔장대(將臺)가 있다.〕 여기까지 27리. 29일. 바람. 점심을 먹었다.

山海關. 二里.〔有望海亭. 知聖樓. 樓傍有台, 台上有一穴, 穴通于海. 去城數里, 有石河水, 卽吳三桂破李自成父. 角山寺在關西北, 頂有鄉校.〕

산해관. 2리.〔망해정(望海亭)과 지성루(知聖樓)가 있다. 지성루 곁에 누대가 있는데 대 위에 구멍이 있으며 구멍은 바다로 통해 있다. 성에서 몇리쯤 떨어진 곳에 석하(石河)라는 물이 흐르는데, 곧 오삼계(吳三桂)가 이자성(李自成)과 자신의 아버지 오양(吳襄)을 격파한 곳이다. 각산사(角山寺)는 산해관의 서북쪽에 있고 정상에는 향교(鄉校)가 있다.〕

- 自瀋陽至山海關, 七百八十七里.
- 심양(瀋陽)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787리.

深河. 一里.

심하. 1리.

五里臺. 四里.

오리대. 4리.

紅花店. 三里.〔墩臺始此.〕十六里. 宿所.

홍화점. 3리.〔돈대(墩臺)가 이곳에서 시작된다.〕여기까지 총 16리. 하룻밤 묵었다.

樂家嶺. 二里.

난가령. 2리.

吳家嶺. 四里.

오가령. 4리.

二十里堡窪. 六里.

이십리보와. 6리.

范家庄. 十里.

범가장. 10리.

湯河. 三里.

탕하연. 3리.

大理營. 七里.(浪河)

대리영. 7리.(낭하(浪河)이다.)

王家嶺. 二里.

왕가령. 2리.

鳳凰店. 三里.

봉황점. 3리.

望海店. 十里.

망해점. 10리.

1. 者：*字 ※"碑石隅二里,有沒字碑" ※《계산기정·제5권·附錄》↩

2. 松隅. 三里. : 원문에 중복되어 있다. 연행에서 돌아와 다시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 듯 하다. ↩

3. 台：*臺 ※문맥상 ↩

4. 台：*臺 ※문맥상 ↩

5. 𪔐：*𪔐 ↩

6. 手：*水 ※문맥상 ↩

7. 鵲：*鵲 ※문맥상 ↩

8. 북관(北館)은 치욕을 당했던 곳이고 : 병자호란에 척화(斥和)를 주장한 김

상헌은 청 나라에서 명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出兵)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심양(瀋陽)으로 잡혀가 북관(北館)에 구류되었다. 이듬해 의주에 돌아왔으나, 조선이 명을 숭배하고 청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다시 북관에 재차 구류되었다. ↩

9. 축로(築路) : 축로는 다리와 땅이 연결되는 부분에 땅 안쪽 깊숙한데까지 팔(八)자 형태로 길을 높여 만들고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 물이 다리를 넘쳐흐르는 것을 막은 것이다. 대개 송덕(崇德) 6년(1641, 인조19)에 칙건(勅建)한 것으로 이 영안교가 축로의 시초이다. 요양 서쪽은 지세가 낮아서 우묵하게 파여 늘 진펄(沮洳)을 염려했기 때문에 천총(天聰, 1627 - 1636) 때 영안교에서 시작하여 신점(新店, 호가와붕)을 끝으로 200여 리에 걸쳐 설치하였다고 한다. ※《薊山紀程 第2卷、渡灣、永安橋》, 《隨槎錄 卷2、遊賞隨筆上、永安橋》 내용 참조 ↩

10. 扛 : *拉 ※문맥상 ↩

11. 축로(築路) : 축로는 다리와 땅이 연결되는 부분에 땅 안쪽 깊숙한데까지 팔(八)자 형태로 길을 높여 만들고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 물이 다리를 넘쳐흐르는 것을 막은 것이다. 대개 송덕(崇德) 6년(1641, 인조19)에 칙건(勅建)한 것으로 이 영안교가 축로의 시초이다. 요양 서쪽은 지세가 낮아서 우묵하게 파여 늘 진펄(沮洳)을 염려했기 때문에 천총(天聰, 1627 - 1636) 때 영안교에서 시작하여 신점(新店, 호가와붕)을 끝으로 200여 리에 걸쳐 설치하였다고 한다. ※《薊山紀程 第2卷、渡灣、永安橋》, 《隨槎錄 卷2、遊賞隨筆上、永安橋》 내용 참조 ↩

12. 선래군관(先來軍官 : 사신단이 임무를 마치면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사신보다 앞서서 돌아오는 군관을 말한다. ↩



九月 9월

深河驛. 五里, 五十二里. 九月初一日晴. 中火.

| 심하역. 5리, 여기까지 52리. 9월 1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高臺峯堡. 八里.

| 고대령보. 8리.

網子店. 二里.〔王家店〕

| 망자점. 2리.〔왕가점(王家店)이 있다.〕

馬棚子. 六里.

| 마봉자. 6리.

石子河. 一里.

| 석자하. 1리.

榆關. 三里.

| 유관. 3리.

宋家庄. 三里.

| 송가장. 3리.

上白石堡. 二里.

| 상백석보. 2리.

下白石堡. 三里.

| 하백석보. 3리.

吳家嶺. 四里.

오가령. 4리.

撫寧縣. 八里.(文笔峰在西南.) 四十里. 宿所.

무녕현. 8리.(문필봉(文笔峰)은 서남쪽에 있다.) 여기까지 40리. 하룻밤 묵었다.

羊河. 一里.

양하. 1리.

五里堡. 四里.(小李家庄.)

오리보. 4리.(작은 이가장(李家庄)이 있었다.)

盧家店. 二里.

노가점. 2리.

十里臺堡. 三里.

십리대보. 3리.

蘆峯口. 五里.(南北有高峯.)

노봉구. 5리.(남북으로 높은 봉우리가 있다.)

茶棚庵. 六里.

다봉암. 6리.

飲馬河. 三里.

음마하. 3리.

背陰堡. 三里.(多松林.)

배음보. 3리.〔소나무 숲이 많다.〕

雙望堡. 八里, 三十五里. 初二日晴. 中火.

쌍망보. 8리, 여기까지 35리. 2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吳獐子店. 三里.

오달자점. 3리.

腰站. 二里.

요참. 2리.

部落嶺. 五里.

부락령. 5리.

二十里堡. 二里.

이십리보. 2리.

十八里堡. 三里.〔古蘆龍塞, 西有石橋小廟.〕

십팔리보. 3리.〔옛날의 노룡새(蘆龍塞)이다. 서쪽에 석교(石橋)와 작은 사당이 있다.〕

白沙河. 七里.

백사하. 7리.

驢子河. 八里.

여자하. 8리.

漏澤園. 三里.

누택원. 3리.

永平府. 二里.〔古右¹平〕三十五里. 宿所.

영평부. 2리.〔옛 우북평(右北平)이다.〕여기까지 35리. 하룻밤 묵었다.

靑龍河. 一里.

청룡하. 1리.

南坵店. 四里.

남구점. 4리.

灤河. 一里.〔夷齊廟, 西有首陽山.〕

난하. 1리.〔이제묘(夷齊廟)가 있다. 서쪽에는 수양산(首陽山)이 있다.〕

鴨子河. 四里.

압자하. 4리.

范家店. 六里.

범가점. 6리.

望夫臺. 四里.

망부대. 4리.

安河店. 八里.

안하점. 8리.

赤紅堡. 六里.

적홍보. 6리.

野鷄坨. 六里, 四十里. 初三日陰風. 中火.

야계타. 6리, 여기까지 40리. 3일. 흐리고 바람. 점심을 먹었다.

沙河屯. 八里.

| 사하둔. 8리.

張家庄. 八里.(棗庄)

| 장가장. 8리.(조장(棗庄)이다.)

沙河驛. 四里.(有帽子) 二十里. 宿所.

| 사하역. 4리.(모자점(帽子店)이 있다.²⁾ 여기까지 총 20리. 하룻밤 묵었다.

紅廟. 五里.(三官廟)

| 홍묘. 5리.(삼관묘(三官廟)이다.)

馬舖營. 五里.

| 마포영. 5리.

七家嶺. 五里.

| 칠가령. 5리.

新店子. 五里.(有山城.)

| 신점자. 5리.(산성(山城)이 있다.)

乾河草. 五里.

| 건하초. 5리.

五家店. 四里.

| 오가점. 4리.

新平店. 四里.

| 신평점. 4리.

張家店. 二里.

| 장가점. 2리.

扛牛橋. 四里.

| 강우교. 4리.

蓮花池. 一里.

| 연화지. 1리.

青龍橋. 九里.

| 청룡교. 9리.

榛子店. 一里, 五十里. 初四日晴. 中火.

| 진자점. 1리, 여기까지 50리. 4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烟墩臺. 十里.

| 연돈대. 10리.

白草窪. 七里.

| 백초와. 7리.

鐵城坎. 三里.

| 철성감. 3리.

牛欄山. 五里.

| 우난산. 5리.

小鈴河. 四里.

| 소령하. 4리.

板橋. 一里.〔良³漢의舊居地.〕

판교. 1리.〔양한지〔養漢的, 창녀〕의 옛 주거지이다.〕

銀城堡. 五里.〔有關廟.〕

은성보. 5리.〔관제묘가 있다.〕

五里臺. 十里.

오리대. 10리.

豐潤縣. 五里.〔文明閣, 文昌閣.〕五十里. 宿所.

풍운현. 5리.〔문명각(文明閣)과 문창각(文昌閣)이 있다.〕여기까지 50리. 하룻
밤 묵었다.

趙家店. 五里.

조가점. 5리.

張家店. 一里.

장가점. 1리.

還香河. 二里.

환향하. 2리.

魯家店. 二里.

노가점. 2리.

高麗店. 五里.〔有水田.〕

고려점. 5리.〔수전(水田)이 있다.〕

沙子河. 五里.〔廣而淺.〕

사자하. 5리.〔넓고 얇다.〕

軟鷄鋪. 五里.

연계포. 5리.

新坊. 三里.

신방. 3리.

李家店. 五里.

이가점. 5리.

沙流河. 七里, 四十里. 初五日晴. 中火.

사류하. 7리, 여기까지 40리. 5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兩水橋. 十里.

양수교. 10리.

兩家店. 五里.

양가점. 5리.

二十里堡. 五里.

이십리보. 5리.

十五里屯. 五里.

십오리둔. 5리.

東八里堡. 七里.

동팔리보. 7리.

龍池⁴庵. 三里.〔北有寺, 皇帝出獵時所憩處, 故因名.〕

용지암. 3리.〔북쪽에 절이 있는데 황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쉬어가던 곳으로
이로 인하여 용지암이라고 이름하였다.〕

玉田縣. 五里.〔燕昭王塚, 在無終山, 漢陽雍伯, 種石得玉, 故名. 縣西北雍伯舊居.〕
四十里. 宿所.

옥전현. 5리.〔연(燕) 소왕(昭王)의 무덤이 무종산(無終山)에 있다. 한나라 양옹
백(陽雍伯)이 돌을 심고 옥을 얻었던 까닭으로 옥전현이라 이름하였다. 옥전
현 서북쪽에 양옹백이 살았던 곳이다.〕 여기까지 40리. 하룻밤 묵었다.

西八里堡. 八里.〔西門內有臥佛寺, 東南間一江橫野, 乃魚陽河下流也.〕

서팔리보. 8리.〔서문(西門) 안에 와불사(臥佛寺)가 있다. 동남쪽에는 강 하나
가 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는데 어량하(魚陽河)의 하류이다.〕

黃家店. 七里.〔五里屯.〕

황가점. 7리.〔오리둔(五里屯)이 있다.〕

彩亭橋. 五里.

채정교. 5리.

大枯樹店. 十里.

대고수점. 10리.

小枯樹店. 一里.〔有棗林.〕

소고수점. 1리.〔대추나무 숲이 있다.〕

蜂山店. 四里.

봉산점. 4리.

螺山店. 三里.〔有宋家庄.〕

나산점. 3리.〔송가장(宋家庄)이 있다.〕

梯子山. 七里.

제자산. 7리.

鰲山店. 五里.〔有宋家庄, 家富鉅萬. 明末私築此城, 清人攻之不下. 明亡後降.〕五十里. 初六日晴. 中火.

별산점. 5리.〔송가장(宋家庄)으로 송씨 집안이 엄청난 부를 이루어 명말에 사재로 이 성을 축성하였다. 청인(淸人)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다가 명이 망한 후에야 항복하였다.〕여기까지 50리. 6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二里店. 二里.

이리점. 2리.

現渠. 八里.

현거. 8리.

三家庄. 三里.

삼가장. 3리.

雲田寺. 四里.

운전사. 4리.

翠屏山. 三里.〔水湖傳所謂楊雄殺潘巧雲處也. 山下有兩石人, 世傳楊雄石秀像. 山有松, 轉一隅望薊州.〕

취병산. 3리.〔《수호전(水湖傳)》에서 양웅이 반교운(潘巧雲)을 죽인 곳이다. 산 아래에는 사람 형상의 돌이 두개 있는데 세간에 전하기를 양웅(楊雄)과 석수(石秀)의 상⁵이라고 한다. 산에는 소나무가 있고 한 모퉁이를 돌면 계주(薊州)가 보인다.〕

八里堡. 二里.

팔리보. 2리.

漁陽橋. 三里.〔東五里橋, 小於灤河, 色濁.〕

어양교. 3리.〔동오리교(東五里橋)이다. 난하(灤河)보다 작고 물의 색이 탁하다.〕

貫日庄. 二里.

관일장. 2리.

薊州. 三里.〔古漁陽. 北盤山有獨樂寺, 舜之子封于此, 祿山所住處, 故有廟. 有崆峒山, 有盤龍山.〕

계주. 3리.〔고어양(古漁陽)이다. 북쪽 반산(盤山)에 독락사(獨樂寺)가 있는데 순임금의 아들이 이곳에 봉하여졌고 안록산(安祿山)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사당이 있다. 공동산(崆峒山)과 반룡산(盤龍山)이 있다.〕

五里橋. 五里.〔波深. 有廟, 俗名卽楊妃橋⁶.〕

오리교. 5리.〔물결이 깊다. 사당이 있는데 세간에서 양비묘(楊妃廟, 양귀비의 사당)라고 부른다.〕

徐家店. 十里.

서가점. 10리.

邦均店. 十五里, 六十里. 宿所.

방균점. 15리, 여기까지 60리. 하룻밤 묵었다.

白澗店. 十二里.〔有尼姑庵, 南香花庵, 寺中有南京松, 寺西有寺, 寺中有倉屋.〕

백간점. 12리.〔니고암(尼姑庵)이 있다. 남쪽에 향화암(香花庵)이 있는데 절 안에 남경송(南京松)이 있다. 절 서쪽에도 절이 있는데 절 안에 곳집이 있다.〕

公樂店. 五里.

| 공락점. 5리.

段家嶺. 三里.

| 단가령. 3리.

石碑舖. 十里.

| 석비포. 10리.

滹沱河. 五里.〔錯河橋. 史記, 漢光武, 以應王郎, 及南走滹沱, 以冰渡薊州.〕

| 호타하. 5리.〔차하교(錯河橋)이다. 《史記》에 '한(漢) 광무제가 계주지역이 왕량(王郎)을 따르므로 남쪽으로 도망하여 호타하에서 얼음 위로 계주(薊州)로 건너갔다.'고 한다.⁷⁾〕

三河縣. 五里.〔古臨駒縣.〕

| 삼하현. 5리.〔옛 임구현(臨駒縣)이다.〕

棗林庄. 六里, 四十六里. 初七日〔或晴或陰〕中火.

| 조림장. 6리, 여기까지 46리. 7일.〔맑다가 흐림〕점심을 먹었다.

白浮圖. 六里.

| 백부도. 6리.

新店. 六里.

| 신점. 6리.

皇親店. 六里.

| 황친점. 6리.

夏店. 六里.

| 하점. 6리.

柳河屯. 六里.

| 유하둔. 6리.

馬起乏. 六里.〔馬起舖〕

| 마기핍. 6리.〔마기포(馬起舖)이다.〕

燕郊堡. 八里, 四十四里. 宿所.

| 연교보. 8리, 여기까지 44리. 하룻밤 묵었다.

方家庄. 三里.〔師古庄〕

| 방가장. 3리.〔사고장(師古庄)이다.〕

胡家庄. 四里.

| 호가장. 4리.

習家庄. 二里.

| 습가장. 2리.

白河. 二里.

| 백하. 2리.

通州. 一里.〔石路始此.〕十七里. 初八日晴. 宿所.

| 통주. 1리.〔돌길이 여기부터 시작된다.〕여기까지 17리. 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八里橋. 八里.〔永通橋, 卽運漕之路.〕

팔리고. 8리.〔영통교(永通橋)이다. 곧 선박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길이다.〕

管家庄. 二里.

관가장. 2리.

楊家閘. 二里.

양가갑. 2리.

三間房. 三里.

삼간방. 3리.

定府庄. 三里.

정부장. 3리.

大王庄. 二里.

대왕장. 2리.

太平店. 二里.

태평점. 2리.

十里堡. 三里.

십리보. 3리.

八里堡. 二里.

팔리보. 2리.

紅門. 三里.〔橋變有三大路.〕

홍문. 3리.〔다리 옆에 3개의 큰 길이 있다.〕

彌勒院. 三里.

미륵원. 3리.

東岳廟. 五里.

동악묘. 5리.

朝陽門. 二里, 四十里. 初九日晴. 入燕.

조양문. 2리, 여기까지 40리. 9일. 맑음. 연경에 들어갔다.

- 自山海關至皇城, 六百六十七里, 合三千六十九里.
- 산해관(山海關)부터 황성(皇城)까지 667리 합하여 3,069리.
- 留三十九日 十月十七日離發
- 39일 머무르고 10월 17일 떠남.

1. 府 : *北 ※문맥상 ↩

2. 모자점(帽子店)이 있다. : 沙河堡八里, 沙河驛十二里宿站, 合二十里. 王官廟五里, 馬鋪營五里, 一名七家嶺, 古有帽子店. ※이갑(李), 《燕行記事》↩

3. 良 : *養 ※문맥상 ↩

4. 庵 : *菴 ※문맥상 ↩

5. 양웅(楊雄)과 석수(石秀)의 상 : 《청장관전서》 권60 양엽기(盎葉記)에 군도(群盜)의 앞잡이를 나열해 두었는데 그 중 새관삭(賽關索) 양웅(楊雄)과 반명삼랑(拚命三郎) 석수(石秀)가 있다. 도적이었으나 성여(聖予)가 낱낱이 찬(贊)을 짓고 또 이어 서(序)를 붙여 놓았다. ↩

6. 橋 : *廟 ※문맥상 ↩

7. 《史記》에 '한(漢) 광무제가 계주지역이 왕랑(王郎)을 따르므로 남쪽으로 도망하여 호타하에서 얼음 위로 계주(薊州)로 건너갔다.'고 한다. : 《연원직지》

의 내용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按史記.光武北至薊州.州反應王郎.光武南走至滹沱河.以冰渡云.薊州.卽今北京也.以此見之.滹沱河在北京之南.而不在其北也.世以今之薊州.認爲古之薊州.而遂以此水爲光武所渡處.非也." ※《燕輶直指 卷之二、出疆錄、壬辰十二月

↩



十月 10월

通州. 四十里. 十七日晴. 宿所.

통주. 40리. 17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燕郊堡. 十七里. 十八日晴. 中火.

연교보. 17리. 18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棗林庄. 四十四里. 宿所.

조림장. 44리. 하룻밤 묵었다.

邦均店. 四十六里. 十九日陰微雪. 中火.

방균점. 46리. 19일. 흐리고 약간 눈. 점심을 먹었다.

鰲山店. 六十里. 宿所.

별산점. 60리. 하룻밤 묵었다.

玉田縣. 五十里. 二十日晴風. 宿所.

옥전현. 50리. 20일. 맑고 바람. 하룻밤 묵었다.

沙流河. 四十里. 二十一日風寒. 中火.

사류하. 40리. 21일. 바람 불고 추움. 점심을 먹었다.

豐潤縣. 四十里. 宿所.

풍운현. 40리. 하룻밤 묵었다.

榛子店. 五十里. 二十二日寒. 中火.

진자점. 50리. 22일. 추움. 점심을 먹었다.

沙河驛. 五十里. 宿所.

| 사하역. 50리. 하룻밤 묵었다.

永平府. 六十里. 二十三日大寒. 宿所.

| 영평부. 60리. 23일. 몹시 추움. 하룻밤 묵었다.

撫寧縣. 七十里. 二十四日陰風寒. 宿所.

| 무녕현. 70리. 24일. 흐리고 바람불며 추움. 하룻밤 묵었다.

紅花店. 九十二里. 二十五日晴寒. 宿所.

| 홍화점. 92리. 25일. 맑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中前所. 四十二里. 二十六日晴. 宿所.

| 중전소. 42리. 26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中後所. 八十九里. 二十七日晴. 宿所.

| 중후소. 89리. 27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寧遠衛. 七十八里. 二十八日晴. 宿所.

| 영원위. 78리. 2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高橋堡. 六十里. 二十九日風寒. 宿所.

| 고교보. 60리. 29일. 바람 불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十一月 11월

雙陽店. 五十九里. 十一月初一日陰風寒. 宿所.

쌍양점. 59리. 11월 1일. 흐리고 바람 불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石山站. 五十里. 初二日陰寒. 宿所.

석산참. 50리. 2일. 흐리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廣寧站. 八十里. 初三日晴寒. 宿所.

광녕참. 80리. 3일. 맑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小黑山. 六十八里. 初四日晴寒. 宿所.

소흑산. 68리. 4일. 맑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白旗堡. 一百里. 初五日風寒. 宿所.

백기보. 100리. 5일. 바람 불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孤家子. 八十五里. 初六日晴寒. 宿所.

고가자. 85리. 6일. 맑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瀋陽. 八十五里. 初七日晴. 宿所.

심양. 85리. 7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十里河堡. 六十里. 初八日晴. 宿所.

십리하보. 60리. 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迎水寺. 五十五里. 初九日陰. 宿所.

영수사. 55리. 9일. 흐림. 하룻밤 묵었다.

狼子山. 七十里. 初十日晴. 宿所.

낭자산. 70리. 10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連山關. 七十里. 十一日晴. 宿所.

연산관. 70리. 10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通遠堡. 五十五里. 十二日晴. 中火.

통원보. 55리. 12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黃家庄. 三十五里. 宿所.

황가장. 35리. 하룻밤 묵었다.

四台¹子. 五十四里. 十三日晴. 中火.

사대자. 54리. 13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柵門. 五十一里. 宿所.

책문. 51리. 하룻밤 묵었다.

- 十四日. 留.
- 14일. 하루 머물렀다.

金石山. 六十里. 十五日陰寒. 露宿.

금석산. 60리. 15일. 흐리고 추움. 노숙하였다.

義州. 六十里. 十六日晴寒. 宿所.

의주. 60리. 16일. 맑고 추움. 하룻밤 묵었다.

- 十七日. 留
- 17일. 하루 머물렀다.

龍川. 七十五里. 十八日晴. 宿所.

| 용천. 75리. 18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鐵山. 三十里. 十九日晴. 中火.

| 철산. 30리. 19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宣川. 四十五里. 宿所.

| 선천. 45리. 하룻밤 묵었다.

郭山. 五十里. 二十日陰風. 中火.

| 곽산. 50리. 20일. 흐리고 바람. 점심을 먹었다.

定州. 三十里. 宿所.

| 정주. 30리. 하룻밤 묵었다.

納清亭. 二十一日陰.

| 납청정. 21일. 흐림.

嘉山. 六十里. 中火.

| 가산. 60리. 점심을 먹었다.

安州. 五十里. 宿所.

| 안주. 50리. 하룻밤 묵었다.

肅川. 六十里. 二十二日晴. 宿所.

| 숙천. 60리. 22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順安. 六十里. 二十三日晴. 宿所.

| 순안. 60리. 23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平壤. 五十里. 二十四日晴. 宿所.

| 평양. 50리. 24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中和. 五十里. 二十五日晴. 中火.

| 중화. 50리. 25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黃州. 五十里. 宿所.

| 황주. 50리. 하룻밤 묵었다.

鳳山. 四十里. 二十六日晴. 宿所.

| 봉산. 40리. 26일. 맑음. 하룻밤 묵었다.

劍水. 三十里. 二十七日晴. 中火.

| 검수. 30리. 27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瑞興. 四十里. 宿所.

| 서흥. 40리. 하룻밤 묵었다.

蔥秀. 五十里. 二十八日晴. 中火.

| 충수. 50리. 28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平山. 三十里. 宿所.

| 평산. 30리. 하룻밤 묵었다.

金川. 三十里. 二十九日晴. 中火.

| 금천. 30리. 29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松京. 七十里. 宿所.

| 송경. 70리. 하룻밤 묵었다.

長湍. 四十五里. 三十日晴. 中火.

장단. 45리. 30일. 맑음. 점심을 먹었다.

坡州. 三十五里. 中火.

파주. 35리. 점심을 먹었다.

高陽. 四十里. 宿所.

고양. 40리. 하룻밤 묵었다.

京. 四十里. 十二月初一日晴. 入城.

한양. 40리. 12월 1일. 맑음. 입성(入城)하였다.

1. 台 : *臺 ※문맥상 ↩

해제

들어가며

《연행일기》의 저자 황도순(黃道淳, 해암 황도연)¹은 1808년 출생하여 내의원 의관을 지내기도 하였던 인물로 《부방편람(附方便覽, 1855)》, 《의종손익(醫宗損益, 1868)》,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 1868)》, 《의방활투(醫方活套, 1869)》 등 활용성이 높은 의서를 편찬하였다. 그 중 《방약합편》은 처음 출간된 1885년부터 1988년까지 20여 차례 수정증보판이 나왔고 최근까지도 10여 차례 수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² 《방약합편》, 《의종손익》을 비롯한 황도연의 저서에 대한 연구는 그간의 수많은 논문을 통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나 여러 논문에서 주지했던 것처럼 황도연의 삶을 조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창원황씨족보(昌原黃氏族譜)》에도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승정원일기》의 일부 자료와 그의 저작에 담긴 서발문, 그리고 《의종손익》 등 의서에 증보해 놓은 의론을 통해 그의 삶의 조각들을 맞추어보는 정도였다. 황도순 《연행일기》는 그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연행 기록이자 장서(藏書)하고 있던 수택본이라는 점,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황도순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사학이나 서지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연행일기》 소장처 및 서지사항

황도순의 《연행일기》는 일본 동양문고 자료검색 서비스에서 '朝鮮憲宗十五(1849년) 朝鮮黃惠翁³《燕行日記》(청구기호VII-2-291-0)'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동양

문고의 서적 원문이미지 일부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저자미상의 《연행일기》는 고서-일기류로 분류되어 제공 중이다.⁴ 본 《연행일기》는 단권 62장(張)의 서적으로 크기는 세로 23.5cm, 가로 16.5cm이며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그림1] 《연행일기》 원문⁵

KRpia에서도 조선시대 사신들의 연행록을 영인하여 출간한 《연행록총간(燕行錄叢刊)》을 온라인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1849년에 쓰여진 연행일기는 이계조의 《연행일기》와 저자미상의 《연행일기》 2권⁶이 있다. 그 중 저자미상의 《연행일기》는 서지사항과 서체가 동양문고본과 같고 '燕行日記序' 아래 부분이 헤치면서 생긴 얼룩의 모양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판본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동양문고에 소장된 것이 유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문고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서지사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장처 : 日本 東洋文庫⁷
- 청구기호 : VII-2-291-0
- 자료명 : 燕行日記
- 출판사항 : 朝鮮哲宗一(道光二十九年)(1849년)
- 형태서지 : 1冊(62張) : 無界, 10行23字 註雙行 ; 23.5x16.5 cm
- 주기사항 : 序: [己酉(1849)]崔日奎序
- 판종 : 필사본
- 저자 : 黃惠翁
- 장정(裝訂) : 四針眼
- 卷末: 正使 朴晦壽 副使 李根友[等], 己酉七月十七日燕行往還路程記

2. 《연행일기》 간행 배경

1849년(己酉) 6월 6일 헌종이 승하하자 영묘조(英廟朝, 영조대왕)의 남은 유일한 혈맥인 철종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철종은 정조의 종손이자 순조의 종질이며 헌종에게는 재종숙으로 당시 나이가 19세였다. 6월 9일 강화에서 철종이 탄 어가가 도착하자 바로 즉위하였다. 6월 11일은 초상 후 처음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하는 날로 전례에 따라 '고부청시겸승습주청사(告訃請諡兼承襲奏請使)' 즉, 전왕이었던 헌종의 시호(諡號)와 사왕(嗣王)인 철종의 승습(承襲)을 아울러 청하기 위해 사신을 차출하였는데 이번 사행할 사신을 판부사 권돈인(權敦仁), 좌의정 김도희(金道喜), 판부사 박회수(朴晦壽) 중 박회수를 정사(正使)로 낙점하였다. 이어 부사(副使)로 이근우(李根友)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심돈영(沈敦永)을 낙점하였다. 한 달여간 사행을 같이 갈 사람을 차출하고 공문서와 마른 식량을 준비하며 방물(方物)의 품결을 살펴보는 등의 일을 진행하였다. 7월 17일 박회수, 이근우, 심돈영 세 사신이 입시하니 철종이 세 사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먼 길을 무사히 다녀오기를 위로하였다.⁸ 그즈음 7월 4일 사과(司果) 황혜웅(黃惠翁)도 특별히 은혜를 입어 고부청시겸승습주청사(告訃請諡兼承襲奏請使)로서 사행을 가는 박회수를 따라 태의(太醫)로서 교지를 받았다.⁹ 이렇게 박회수, 심돈영을 비롯한 일행이 7월 17일 연경으로 출발하였다. 1849년 7월 고부청시겸승습(告訃請諡兼承襲)을 목적으로 사행을 다녀오면서 쓰여진 연행 기록은 심돈영(沈敦永)의 《연행록(燕行錄)》¹⁰과 황혜웅(黃惠翁)의 《연행일기(燕行日記)》¹¹가 현재 남아있다.

3. 《연행일기》의 구성 및 내용

《연행일기》는 따로 목록은 없지만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과 연행일기(1849년 8월7일-10월16일)가 있고 그 뒤에 부록처럼 태학(太學), 노구교(蘆溝橋), 풍속(風俗), 소산(所産), 연대팔경(燕臺八景)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는 일행목록을 간략하게 써두었고 끝으로 노정기(1849년 8월7일-12월1일)를 첨부하였다. 황도순의 《연행일기》는 노정기의 마지막 기록인 12월 1일 40리를 걸어 한양에 도착하면서 끝이 난다.

1) 서문

서문을 써준 최일규(崔日奎)는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서문에 기록된 바 '경술년(1850년) 1월 함께 숙직하였던 사이'¹²라는 것을 단서로 찾아본 결과 희경(義卿) 최일규(崔日奎)로 추정된다. 희경(義卿) 최일규(崔日奎)는 황도순이 동참(同參)으로 임명(1847년)¹³되었던 것보다 먼저 내침의(內鍼醫)와 부사용(副司勇)을 지냈고 1843년 침의(鍼醫)를 지냈던 인물로 함께 내의원에서 숙직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⁴ 다음은 최일규가 쓴 서문의 일부이다.

기유년(1849년) 7월 상공(相公) 박회수가 전왕이었던 헌종의 시호를 청하고 겸하여 사왕(嗣王)인 철종의 승습(承襲)¹⁵을 주청하는 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이 때 동료인 사과(司果) 황혜옹(黃惠翁)도 특별히 태의(太醫)로서 천은을 입어 칙사의 말을 타고 꽃이 뒤덮인 평원과 진펄을 부지런히 달려[驛馬華蓋, 原隰駢駢]¹⁶ 그 해 12월 《시경》의 '우설분분(雨雪紛紛)¹⁷장을 읊으며 깃발을 돌려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경술년(1850년) 1월 마침 함께 숙직하게 되었는데 동료 황혜옹이 소매에서 노정기(路程記) 1축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평생 한번 가보길 바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지라 놀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바쁘게 손을 놀려 열람하였다.¹⁸

서문에는 사과(司果)였던 황도순이 상공 박회수를 따라 태의(太醫)로서 교지를 받아 사행을 가게 된 내용과 12월 겨울에 사행에서 돌아온 황도순과 함께 1월에 숙직을 하다가 그의 《연행일기》를 보게 된 사연이 담겨 있다. 최일규는 서문에서 태사공(사마천), 소영빈(蘇穎濱), 벨기에인[南懷仁, 페르비스트] 등 원유(遠遊)하고 돌아온 후에야 안목과 문장이 풍부해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가 유람한 곳은 장엄하고 기록한 것은 상세하다¹⁹는 평으로 서문을 마쳤다.

2) 연행일기

〈연행일기〉는 1849년 8월 7일 압록강을 건너 날부터 10월 16일 방물(方物)을 납입하기 위해 태화전(太和殿)에 갔을 때까지의 기록을 일기체 형식으로 쓴 글이다. 〈연행일기〉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자서(自序)가 실려 있다.

기유(1849년) 7월 4일, 태의로서 특별히 천을 입었으니 이는 이는 대신(大臣)을 수행하는 예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번 크게 중국을 관람하는 것은 내가 평생 바라던 바였다. 이달 7월 17일에 한양을 떠나면서부터 9월 9일에 비로소 황성에 도달하기까지 지나온 곳과 궁실(宮室)의 장려함과 인물의 풍부함은 실로 책에 다 말할 수 없고,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다. 압록강을 건너던 날로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그 대강을 실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²⁰

〈연행일기〉는 일별로 기록되어 있고 각각 날짜·날씨·지나온 거리·지역과 주요 장소·지역에 얹힌 간략한 고사·장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그날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소회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황도순은 의주-연경을 오가며 보고를 위해 《연행록》을 쓰는 쓰는 심돈영과 달리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새로운 사실, 풍속, 소회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적었고 자신보다 58년 앞서 연경으로 사행을 다녀온 김정중(金正中)의 《연행록》²¹을 참고하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기도 하였다.²² 건축물에 얹힌 고사나 장소에 대한 묘사, 풍속 등 보편적인 사실 위주로 발췌하였고 시(詩)나 문학적 감상 등이 기록된 부분은 일부러 배제하기도 하였다.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책문(柵門)에 들어가기 전 우연히 들렀던 회천(滙川)에서 후사(後嗣)를 구하는 왕(王)씨 부부에게 가미팔미원(加味八味元)을 처방하고 더불어 지황원(地黃元)을 더하여 쓰도록 하였던 일이나 정양문(正陽門)의 서점에서 《본초강목》·《경약전서》·《수세보원》을 은 3냥에 거래하였다는 내용, 의원(醫員) 김상희(金相羲)와 온돌방을 같이 쓴 내용 정도이다.

3) 부록

〈연행일기〉뒤에는 황도순이 연행 여정중 관심이 있었던 〈태학(太學)〉, 〈노구교(蘆溝橋)〉, 〈풍속(風俗)〉, 〈소산(所産)〉, 〈연대팔경(燕臺八景)〉에 소재목을 달아 한 단락씩 내용을 써 내려간 글이 있다. 특히 〈풍속〉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였는데 청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관을 언급하거나 지역민의 인간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도 있다. 조선 인삼을 언급한 부분이나 촌점가 식사법, 술에 대한 감상, 과일을 잘 보관하는 방법 등 청나라의 풍속에 대한 소회도 간간히 보인다.

4) 일행 목록

황도순은 심돈영이 《연행록·일행총록》에 30여명이 되는 일행의 직제와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 것과 달리 자신과 가까운 인물 위주로 이름을 적었다. 먼저 박회수, 이근우, 심돈영, 박제송, 변곤, 이운경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적고 자신이 속해있는 무리였던 역관훈상당상(譯官訓上堂上) 진응환(秦應煥) 이하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의원(醫員) 김상희(金相羲) 등 22명의 이름만 적어두었다. 황도순의 《연행일기》가 보고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노정기(路程記)

황도순이 〈연행일기〉에 기록한 일록은 8월 7일 압록강을 건넌 날부터 10월 16일까지이지만 〈연행왕환노정기(燕行往還路程記)〉에는 7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나마 적어 두었다. 날짜·지역명·주요 장소·이동하는데 걸린 거리·날씨를 적고 일별로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잤는지[宿所] 아니면 점심을 먹었는지[中火] 등을 소략하게 기록하였다. 특별히 속명(俗名)이 있거나 예사롭지 않은 날씨, 세부적인 장소 등이 있는 경우는 세주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두었다. 연행왕환노정기(燕行往還路程記)에서 12월 1일 40리를 걸어 서울에 도착한 것을 끝으로 《연행일기》의 집필도 끝이 난다.

마치며

1849년 저술된 《연행일기》는 황도순의 첫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부방편람》²³보다 6년 앞서 저술한 것으로 연행(燕行) 중의 기록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의학에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서적의 기록을 통해 그가 청나라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졌고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기록에 담긴 일상에서의 모습, 여정 중에 기록한 소회들, 글을 서술하는 필치나 방식 등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황도순의 또 다른 의서가 발견되었더라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지만 사료가 많지 않은 황도순의 인물 연구에서 일기체 형식의 이 연행 기록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 동양문고 소장자의 《연행일기》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²⁴에서 장서인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방약합편》, 《의종손익》 등을 집필했던 해암 황도순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연행 기록이자 소장했었던 수택본(手澤本)이라는 점,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황도순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암 황도순 수택본(手澤本) 《연행일기》의 발굴은 의사학(醫史學)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연행일기》의 저자 황도순(黃道淳, 해암 황도연) : 1849년 간행된 황혜옹의 《연행일기》가 황도순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다음 논고를 통하여 밝혀낸 바 있다. [↩](#)

-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 연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2(31):24

2. 《방약합편》은-출간되었다. :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 살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2017:1 참조 [↩](#)

3. 朝鮮黃惠翁 : 동양문고에는 저자표기가 ‘朝鮮黃惠惠翁’으로 되어 있지만 朝鮮黃惠翁의 오기인 듯하다. [↩](#)

4. 《연행일기》고려대학교/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18.10.15. [↩](#)
5. 제공 이미지 : 동양문고 소장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제공 이미지.
[↩](#)
6. 현재 KPpia에서 황도순의 《연행일기》를 서비스 중이나 1849년에 쓴 이계조의 《연행일기》와 저자미상의 《연행일기》(황해옹 저)의 서지사항이 서로 바뀌어 서비스되고 있어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황도순. 연행일기](#)
KRpia(2018.10.15.) [↩](#)
7. [日本 東洋文庫DB](#) [↩](#)
8. 간행배경은 심돈영 《燕行錄》의 〈燕行日記〉의 일별 기록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심돈영 저. 김상일 역. 《燕行錄·燕行日記》. 서울:만사학술연구원(晩沙學術研究員). 2005:169-185 [↩](#)
9. "己酉七月朴相公以請諡兼承襲事將赴燕京,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天恩" 황도순. 《연행일기》. 1849 [↩](#)
10. 심돈영. 《연행록》. 1849. (심명구(沈明求) 소장) [↩](#)
11. 황도순. 《연행일기》. 1849. (일본 동양문고 소장) [↩](#)
12. "越庚戌元月適同爲僞直, 而黃僚袖一軸路程記來示余." 황도순. 《연행일기·서문》. 1849. [↩](#)
13. "慶州 : 26世 / 和淑公派 (參判公派), 內鍼 崔遂燁 獨子《姓源錄 續編》
1838.03.20. 內鍼醫差下. 任 副司勇《承政院日記》 1843.10.08. (憲宗9) 鍼醫《日省錄》" 박훈평 편.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602-603 [↩](#)
14. "1838.03.20. 內鍼醫差下. 任 副司勇《承政院日記》, 1843.10.08. (憲宗9) 鍼醫《日省錄》" 박훈평 편.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528 [↩](#)

15. 승습(承襲): 헌종을 이어 철종이 왕위를 잇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 [↩](#)

16. 驛馬華盖原隰駢駢: 《시경》 소아 황황자화(皇皇者華)에, "화려한 온갖 꽃들은 저 언덕 진펄에 피어 있고, 부지런히 달리는 사신은 행여 사명 못다 할까 걱정일세.[皇皇者華, 于彼原隰, 駢駢征夫, 每懷靡及]" 한 데서 온 말로, 곧 칙사를 의미한다. "原隰駢駢"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 주석(2018.10.15.) [↩](#)

17. 雨雪紛紛: 《시경》〈채미(采薇)〉에 "옛날에 내가 길을 떠날 때에는, 푸른 버들가지가 휘휘 늘어졌는데, 지금 내가 돌아올 때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네.〔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변방에서 오래 수자리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병사의 심경을 읊은 시이다. "雨雪霏霏"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 주석(2018.10.15.) [↩](#)

18. "己酉七月朴相公, 以請諡兼承襲事將赴燕京,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天恩, 驛馬華盖原隰駢駢, 是歲臘月咏雨雪紛紛之章, 而返旆亦竣事而來也. 越庚戌元月適同爲僦直, 而黃僚袖一軸路程記來示余, 余以平生願一見不得之志, 蹶然起坐忙手披覽." 황도순. 《연행일기·서문》 [↩](#)

19. "子之遊則壯矣, 子之記則詳矣." 황도순. 《연행일기·서문》. 1849 [↩](#)

20. "己酉七月初四日, 以太醫特蒙_天恩, 是隨行大臣之禮, 而亦余之所平生願一大觀者也. 是月十七日, 自京城離發, 至九月初九日, 始到皇城, 其所經歷處, 宮室之壯麗, 人物之繁庶, 實書不盡言, 言不窮形. 始自渡江日, 略陳其槩, 序次如左." 황도순. 《연행일기·연행일기》. 1849 [↩](#)

21. 金正中(1791) 저. 정연택 역. "燕行錄".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2018.10.15.) [↩](#)

22. "17세기 중엽 이후(청 건국후) 서울-연경으로 가는 왕복 여행 노정(路程)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것이었으므로 뒤에 간 사람들은 종종 이전에 사행을 다녀

온 사람들의 연행기록을 미리 읽거나 사행 도중에 상고하거나 열람의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장백위. 〈연행록(燕行錄)〉 및 관련 문헌의 '진실성(眞實性)' 문제 초탐(初探). 大東文化研究. 2017;97 ↩

²³. 황도순. 《부방편람》 14권. 1855 ↩

²⁴. 구헌희. 〈황도순 수택본 연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2(31):24 ↩

* 작성자 : 구헌희

본 해제는 지난 논고로 작성하였던 "구헌희. 〈황도순 수택본 연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 의사학회지. 2018;2(31):24"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목차는 연행의 날짜에 따라 임의로 생성하였으며 임의로 생성한 목차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임의제목** : 임의 제목 표시
-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혼동이 우려되는 글자는 다음과 같으며 본문에는 정자로 교정하여 입력하였다.
 - 樣 => 樣
 - 商 => 商
 - 緞 => 緞
 - 过 => 邊
 - 垓 => 臺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소주(小註)
- { } : 양각
- 【】: 음각
- _ : 격자(隔字)
- **제목 설명** : 제목에 대한 설명문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연행일기 燕行日記

원저자 : 황도순(황도연) 黃道淳(黃度淵)

국역 및 해제 : 구현희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2월 13일

Renewal : 2019년 7월 31일

Renewal : 2020년 12월 31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구현희(이)고 판본을 조사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8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8201》한의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도구 개발



ISBN : 978-89-5970-401-9